

목 차

정 정 신 고 (보 고)	1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2
반 기 보 고 서	3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4
I. 회사의 개요	5
1. 회사의 개요	5
2. 회사의 연혁	9
3. 자본금 변동사항	13
4. 주식의 총수 등	16
5. 의결권 현황	16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17
II. 사업의 내용	18
III. 재무에 관한 사항	78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91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93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94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94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95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95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96
VII. 주주에 관한 사항	99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02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102
2. 임원의 보수 등	103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05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2
XI. 재무제표 등	130
XII. 부속명세서	158
【 전문가의 확인 】	163
1. 전문가의 확인	163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163

정 정 신 고 (보 고)

2013년 10월 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제31기 반기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8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中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기재누락	-	아래참조

<정정 後>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2011.01.01~2013.06.30) 동안 총 2건인 14,510,694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으며, 그 중 총 2건인 14,510,694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일	단기매매차익 통보금액	환수금액	미환수 금액	반환청구 여부	반환청구 조치계획	제척기간	공시여부
차익 취득시	작성일 현재								
임원	퇴직	2013.05.09	3,235,145	3,235,145	-	반환청구 하였음	-	2014.02.09~ 2014.09.19	-
직원	재직	2013.05.09	11,275,549	11,275,549	-	반환청구 하였음	-	2014.05.24~ 2014.07.18	-
합 계 (2	건)	14,510,694	14,510,694	-	-	-	-	-

※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에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


확 인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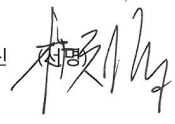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담당업무이사로서 이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 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사업보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2및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외감대상법인에 한함)

2013. 10. 7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신 광 수 

신고업무담당이사 박 천 신 

반기 보고서

(제 31기 반기)

사업연도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8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대 표 이 사 :

신 광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2번지 종로플레이스빌딩

(전 화) 02-2076-4701

(홈페이지) <http://www.wj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지주부문 CFO (성 명) 박 천 신

(전 화) 02-2076-4688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담당업무이사로써 이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 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사업보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2및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외감대상법인에 한함)

2013. 8. 14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신 광 수 (서명)

신고업무담당이사 박 천 신 (서명)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국문으로 주식회사 웅진홀딩스로 표기하고, 영문은 Woongjin Holdings Co., Ltd. 로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주)웅진홀딩스 또는 WOONGJIN으로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도서 및 교육출판물 제조·판매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3년 3월 21일 설립되어 1994년 11월 5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7년 5월 1일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에서 주식회사 웅진홀딩스로 변경하고, 동일자로 투자사업부문과 교육문화사업부문 등을 분리하여 당사를 존속법인으로 하고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을 신설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였으며, 분할이후 당사는 투자사업부문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6일자로 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으며, 2013년 2월 22일자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아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24층
 - 전 화: 02) 2076-4701
 - 홈페이지: <http://www.wjholdings.co.kr>
- (기업회생관련안내: 당사 홈페이지 접속 -> 기업회생게시판)

한편, 당사는 결산기말 이후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웅진홀딩스의 본점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2번지 종로플레이스빌딩입니다.

라.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기업집단 웅진그룹의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입니다. 웅진그룹은 그 성격에 있어서 크게 지주회사, 정신문화기업, 생활환경기업, 대체에너지기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주회사는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이며, 정신문화기업은 인간에게 지식과 정서를 전달하는 계열사들로서 아동도서, 최첨단 미디어, 전집류 및 학습도서 등을 개발, 보급하는 회사이며, 생활환경기업이란 인간의 일상에 필요한 여러 부문별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며, 대체에너지기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석탄, 유류 등과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건설레저기업은 건설업과 레저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웅진홀딩스는 지주회사로 현재 그룹의 사업영역 조정 및 투자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웅진그룹의 모태가 되는 (주)웅진씽크빅을 중심으로 (주)북센, 웅진식품(주), 웅진케미칼(주), 웅진에너지(주), 웅진폴리실리콘(주),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 (주)웅진플레이도시 등이 주요 계열회사입니다. 세부 사항은 동 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으며, 당사를 포함하여 총 20개의 국내계열회사가 있습니다. 당사를 모회사로 하는 자회사는 총 7개사입니다. 계열사 중 당사를 포함하여 (주)웅진씽크빅, 웅진에너지(주), 웅진케미칼(주)는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회사는 모두비상장 회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에서 4. 계열회사 등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 1월 2일 관계기업인 코웨이(주) 지분 전량인 21,879,304주 (28.4%)를 코웨이 홀딩스주식회사(엠비케이파트너스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7일 (주)웅진패스원의 최대주주인(주)웅진씽크빅의 이사회 결의로, (주)웅진패스원의 주식 14,109,916주(지분율: 77.06%)의 매각을 결의하고, 동 일자에 스카이레이크 제4호 0901 사모투자 전문회사 외 4개사와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67,247,860천원이며, 2013년 3월에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22일 계열회사인 극동건설(주)가 회생계획을 인가 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와 출자전환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 3월 7일(감자기준일)에 당사가 보유한 극동건설 지분과 2013년 3월 27일(감자기준일)에 당사가 극동건설에 출자전환한 주식의 전량 무상 소각됨에 따라, 2013년 3월 28일자로 당사와 극동건설(주)의 지분관계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바.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웅진폴리실리콘(주)	2008-07-16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폴리실리콘의 제조 및 판매	737,515	지분 50%이상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해당 (직접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연결자산총액의 5%이상)
(주)북센	1996-02-01	경기도 파주시 교하 읍 문발리	서적 도매 및 보관 과 운송	145,363	지분 50%이상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해당 (직접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연결자산총액의 5%이상)
(주)웅진플레이도시	2009-05-28	경기도 부천시 원미 구 상동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94,055	지분 50%이상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해당 (직접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연결자산총액의 5%이상)
(주)오피엠에스	2005-01-14	서울시 강남구 역삼 동	광고대행 및 E- Book 사업	8,451	지분 50%이상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미해당
북센제일차(유)	2013-02-1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자산유동화업	-	주2)참조	미해당
웅진식품(주)	1976-04-2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09,310	주3)참조	해당 (직접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연결자산총액의 5%이상)
(주)오션스위츠	2008-05-23	제주시 삼도이동	부동산 개발 및 공 급업	56,434	지분 50%이상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미해당
웅진에너지(주)	2006-11-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잉곳의 제조 및 판 매	422,049	주3)참조	해당 (직접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연결자산총액의 5%이상)

(주)웅진케미칼	1972-07-01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화학섬유직물 직조 업	744,036	주3)참조	해당 (직접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연결자산총액의 5%이상)
웅진텍스타일(주)	2012-12-03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섬유제품 제조업	36,708	지분 50%이상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미해당
P.T. WOONGJIN TEXTILES	1990-01-16	6th Floor, Room604, Korea Center.JL. GATOTSUBROTO KAV. 58 JAKARTA SELATAN, 12950, Indonesia	섬유제조 및 판매	46,109	지분 50%이상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미해당
TIANJIN WOONGJIN CSM ECOTECH CO., LTD.	1993-03-24 1998-08-06 (합작투자일)	NO.2 Keyuan 4st TEDA(Jinnan)Micro -electronics industrial AreaBalitai-Zhen Jinnan-District Tianjin, 300-350 China	섬유제조 및 판매	5,885	지분 50%이상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미해당
WOONGJIN CHEMICAL SHANGHAI CO.,LTD.	2003-07-01	Rm 2307, International Trade Center, 2200 Yanan Road(w). SHANGHAI, 200336, CHINA	섬유제조 및 판매	1,788	지분 50%이상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미해당
WOONGJIN CHEMICAL AMERICA INC.	2009-08-01	3390 E. Miraloma Ave.Anaheim, CA 92806, USA	섬유제조 및 판매	12,800	지분 50%이상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미해당
SUZHOU WOONGJIN ESLON FIBER CO., LTD.	2012-09-25	Lusi Road 2, Wujiangdistrict Pingwang town Zhonglu Industry Park, Wu Jiang Shi, Suzhou city, Jingsu , CHINA	섬유제조 및 판매	1,319	지분 50%이상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미해당
더블유피디제일차(유)	2010-01-1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특수목적기업	-	주2)참조	미해당
제이에이치더블유(유)	2011-09-02	서울시 중구 다동	특수목적기업	-	주2)참조	미해당

주1) 지분을 계산시 종속기업의 자기주식은 미고려하였습니다.

주2) 연결실체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주3) 당기 중 연결실체는 2013년 1월 2일자로 종속기업인 (주)웅진케미칼을 취득하였고, 투자자의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웅진에너지(주)와 웅진식품(주)는 관계 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분류되어 연결실체에 포함되었습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 신용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 가 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 등급범위)	평가구분
2011.02.25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AAA~D)	본평정
2011.02.25	회사채	A-	한신정평가(AAA~D)	본평정
2011.06.28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AAA~D)	정기평정
2011.06.28	회사채	A-	한신정평가(AAA~D)	정기평정
2011.06.28	기업어음(CP)	A2-	한국기업평가(A1~D)	정기평정
2011.06.28	기업어음(CP)	A2-	한신정평가(A1~D)	정기평정
2011.07.19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AAA~D)	본평정
2011.07.19	회사채	A-	한신정평가(AAA~D)	본평정
2011.12.29	기업어음(CP)	A2-	한국기업평가(A1~D)	정기평정
2011.12.29	기업어음(CP)	A2-	한신정평가(A1~D)	정기평정
2012.01.12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AAA~D)	본평정
2012.01.12	회사채	A-	한신정평가(AAA~D)	본평정
2012.03.26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AAA~D)	본평정
2012.03.26	회사채	A-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12.05.02	회사채	A-	NICE신용평가(AAA~D)	정기평정
2012.05.02	기업어음(CP)	A2-	한국기업평가(A1~D)	본평정
2012.05.02	기업어음(CP)	A2-	NICE신용평가(A1~D)	본평정
2012.06.13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AAA~D)	본평정
2012.06.14	회사채	A-	NICE신용평가(AAA~D)	본평정
2012.08.08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AAA~D)	수시평정
2012.08.08	기업어음(CP)	A3+	NICE신용평가(AAA~D)	수시평정
2012.09.26	회사채	D	한국기업평가(AAA~D)	수시평정
2012.09.26	회사채	D	NICE신용평가(AAA~D)	수시평정
2012.09.26	기업어음(CP)	D	한국기업평가(A1~D)	수시평정
2012.09.26	기업어음(CP)	D	NICE신용평가(A1~D)	수시평정

등급	정 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 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C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음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상기 AA~B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변경등기일	본점소재지 주소	비 고
1997.01.0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12-2 웅진빌딩	-
2007.03.1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16	-
2007.05.0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6 종로타워	-
2009.04.02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24층	-
2013.07.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2번지 종로플레이스빌딩	-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년월	변동내역	변동후 대표이사 현황
2006.03.24	대표이사 윤석금, 김준희 재선임	윤석금, 김준희
2007.05.02	대표이사 박용선 신규선임 (김준희 대표이사 사임)	윤석금, 박용선
2009.01.12	대표이사 임종순 신규선임 (박용선 대표이사 사임)	윤석금, 임종순
2009.03.20	대표이사 송인회 신규선임	윤석금, 임종순, 송인회
2009.03.31	대표이사 윤석금 사임	임종순, 송인회
2010.03.26	대표이사 신광수, 이시봉 신규선임 (송인회 대표이사 사임)	신광수, 임종순, 이시봉
2011.03.25	임종순 대표이사 사임	신광수, 이시봉
2012.09.26	이시봉 대표이사 사임	윤석금, 신광수
2012.10.04	윤석금 대표이사 사임	신광수

다. 상호의 변경

일 자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1983.03.21	도서출판 해임인터내셔널	웅진출판(주)	종합 출판사로 영역확대	-
2000.04.01	웅진출판(주)	(주)웅진닷컴	인터넷 관련 사업 강화	2000.3.17 정기주주총회 결의
2005.03.25	(주)웅진닷컴	(주)웅진씽크빅	고객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 증대	2005.3.25 정기주주총회 결의
2007.05.01	(주)웅진씽크빅	(주)웅진홀딩스	회사분할을 통한 사업목적변경(지주회사)	2007.3.29 임시주주총회 결의

라.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 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 · 도 등

일 자	내 용	비 고
2009.04.30	(주)웅진해피올 흡수합병 - 신주발행 주식수 : 6,750,526주 - 합병비율 : (주)웅진해피올(액면가 5,000원) 1주당 (주)웅진홀딩스(액면가 500원) 4.4591781주 (세부내용 : 2009.03.17 합병신고서 참조)	2009.03.20 임시주주총회 결의
2011.02.22	(주)웅진에스티 흡수합병 - 피합병 회사인 주식회사 웅진에스티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합병평가비율에 근거하여 주식 회사 웅진에스티의 보통주식 (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의 보통주식 (액면금액 500원)을 교부하지 않음 (세부내용 : 2011.03.07 합병등종료보고서 참조)	2010.12.13 이사회 결의

※ 최근 3개년 기준

마. 회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06.09.06	웅진씽크빅 인천 서구 영어마을 GEC 개원
2006.09.29	웅진그룹과 SunPower, Joint Venture 계약 체결
2006.11.17	웅진에너지 설립
2007.01.02	웅진패스원 출범
2007.03.05	웅진에너지 대전 공장 착공
2007.05.01	지주회사 웅진홀딩스 설립 및 지주회사 사업회사 분리
2007.08.21	극동건설 인수
2007.10.01	웅진씽크빅 파주사옥 2007 한국 건축문화대상 민간건축부문 대상 수상
2007.11.28	웅진에너지 대전 공장 준공식
2008.01.07	웅진그룹 NEW- CI 선포
2008.01.15	웅진케미칼(새한) 인수
2008.03.18	재단법인 웅진 설립
2008.04.03	윤석금 회장 언스트앤영 최우수기업가상 수상

2008.07.07	웅진폴리실리콘 설립
2008.09.24	웅진스타즈 창단
2008.10.10	윤석금 회장, 제1회 서울대 발전공로상 수상
2008.12.01	웅진홀딩스 임종순대표 취임
2009.01.19	웅진폴리실리콘, 현대중공업과 5억불 규모 장기공급계약 체결
2009.01.20	윤석금 회장 <엑셀런스코리아> 대한민국 베스트CEO대상 수상
2009.03.23	웅진홀딩스 등 계열사 종로타워에서 극동빌딩으로 이전
2009.04.30	웅진홀딩스, 자회사 웅진해피올 흡수 합병
2009.05.21	웅진홀딩스, 웅진홈케어 자회사로 편입
2009.06.01	경영지원실 신설 - 재무, 인사 통합경영지원 서비스 체제 구축
2009.11.04	윤석금 회장, 지속가능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2009.11.21	웅진어린이마을 착공식
2010.01.01	웅진그룹 이주석 총괄 부회장 취임
2010.01.04	웅진그룹 저탄소경영선포식
2010.01.29	윤석금 회장, <금정이 걸작을 만든다> 중국어판 발간
2010.03.10	웅진그룹 윤리경영 러브레터 발간
2010.03.10	웅진그룹 사장단 교토 컨퍼런스
2010.03.23	한국 100대 CEO'에 윤석금 회장 6년 연속 선정(매경이코노미)
2010.04.01	웅진그룹 30주년 창립기념식 및 30년사 '서른살의 웅진이야기' 발간
2010.06.30	웅진에너지 상장
2010.07.14	윤석금회장, 한국의 경영대가 2위, CEO부문 1위(매경이코노미)
2010.09.01	웅진에너지, 웅진폴리실리콘 오명 회장 취임
2010.11.30	웅진에너지, 제2공장 준공식
2011.03.25	웅진홀딩스 신광수, 이시봉 대표이사 체제
2011.04.13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 준공식
2011.06.11	웅진씽크빅, 영어콘텐츠 업체 '컴퍼스 미디어' 인수
2011.06.21	극동건설, 유상증자(제3자배정)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변경 최대주주[(주)웅진홀딩스 - 33,669,689(89.50%)]
2011.07.06	웅진홀딩스, 2011 IT거버넌스 어워드 단독 수상(ISACA Korea)
2011.07.12	웅진씽크빅, 영어학습기 시장 진출, 영어 문법 학습기 '그래머톡' 출시
2011.07.26	웅진씽크빅, 태국 교육시장 진출, 태국 트루디지털플러스와 스마트러닝 프로그램 출시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2011.10.10	웅진씽크빅, 씽크U, 제7회 이러닝 우수기업 콘테스트 서비스부문 최우수상 (교과부 장관상) 수상
2011.10.10	웅진씽크빅, 2011/2012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 DJSI Korea 지수 편입, 국내 미디어 산업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2011.11.25	웅진에너지, 대표이사변경 (변경전 : 유학도, 변경후 : 김범철)
2011.12.19	웅진에너지, 제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200억원 발행
2012.01.27	웅진씽크빅, 서울영상광고제에서 국내 최초 '본상', '특별상' 동시 석권
2012.02.24	웅진씽크빅, 조선일보 주관 2012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에 '씽크U' 선정
2012.03.23	웅진에너지, 대표이사변경 (변경전 : 김범철, 변경후 : 이재균)
2012.03.28	웅진에너지, 대구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참가
2012.04.13	웅진씽크빅, 2011 지속가능경영평가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산업 분야 AAA 획득
2012.05.30	웅진홀딩스, 웅진케미칼 지분 취득 결정 (취득예정주식수: 214,644,092주)

2012.06.27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변경 (변경전 : 이남진, 변경후: 서영택)
2012.08.15	웅진홀딩스, 엠비케이파트너스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웅진코웨이 지분관련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2012.09.14	웅진홀딩스, (주)웅진플레이도시 지분 취득 (취득주식수: 6,000,000주)
2012.09.26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변경 (변경전: 신광수, 이시봉, 변경후: 윤석금, 신광수)
2012.09.26	웅진홀딩스, 회생절차개시신청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4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변경 (변경전: 윤석금, 신광수, 변경후: 신광수)
2012.10.11	웅진홀딩스, 회생절차개시결정 (신광수 대표이사 관리인 선임,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2	웅진홀딩스, 코웨이(주) 지분매각관련 자산양수도 계약 종결 (엠비케이파트너스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주식 전량 매각, 매각주식 수: 21,879,304주)
2013.01.02	웅진홀딩스, 코웨이(주)로부터 웅진케미칼(주) 지분 취득 (취득 주식 수: 214,644,092주)
2013.02.22	웅진홀딩스, 회생계획안 인가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바. 주요 종속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연혁

회사명	연 혁
웅진폴리실리콘(주)	2008.08 웅진폴리실리콘(주) 설립 2009.01 상주공장 기공식 2009.04 중앙연구소 설립 2011.04 상주공장 준공식 2011.05 제2공장 신규투자 결정 2011.11 웅진폴리실리콘 전윤수 대표이사 신규선임 2012.05 P1.5증설(2,000톤) 완료
(주)복센	1996.01 회사설립 2003.04 (주)복센으로 사명변경 2003.10 해럴드 경제 선정 출판유통 부문 고객만족 대상 수상 2005.04 한국 로지스틱스 학회주관 "한국 로지스틱스 대상"선정(중견기업부문) 2009.11 매경 우수벤처기업상 수상 "정보통신부문_지식경제부장관상" 2011.05 물류사업 확대를 위해 국제물류 전문기업인 '웅진로지스틱스'지분(100%) 취득 2012.02 웅진로지스틱스 흡수합병
(주)웅진플레이도시	2009.12 웅진플레이도시 오픈 2010.10 5개 테마 완성 운영(워터, 스노우, 골프, 신기, 키즈) 2012.07 야외워터파크 (패밀리존) 오픈 2012.12 스노우파크 (이글루 체험파크) 오픈
웅진식품(주)	1976.04 동일상업 주식회사 설립 1987.12 웅진그룹 인수 1996.04 웅진식품(주) 상호변경 2000.06 아침햇살 대한민국 마케팅대상_ 베스트 명품상 수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0.12 초록매실, 올해의 10대 히트상품 선정 (삼성경제연구소) 2009.11 웅진식품 중국수출액 1,000만 달러 돌파 2011.04 웅진식품상해유한공사 설립 2011.05 커피 통합 브랜드 '바바(baba)' 런칭 2012.08 하늘보리, 한국 소비자 웰빙지수(KS-WCI) 6년 연속 1위 선정 2013.01 자연은 9년 연속, 하늘보리 5년 연속 퍼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

웅진케미칼(주)	2008.01 웅진그룹 편입
	2010.11 토탈 인테리어 브랜드 "Miolze" 런칭
	2011.04 웅진케미칼 미국법인 필터 공장 완공(미, 애너하임시)
	2012.07 아라원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인증 획득
	2012.10 화학부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우수기업 선정
	2012.12 텍스타일 사업부 물적분할을 통한 웅진텍스타일주식회사 설립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3.06.30)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비고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2007.05.01	-	보통주	33,019,460	500	-	-
2007.05.01	주식분할	보통주	24,384,228	500	-	인적분할(웅진씽크빅)로 인한 감소
2007.10.09	현물출자	보통주	40,852,941	500	18,610	-
2007.12.28	-	보통주	773,611	500	-	(주)플래티늄미디어 소규모합병에 의한 신주발행
2009.05.13	-	보통주	6,750,526	500	-	(주)웅진해피올 합병에 따른 신주발행
2009.06.30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561,724	500	12,250	제39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행사기간: 2009.06.30)
2010.02.16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80	500	12,250	제39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행사기간: 2009.07.01~2010.02.16)
2010.11.12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642,763	500	9,200	제39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행사기간: 2010.02.17~2010.11.30)
2011.01.27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6,657	500	9,200	제39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행사기간: 2011.01.27)
2011.10.11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932	500	9,200	제39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행사기간: 2011.10.11)
2012.04.19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82	500	9,200	제39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행사기간: 2012.04.19)
2013.02.26	무상감자	보통주	46,866,177	500	-	회생계획에 따른 기존주주대상 감자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 5:1, 그외주주 3:1)
2013.02.27	출자전환	보통주	582,639,158	500	500	회생채권 출자전환
2013.02.28	무상감자	보통주	468,522,439	500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주주대상 감자(5:1)
2013.03.19	무상감자	보통주	85,019,094	500	-	회생계획에 따른 전체주주대상 감자(3:1)

<전환사채>

가.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전환사채 내역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당반기말	전기말
전환사채	-	10,000,000
사채상환할증금(*1)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전환권조정	-	-
전환사채 장부금액	-	10,000,000
차감: 유동성전환사채	-	(10,000,000)
차감계	-	-

(*1) 연결실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전환사채는 회생채권으로 신고 되었으며, 이에 관련 상환할증금은 미지급비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013년 2월 22일에 인가된 연결실체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중 공모사채'에 포함되어 당반기말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가.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내역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당반기말	전기말
신주인수권부사채	97,612,080	97,612,080
사채상환할증금	10,746,602	10,746,602
사채할인발행차금	(1,157,727)	(1,306,920)
신주인수권조정	(11,204,305)	(12,648,166)
신주인수권부사채 장부금액	95,996,650	94,403,596
차감: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95,996,650)	(94,403,596)
차감계	-	-

나. 상환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역

1)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신규 차입	상환	기말금액
제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97,612,080	-	-	97,612,080
합 계	97,612,080	-	-	97,612,080

2)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내역

구 분	내 역
종류	분리형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의 권면총액	120,000,000천원
사채의 발행가액	120,000,000천원
표면이자율	연 2.00%
보장수익율	연 4.00%
이자지급조건	발행일로부터 3개월 분할후급
원금상환방법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11.0095% 일시상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주1)	(1) 조기상환청구기간 : 2013년 10월 19일 ~ 2013년 11월 19일 (2) 조기상환기일 : 2013년 12월 19일 (3) 상환방법 : 사채원금의 104.1428% 일시상환
신주인수권에 대한 내용 (주2, 3, 4)	(1) 최초행사가액 : 4,945원/주 (2) 조정후행사가액 : 3,960원/주 (3) 행사청구기간 : 2012년 1월 19일 ~ 2016년 11월 19일 (4) 최초행사비율 : 100% (5) 조정후행사비율 : 124.87% (6) 당기중 행사된 신주인수권 : 4,635,602주 (7) 행사된 누적 신주인수권 : 4,635,602주 (8) 미행사된 잔여 신주인수권 : 19,630,314주

주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시 지급하는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와 동일하여별도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2)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가능하며,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연도의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주3)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또는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사채 발행 후 3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최초 행사가가격의 80%를 한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기 중 동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당 3,960원(행사비율124.87%)으로조정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1주를 행사할 경우 배정되는 주식수는 1.2487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4) 당기 중 4,635,602주(현금납입: 111,021주, 사채대용납입: 4,524,581주)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됨에 따라 보통주 4,635,602주가 발행되었습니다. 한편, 사채대용납입으로 인하여 액면가액 22,387,920천원(장부가액 21,006,927천원)이 조기상환됨에따라 1,367,121천원의 사채상환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5)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은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 회제이-00094(신주인수권 대가의 회계처리)에 따라 지분상품의 분류요건을 충족하므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일 반 사 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합 계
2013.07.01 ~ 2014.06.30	68,982,000	97,612,080	166,594,080
2014.04.01 이후	-	-	-

(*)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19일에 원금의 104.1428%가 상환될 수 있으므로 당기 보고기간말 현재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상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비유동부채로 재분류되면만기일인 2016년 12월 16일에 원금의 111.0095%가 상환될 예정입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2013년 6월 30일 현재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42,503,966주입니다.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215,870주를 제외한 보통주 42,288,096주입니다.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3.06.30)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1,500,000,000	-	1,500,000,000	-
II.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642,911,676	-	642,911,676	-
III.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600,407,710	-	600,407,710	-
1. 감자	588,362,157	-	588,362,157	-
2. 이익소각	12,045,553	-	12,045,553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IV. 발행주식의 총수 (II - III)	42,503,966	-	42,503,966	-
V. 자기주식수	215,870	-	215,870	-
VI. 유통주식수 (IV - V)	42,288,096	-	42,288,096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3.06.30)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2,503,966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215,870	상법 제369조제2항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42,288,096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31기 반기	제30기	제29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500
당기순이익 (백만원)			611,981	-1,327,958	6,813
주당순이익 (원)			18,222	-23,283	158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II. 사업의 내용

1. 지주회사의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개요

1) 지주회사의 정의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회사의 법적기준 이상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시켰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서는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지배구조 개선, 외자유치 원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지주회사 현황

당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이며,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 (주)웅진씽크빅, 웅진에너지(주), 웅진케미칼(주) 등을 포함하여 7개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현황

① 종속기업 투자지분현황

[2013.6.30 기준, 단위: 백만원]

회 사 명	지분율	장부가액	영위업종	비 고
(주)북센	68.75%	7,221	서적 도매 및 보관과 운송	-
웅진폴리실리콘(주)	50.38%	-	폴리실리콘 제조 및 판매	-
(주)웅진플레이도시	80.26%	900	오락관련 서비스업	-
(주)웅진에너지	35.45%	49,699	Ingot의 제조, 판매 및 유통	-
합 계	-	57,820	-	-

주1) 전기 중 당사는 조업중단 중인 웅진폴리실리콘(주)의 보통주에 대해 손상차손 116,921,303천원을 인식하였음.

주2) 전기 중 당사는 (주)웅진플레이도시의 우선주 6,000,000주를 900,000천원에 취득함.

주3) (주)웅진에너지에 대해 당기 중 변경된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기업주식에서 종속기업주식으로 재분류함.

② 관계기업 투자지분현황

[2013.06.30 기준, 단위: 백만원]

회 사 명	지분율	장부가액	영위업종	비 고
(주)웅진씽크빅	28.32%	115,160	도서 및 교육출판물 제조 및 판매 등	-
(주)웅진에너지	-	-	Ingot의 제조, 판매 및 유통	
합 계	-	115,160	-	-

주1) 웅진에너지에 대해 당기 중 변경된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기업주식에서 종속기업주식으로 재분류함.

3) CIT서비스부문 및 사업부문 현황

① IT 서비스부문

IT서비스 부문은 웅진그룹 내에서 SI, SM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SAP B1, R3 등의 전사적 ERP 구축과 더불어, 그룹웨어, 화상회의시스템, 성과평가 시스템 등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부문

당사는 자회사로 있던 주식회사 웅진해피올을 2009.04.30 일자로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는 그룹 SSC(Shared Service Center : 공유서비스) 부문을 지주회사에 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식회사 웅진해피올은 인터넷 정보제공,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0년 2월 17일자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1월 16일 상호를 주식회사 해피올닷컴에서 주식회사 웅진해피올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당사의 사업부문으로 귀속되어, 고객사의 원,부자재 및 제품 공급서비스 대행 및 그룹의 자산관리와 총무지원서비스 대행, 콜센터 서비스 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가족형 내비게이션 "go&joy"를 출시하여 내비게이션 유통사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 4월 29일자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부응 및 사업부문 구조조정 차원에서 외부사 및 계열사의 원부자재 및 소모성자재(MRO) 통합 구매대행 사업부문의 사업철수를 결정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허가받았습니다. 당사는 향후 안정성과 수익성을 지닌 SI(시스템 통합), 광고플랫폼 및 콜센터 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 사업부문별 매출 및 주요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출유형	2013년 반기	2012년	2011년
지주부문	관계사배당금수익	-	26,332	30,224
	브랜드 로열티	6,672	16,256	16,954
	경영자문	2,190	7,964	7,674
	기 타	7,531	2,719	8,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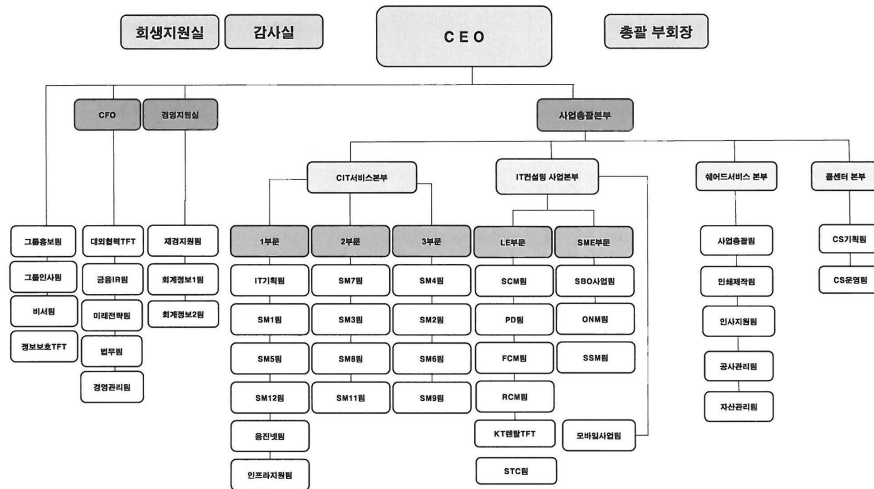
	소 계	16,393	56,271	63,074
IT서비스 부문	SM	20,747	44,400	43,677
	SI	5,101	16,641	12,361
	기 타	1,187	15,488	8,346
	소 계	27,035	76,529	64,384
사업부문	MRO	-	393,595	452,067
	FM	9,358	35,223	42,861
	CCT	12,162	24,996	23,527
	기 타	12,503	14,812	35,365
	소 계	34,023	468,626	553,820
합 계		77,451	601,426	681,278

※ K-IFRS기준 / FM(시설물관리유지 등), CCT(콜센터본부)

다.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지주회사임에 따라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해 발생하는 지분법이익, 부동산 소유 및 임대, 브랜드 수익, 배당 수익외에 다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별도로 구분된 공시대상 사업 부문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의하여 주요경영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주회사로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에 따라,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회사의 범위는 2013년 6월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가액 기준으로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대상 주식의 총 장부가액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회사로 웅진케미칼(주)가 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말 현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당사 연결자산총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요종속회사로는 (주)웅진플레이도시, (주)복센, 웅진폴리실리콘(주), (주)웅진케미칼, 웅진에너지(주), 웅진식품(주)가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에 따라,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 조직도



1총괄본부 1그룹조직 1실 4본부 5부문 40팀 3TFT

마.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1) 브랜드 사용계약

(주)웅진홀딩스는 웅진 브랜드의 소유주로서 브랜드의 가치제고 및 육성, 보호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8년 1월 1일 부터는 웅진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와 상호 간에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상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2) 브랜드 사용료 수취

2013년 6월말 현재 당사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는 7개사 입니다. 브랜드 사용료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인식한 브랜드 사용료 수익은 6.672백만원입니다.

바.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위험관리의 개요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① 신용위험
- ② 유동성위험
- ③ 환위험
- ④ 이자율위험
- ⑤ 기타 가격위험관리

상기 위험에 대한 연결실체의 노출정도 및 이와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와 위험

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개념체계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이자율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실체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연결실체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분석한 주기적인 내부위험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이사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3) 금융위험관리

① 신용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현금성자산(*1)	300,935,018	57,495,533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	674,629	665,569
유동성만기보유금융자산	-	-
유동성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72,574
유동성위험회피파생상품자산	-	309,017
금융기관예치금	144,256,746	401,471,250
매출채권(*2)	98,479,440	117,276,401
미청구공사(*2)	-	-
단기대여금(*2)	61,517,035	59,867,587
미수금(*2)	5,318,600	7,404,722

미수수익(*2)	5,849,685	1,773,246
유동성금융리스채권	104,100	112,843
단기보증금	-	2,586,958
소 계	617,135,253	649,035,700
[비유동자산]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892,982	892,670
비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	-	-
비유동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549,793	942,503
장기금융기관예치금	110,091	104,972
장기매출채권(*2)	22,639,459	-
장기대여금	394,681	24,444
장기미수금(*2)	110,000	-
장기보증금	7,358,735	5,717,050
장기미수수익	-	-
금융리스채권(*2)	8,675	118,559
소 계	32,064,416	7,800,199
합 계	649,199,669	656,835,899

(*1) 상기 금액은 시재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상기 금액은 손상차손누계액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후의 금액입니다.

연결실체는 (주)하나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의 해외 비중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지역별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유동성위험관리

연결실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환위험

연결실체는 제품 수출 및 원재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USD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기능통화로 환산된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USD	JPY	EUR	기 타	USD	JPY	EUR	기 타

자산:								
현금성자산	328,374	24	-	-	282,009	-	-	57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0,662,060	178,741	-	-	24,211,723	245,260	24,942	16,418
자산 합계	40,990,433	178,765	-	-	24,493,732	245,260	24,942	16,989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026,874	591,300	3,494,470	-	126,085,284	961,597	1,598,213	1,715
장기차입금	-	-	-	-	28,919,700	-	-	-
부채 합계	14,026,874	591,300	3,494,470	-	155,004,984	961,597	1,598,213	1,71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 가정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2,696,356	(2,696,356)	(13,051,125)	13,051,125
JPY	(41,254)	41,254	(71,634)	71,634
EUR	(349,447)	349,447	(157,327)	157,327
기타	-	-	1,527	(1,527)
합 계	2,305,655	(2,305,655)	(13,278,559)	13,278,559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당반기와 전기에 적용된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평균 환율		기말 환율	
	당반기	전기	당반기말	전기말
USD	1,106.82	1,126.88	1,149.70	1,071.10
JPY(*1)	1,153.19	1,413.14	1,167.15	1,247.50
EUR	1,704.38	1,448.20	1,753.81	1,416.26

(*1) 엔화의 환율은 100엔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④ 이자율위험관리

연결실체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차입금등이 회생채무로 재분류되고 개시후이자 면제되므로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이자부 금융상품 및 금융부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단기차입금	140,108,390	581,135,418
유동성자산유동화채무	2,000,000	-
자산유동화채무	333,333	20,000,000
유동성사채	68,896,255	658,764,973
유동성전환사채	-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95,996,649	94,403,596
유동성장기차입금	464,004,638	572,411,239
장기차입금	55,462,190	182,234,433
사채	-	64,146,858
합 계	826,801,455	2,173,096,517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변동이자부 금융부채와 관련되어 이자율 1% 변동 가정시 연간 당기손익에 대한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순이익 증가(감소)			(1,334,143)	1,334,143

(*) 당기 중 변동이자율부 단기차입금 중 일부는 법정관리로 인한 기한이익상실로 민감도분석에서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⑤ 기타 가격위험관리

연결실체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상장지분상품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기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장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내에서 중요한 투자자산의 관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득과 처분은 연결실체의 경영진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4)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순부채:		
단기차입금	140,108,390	581,135,418

자산유동화채무	2,000,000	20,000,000
유동성사채	68,896,255	658,764,973
유동성전환사채	-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95,996,649	94,403,596
유동성장기차입금	464,004,638	572,411,239
장기차입금	55,462,190	182,234,433
사채	-	64,146,858
차 감:		
현금및현금성자산	(300,935,018)	(57,495,533)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	(674,629)	(665,569)
유동성금융기관예치금	(144,256,746)	(401,471,250)
차감계	(445,866,393)	(459,632,352)
자 본	380,601,729	(1,679,341,860)

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의 연결실체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부채총계	2,544,340,519	3,330,879,411
현금및현금성자산 차감	(300,935,018)	(57,495,533)
조정 부채	2,243,405,501	3,273,383,878
자본총계	275,631,740	(573,659,360)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자본조정 가산(차감)	-	-
조정 자본	275,631,740	(573,659,360)
조정 부채 비율	813.91%	-

(*) 전기말 자본 총계가 부(-)의 금액이므로 당기말 비율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 파생상품거래 현황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파생상품자산]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72,574
위험회피파생상품자산	-	309,017
비유동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549,793	942,503
[파생상품부채]		
유동성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

유동성위험회피파생상품부채	45,542	-
비유동위험회피파생상품부채	-	83,283

2)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계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외화단위: 천USD)				
	계약내용				
	계약일	만기일	통화	약정환율	매도금액
통화선도 (위험회피목적)	2011-08-09	2013-05-20 2013-06-20	USD	1,108.85~ 1,108.95	4,000
통화선도 (매매목적)	2010-11-15	2013-04-19	USD	1,108.85~ 1,108.95	2,000
합 계					6,000

3)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효한 이자율스왑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자율스왑 계약	원화장기차입금
계약체결일 또는 차입일	2010년 9월 02일	2010년 9월 02일
만기일	2014년 2월 21일 ~ 2014년 5월 21일	2014년 2월 21일 ~ 2014년 5월 21일
계약금액 또는 원금	10,736,595,787 원	10,736,595,787 원
고정이자율	4.85% ~ 5.73%	-
변동이자율	-	CD+1.35% ~ 2.1%

4) 평가내역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거래목적	파생상품 종류	계약잔액	자 산		부 채		파생상품평가손익	
			유동성	비유동	유동성	비유동	기타	당기손익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부채	포괄이익(*1)	
매매목적	신주인수권	-	-	549,793	-	-	-	(180,650)
현금흐름위험회피 (*1)	이자율스왑	8,700,771	-	-	45,542	-	58,508	(22,552)
합 계			-	549,793	45,542	-	58,508	(203,202)

(*1) 당반기 이자율스왑(위험회피목적)의 평가액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각각 16,502천원입니다.

아. 연결실체의 사업별 재무현황

<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구 분	사 업 내 용
지 주	계열사 관리 및 투자, 계열사 IT서비스 제공, 그룹 구매 대행 등
출 판 유 통	서적 도매, 보관 및 운송
에 너 지	폴리실리콘 제조 및 판매
오 락	레저 및 오락 등

1) 사업별 부문의 재무현황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실체의 산업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지 주	출판·유통	에너지	오락	기타	합 계
손익계산서:						
총매출액	77,450,957	69,922,170	57,082,535	18,207,023	(22,344,062)	200,318,623
내부매출액	(13,363,483)	(11,075,314)	(195,984)	(386,728)	25,021,509	-
순매출액	64,087,474	58,846,856	56,886,551	17,820,294	2,677,447	200,318,622
영업이익(손실)	9,621,878	1,415,849	(27,900,710)	4,124,946	(1,201,227)	(13,939,264)
재무상태표:						
업종별자산	1,069,598,102	140,544,762	140,544,762	297,348,394	1,171,936,239	2,819,972,259
업종별부채	807,395,473	126,055,476	126,055,476	299,869,820	1,184,964,274	2,544,340,519

해외귀속 부문수익과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가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지 주	출판·유통	에너지	오락	기타	합 계
손익계산서:						
총매출액	407,174,850	74,699,545	121,186,949	577,178	(127,639,538)	475,998,984
내부매출액	(115,565,232)	(7,558,587)	(3,938,541)	(577,178)	127,639,538	-
순매출액	291,609,618	67,140,958	117,248,408	-	-	475,998,984
영업이익(손실)	43,391,361	1,068,455	(73,279,108)	-	(108,982,948)	(137,802,240)
재무상태표:						
업종별자산	2,236,097,103	151,126,943	1,408,512,874	60,432,076	579,708,205	4,435,877,201
업종별부채	1,359,696,213	131,908,422	960,677,312	60,422,075	882,281,924	3,394,985,946

해외귀속 부문수익과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가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③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지주	출판·유통	에너지	오락	기타	연 결 조 정	소 계	중단사업(*)	합 계
손익계산서:									
총매출액	601,426,042	150,781,407	34,506,754	9,865,905	1,411,824	(95,968,910)	702,023,022	-	702,023,023
내부매출액	(93,253,908)	(1,154,990)	(1,198)	(146,990)	(1,411,824)	95,968,910	-	-	-
순매출액	508,172,134	149,626,417	34,505,556	9,718,915	-	-	702,023,022	-	702,023,023
영업이익(손실)	(428,760,638)	2,033,311	(99,614,977)	2,830,321	-	279,784,044	(243,727,939)	-	(243,727,938)
당기순이익(손실)	(48,282,949)	(5,245,344)	(562,686,952)	(32,430,720)	(647)	(647,219,912)	(1,295,866,524)	(296,785,551)	(1,592,652,075)
재무상태표:									
업종별자산	1,560,593,051	141,024,669	317,888,165	298,500,934	40,026,036	(24,839,188)	2,333,193,667	-	2,333,193,667
업종별부채	2,026,885,641	126,920,090	671,581,983	295,678,966	40,016,683	(147,648,008)	3,013,435,355	-	3,013,435,355

(*)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주)북센은 2010년 4월 30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출판사업(지역별 서적도매 사업), BTC사업(대형쇼핑몰임점 및 온라인 사업), 지류사업(지류도매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이었던 극동건설(주)는 당기 중 지배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해외귀속 부문수익과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가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④ 전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지주	출판·유통	에너지	오락	기타	연 결 조 정	소 계	중단사업(*)	합 계
손익계산서:									
총매출액	681,278,289	132,417,863	189,213,587	-	174,156,174	(146,634,856)	1,030,431,057	-	1,030,431,057
내부매출액	(127,116,250)	(969,209)	(253,573)	-	(18,295,824)	146,634,856	-	-	-
순매출액	554,162,039	131,448,654	188,960,014	-	155,860,350	-	1,030,431,057	-	1,030,431,057
영업이익(손실)	57,971,556	4,109,881	12,244,437	-	12,716,918	36,655,882	123,698,674	-	123,698,674
당기순이익(손실)	9,018,614	(486,965)	(10,748,845)	-	(7,079,990)	32,025,547	22,728,361	(184,069,834)	(161,341,473)
재무상태표:									
업종별자산	1,985,717,368	157,517,964	737,515,008	-	1,279,259,153	(588,532,306)	3,571,477,187	-	3,571,477,187
업종별부채	1,125,016,486	134,035,975	556,316,071	-	1,043,862,976	(155,148,520)	2,704,082,988	-	2,704,082,988

(*)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주)북센은 2010년 4월 30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출판사업(지역별 서적도매 사업), BTC사업(대형쇼핑몰입점 및 온라인 사업), 지류사업(지류도매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이었던 극동건설(주)는 당기 중 지배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해외귀속 부문수익과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가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연결실체의 지역별 구분

[단위: 백만원]

지역별 구분	2013년 반기	2012년	2011년
한 국	145,093	701,052	1,338,879
북 미	3,034	216	19
아시아	46,686	34,162	148,427
유 럽	249	566	110
중 동	5,256	10,303	
합 계	200,318	746,299	1,487,435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매출액기준임.

2. 주요 자회사의 사업현황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가. 사업의 개요

(주)웅진씽크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출판 및 교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인 (주)웅진씽크빅은 2007년 5월 1일자로 상장회사인 (주)웅진홀딩스의 교육문화사업부문 등이 인적분할되어 신설회사로 설립된 교육문화기업입니다. 당사는 분할 이후 도서 및 교육출판물 제조·판매업, 정기간행물(잡지) 발행업 및 영어교육사업 등 출판 및 교육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당사가 도입한 K-IFRS 기준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는 총 2개(컴퍼스 미디어, Bearport Publishing, Company, Inc.)이며, 동종업종인 출판 및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 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부문			회 사	사업 내용
국내	국내 교육서비스 및 출판사업	교육문화사업본부	(주)웅진씽크빅	회원제 학습교육
		미래교육사업본부		전집류 방문판매
		기타사업부문		홈스쿨, 단행본 출판 등
	영어 교육사업		(주)컴퍼스미디어	영어학원사업 등
해외	해외 출판사업		Bearport Publishing Company, inc.	학습서적출판 등

기타	기타 사업부문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내부거래 제거
----	---------	----------------------

<사업부문 구분 방법>

- 당사 및 종속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는 '교육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으나, 제품 별 특성에 따라 상기와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 상기 미래교육사업부문은 당기(2013년)부터 홈스쿨 사업부문과 분리되어 운영되며, 제5 기부터 소급 적용하여 전집판매 매출만을 기재합니다.
- (주)웅진패스원은 2013년 3월 중 매각이 완료되어, 사업부문 구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단위: 천원)

사업부문			제7기 반기		제6기 연간		제5기 연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내교육 서비스 및 출판사업 부문	교육문화 사업부문	자산	259,588,417	56.7%	294,198,675	51.3%	302,860,432	47.6%
		매출	189,189,937	56.7%	391,021,574	53.6%	394,630,297	51.8%
		영업손익	9,353,865	86.4%	19,558,061	205.7%	33,682,534	91.2%
	미래교육 사업부문	자산	115,789,845	25.3%	154,758,284	27.0%	166,822,126	26.2%
		매출	84,388,486	25.3%	205,690,347	28.2%	217,370,967	28.5%
		영업손익	3,310,498	30.6%	13,328,274	140.1%	19,622,671	53.1%
	기타	자산	73,270,207	16.0%	19,177,587	3.3%	106,988,588	16.8%
		매출	54,535,911	16.3%	115,388,127	15.8%	139,407,244	18.3%
		영업손익	(3,948,321)	-	(25,941,413)	-	(18,639,375)	-
영어 교육사업부문		자산	13,422,391	2.9%	13,202,924	2.3%	10,387,019	1.6%
		매출	5,825,602	1.7%	14,889,897	2.0%	7,940,623	1.0%
		영업손익	(177,354)	-	3,179,610	33.4%	2,427,200	6.6%
해외 출판사업부문		자산	3,443,595	0.8%	3,079,354	0.5%	3,474,059	0.5%
		매출	-	0.0%	3,416,551	0.5%	3,386,876	0.4%
		영업손익	-	0.0%	(42,953)	-	(63,048)	-
기타 사업부문		자산	(7,442,747)	-	89,326,956	15.6%	45,330,130	7.1%
		매출	(93,925)	-	(1,042,099)	-	(427,230)	-
		영업손익	2,284,637	21.8%	(571,277)	-	(87,629)	-
합 계		자산	458,071,708	100.00%	573,743,780	100.00%	635,862,354	100.00%
		매출	333,846,011	100.00%	729,364,397	100.00%	762,308,777	100.00%
		영업손익	10,823,325	100.00%	9,510,302	100.00%	36,942,353	100.00%

* 제7기(2013년)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제6기 및 제5기 사업의 내역 및 주요 재무현황을 재작성하였으며(연결기준), (주)웅진패스원은 당기 중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부문 구분에서 제외함.

* 상기 비중은 연결 기준의 자산 및 매출,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상기 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음.

* 상기 미래교육사업부문 매출은 2013년부터 홈스쿨과 분리되어 운영함에 따라, 제5기부터 소급적용하여 전집 판매 매출만을 기재하였음.

* 상기 '국내 교육서비스 및 출판사업 부문' 내의 기타 사업은 매출액 구성비가 10% 이내인 단행본 출판, 홈스쿨 사업, 임대수입 등이 있음.

* 상기 '해외 출판사업 부문'의 매출 및 영업손익은 연결 재무제표 상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반기 사업보고서 작성 시 공시할 예정임.

- 공통 판매비와 관리비 분배의 기준

* 당사의 부문별 영업이익은 본부 발생비용과 공통 판매비와 관리비를 자사의 배부기준(매출액 구성비율, 인원 수 등)으로 배부하여 계상하였음.

- 영업손익의 조정

* 당사는 '국내 교육서비스 및 출판사업부문' 내의 세부 사업부문 별 내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음.

* 상기 '기타사업 부문'은 보고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 부문과 부문 간 내부거래 제거 및 중단사업, 연결조정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제5기 기타 사업부문에는 ㈜웅진패스원의 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6기 기타 사업부문에는 중단영업 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자산분배의 기준

* 상기 사업부문 별 자산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음.

* 상기 '국내 교육서비스 및 출판사업부문' 내의 사업부문 별 자산의 경우, 제6기 및 제5기는 별도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비중 기준으로 배분하였 으며, 제7기 반기는 연결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보고부문의 총 자산은 부문간 내부거래 제거 전 내역임.

다. 사업부문별 현황

1) 국내 교육서비스 및 출판사업 부문

① 업계 현황

[산업의 특성]

출판, 교육서비스 산업은 수요자의 정신적 욕구에 호소하는 문화산업으로서 연령, 계층, 학력에 따라 다양한 Needs가 존재하고 있고, 제품 종류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이 시장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 기반 확보에 성공한 일부 업체만이 존속을 유지하고 나머지업체들은 도태되고 있어서 시장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판, 교육서비스 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대한 문화욕구 증대와 높은 교육 열기 등에 힘입어 꾸준한성장세를 실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조기교육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학습지 및 유아 교육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으로 온라인 교육이 중요한 매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국내 출판, 교육서비스 시장은 사회구조의 다변화 및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문화 욕구 증가와 조기 교육에 대한 높은 교육열 등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지식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새로운 주요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출판, 교육서비스 산업도 과거의 단순한 출판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정보생산업의 한 분야와 접목한 새로운 정보지식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산업으로서 3차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이후 인터넷 서점의 급속한 개설과 인터넷 학습 사이트의 등장은 향후 인터넷을 통한 출판, 교육서비스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아직은 수익모델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되고 규모가 성장하면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조와 함께 유통시장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 형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형태의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 보완에 의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익 모델 창출에도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진출해 있는 학습지의 경우 그 시장이 초등 중심에서 유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본부의 경우 전집류 판매뿐 아니라 생태학습 체험 등 다양한 사후 서비스를 부가하여 차별적인 제품 판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출판, 교육서비스 산업은 여타의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판 중 전집 제품의 경우 경기에 일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학습지의 경우 가격대가 월 24,000원에서 45,000원대의 저가로 형성되어 있어 경기 하락시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전집류의 경우 장기간의 투자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대형 출판사들 간의 경쟁 상태로 나타나며, 단행본 등은 영세업자로부터 대형 출판사에 이르기까지 약 7,000여개의 출판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습지 시장은 교육 개혁 조치와 관련하여매년 급성장을 해왔는데 특히 회원제 학습지 분야에서는 자사를 비롯하여 대교, 교원구몬,재능교육 4개사 중심의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습지 시장은 기존의 초등 중심에서 영,유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시장 자유화 조치로 1999년부터는 출판시장의 전면 개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외국 자본의 대거 유입이 예상되고 우수한 유통 기술을 가진 외국의 대형 출판 유통사들의 국내 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에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향후 이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 되면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출판, 교육서비스 시장에 온라인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하여 전자책, 유/무료 콘텐츠, 온라인 학습지 등 많은 종류의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마케팅 및 홍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으나 아직 독자적인 유료화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정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온라인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경쟁 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 조달의 특성]

출판의 주 원재료인 용지는 국제펄프 수급 동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제지업계의 적절한 투자 설비 및 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하여 출판업계의 자원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등의 법률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제조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인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으로 제품의 질적인 수준과 안정성 확보가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② 시장의 특성 및 점유율 등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학 입시 제도의 개편, 높은 교육열로, 출판 교육서비스 시장에서의 학습지 분야 및 유아, 아동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학습지 시장은 군소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으며, 학습대상이 대부분 초등 중심이고 현재 영유아 계층의 소비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출판, 교육서비스 회사의 주요 회사 매출 비교 (2012년 말 기준) -

(단위 : 억원)

구분		매출액 기준											
		2012년	비율	2011년	비율	2010년	비율	2009년	비율	2008년	비율	2007년	비율
시장규모(추정) (주1)		190,395	100.0%	201,266	100.0%	208,718	100.0%	216,259	100.0%	209,095	100.0%	200,400	100.0%
대교	상장	7,715	4.1%	8,185	4.1%	8,600	4.1%	8,455	3.9%	8,411	4.0%	8,466	4.2%
웅진씽크빅(주2)	상장	7,121	3.7%	7,759	3.9%	7,914	3.8%	8,252	3.8%	7,846	3.8%	6,902	3.4%
교원구몬	비상장	6,530	3.4%	6,731	3.3%	6,812	3.3%	6,763	3.1%	6,527	3.1%	6,014	3.0%
재능교육	비상장	2,425	1.3%	2,519	1.3%	2,443	1.2%	2,458	1.1%	2,683	1.3%	3,188	1.6%
교원	비상장	4,875	2.6%	4,823	2.4%	4,644	2.2%	3,682	1.7%	3,025	1.4%	2,789	1.4%
한솔교육	비상장	2,281	1.2%	2,525	1.3%	2,501	1.2%	2,417	1.1%	2,230	1.1%	2,429	1.2%
메가스터디	상장	2,267	1.2%	2,631	1.3%	2,458	1.2%	2,383	1.1%	2,023	1.0%	1,634	0.8%
능률교육	상장	517	0.3%	476	0.2%	452	0.2%	439	0.2%	376	0.2%	325	0.2%

주요회사(계)	33,731	17.7%	35,649	17.7%	35,824	17.2%	34,849	16.0%	33,121	15.9%	31,747	15.8%
---------	--------	-------	--------	-------	--------	-------	--------	-------	--------	-------	--------	-------

주1) 시장 규모는 추정자료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2007년 ~ 2012년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2013.02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공시자료, 비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 참조.

주2) (주)웅진씽크빅의 2007년 등 이전 실적은 회사분할 전 기준임.

주3) 상기 주요회사들의 실적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주4) 2010년 이전 실적은 K-gaap 기준임.

③ 영업개황

지배회사인 (주)웅진씽크빅은 글로벌 교육문화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습지 부문, 전집류, 아동 및 성인 단행본 등 출판 및 교육서비스 영역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와 다양한 고객서비스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결과 2013년 반기 매출 3,281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 교육문화 사업본부

'21세기 창의력 큰 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제 과목 학습지의 판매와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 교육문화 사업본부는 지국 230여 개의 전국적인 영업조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교육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7,400여 명의 학습지 교사들이 '학습지 회원의 공부하는 습관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웅진씽크빅의 '창의력' 강화 콘셉트에 맞춘 차별적 요소가 고객의 니즈에 꾸준히 부합하면서 2013년 1분기말 109 만 회원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의 공식업체로 7년연속 선정되면서 저소득층 가정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9월 신개념 On-Off Blended 학습지인 씽크U를 출시하였으며 수학, 사회/과학, 국어, 영어 등주요 교과목을 제공하며 2013년 반기말 현재 27만여 명의 회원을 달성하며 학습지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본부는 '교육문화기업으로서의 웅진씽크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의 전문 역량 강화, 회원의 학력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고객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내부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여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2) 미래교육 사업본부

미래교육 사업본부는 웅진그룹의 모태가 되는32년의 연륜을 가진 사업본부로서 과거에는 제품 개발력을 바탕으로 영업 조직의 판매력을 사업의 중심에 두었다면, 지난2004년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창조하는 교육 전문가 그룹"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판매력 중심의 영업조직을 고객에게 유형(전집/도서류)과 무형(제품 활용 서비스)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전문가 그룹으로 양성하는 교육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2004년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에서 국내 최초로'라가치 상'을 수상, 2006년에는 한국출판문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제품 개발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영업 및 고객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조직은 전국에 걸쳐 560여 개의 지역국에서 4,800여 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단행본 사업본부

단행본 사업본부는 웅진그룹의 시작과 함께 하며, 그동안 유아, 아동, 청소년, 일반 대상의 다양한 장르의 양서를 기획,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출판문화를 선도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 영미 선진 출판 기업 모델인 임프린트제를 적극 도입하여 새롭게 출발하면서, 다수의 출판 브랜드를 지닌 단행본 출판그룹으로 가파른 성장과 함께 출판계의 새바람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0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라가치상 픽션 부문 우수상에 돌로 만든 석굴암(웅진주니어)이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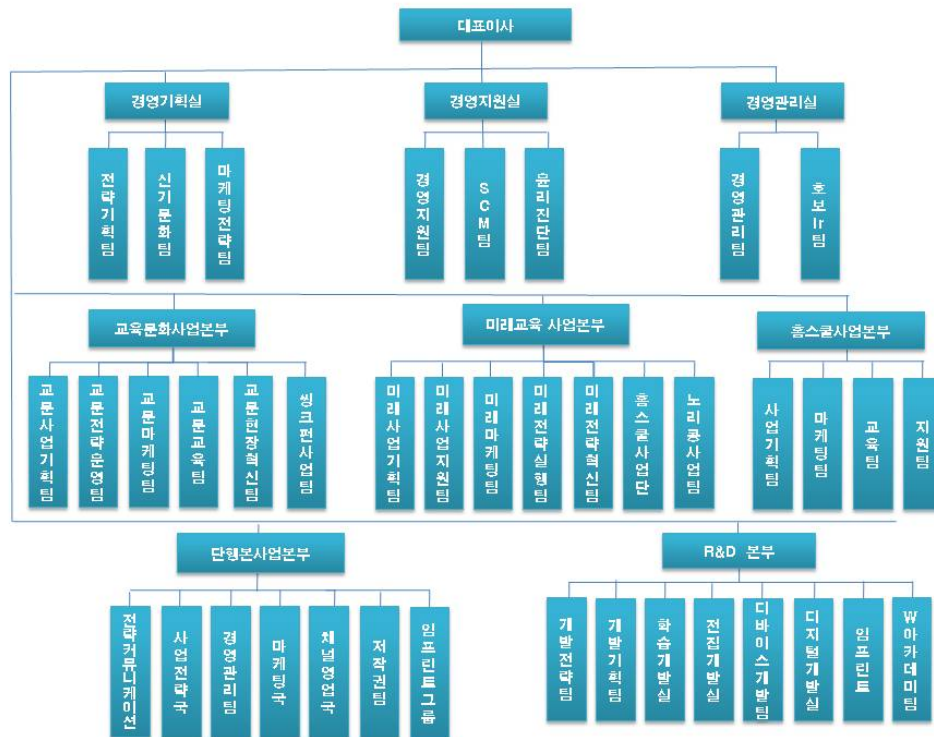
새로운 브랜드에서 출간된 <문명의 배꼽 그리스>(2013.02), <죽음이란 무엇인가>(2012.11), <습관의 힘>(2012.10), <스마트한생각들>(2012.06), <문제는 경제다>(2012.03), <자기혁명>(2011.10), <밀레니엄 시리즈>(2011.03), <스위치>(2010.04), <넛지>(2009.04),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2006.06), <경제학콘서트>(2006.02)가 모두 10만~20만부 이상 판매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도서가 좋은 반응을 얻은 한편, 2000년 새로운 장르의 지평을 연 <이윤기의 그리스로마신화>, 2002년 MBC의 느낌표에 선정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푸른교실 시리즈의 <나쁜 어린이표> 등도 꾸준한 사랑을 받아 웅진 단행본의 도서가 주요 서점의 분야별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웅진 단행본은 출판기획의 전문성 강화와 과학적인 마케팅 관리를 통해 출판 시장에서의 업계 1위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한편, 출판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4) 홈스쿨 사업본부

어린이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교육 파트너 홈스쿨 사업본부는 9명 내외 소그룹으로 재택에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7개의 영업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여명의 초등교육전문가 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 1분기 5만 7천여 회원을 달성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초등교육전문공부방 부문에서 '제10대 대한민국 교육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홈스쿨공부방에서는 <브이스터디>, <V2수학>, <한국사>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논술>, <한자>, <특강> 프로그램을 학습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등교과 성적을 올려주고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학년 별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학습 진단 및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공부습관을 형성'에 초점을 맞춰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부리더십' 웅진홈스쿨은 초등전문공부방 업계 1등을 위해 내부 역량을 집중시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조직도



2) 영어 교육사업 부문

① 업계 현황

[산업의 특성]

종속회사인 (주)컴퍼스미디어가 포함된 출판, 교육서비스 산업은 크게 학원사업, 학습지 및 교재 출판공급업,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문화산업분야로서 연령, 계층, 학력 등에 따른 다양한 소비계층의 존재로 이에 맞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시장의 경우,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높은 교육열, 조기교육 열풍, 입시제도의 수시 개편 등으로 관련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국제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영어사용능력을 갖춘 인력의 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도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여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지만,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디지털 교육 수요증가에 따른 IT와 콘텐츠와의 융합, 자체 저작권 보유여부, 개발 역량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점차 그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2013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영어 사교육 시장 규모는 현재 약 6.5조원으로 추정되며,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개발 및 공급 확대, ebook 보급 확산에 따른 출판분야의 급속한 디지털화 추세에 의한전자출판 시장의 확대, 공교육 및 사교육에서의 양방향 디지털교육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하여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판, 교육서비스 산업은 과거의 단순한 출판문화사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매체, IT 디바이스를 통해 새로운 정보지식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 보

완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다양한 수익 모델 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출판, 교육서비스 산업은 여타의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ELT 출판 교재의 경우 가격 변동폭이 최근 3개년간 1,000~2,000원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주력제품인 초·중등 교재의 경우에도 가격대가 10,000원~17,000원대의 저가로 형성되어 있어 경기 하락 시에도 여타 산업군과 대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더스, 수험서, 특수목적용 교재 등은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나, 학원 및 대학 수업용 학습교재는 매 학기 교재 채택 시기에 따른 계절적인 불균형이 높은 편입니다.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최근 정부는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육을 시작하는 의미로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서책용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등 제반 학습 자료를 데스크탑PC, 태블릿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전자화된 교과서를 의미합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백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2014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이르면 2015년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IT와 교육 콘텐츠를 결합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는 Smart Learning에 대한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교육에서는 전자 교과서 도입과 Smart Learning 시범 학교(세종시 외)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통신사와 교육 업계는 Smart Class 사업을 제휴 (예: SKT+청담어학원=표현어학원, KT+이퓨처=Smartree 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Smart Phone, Tablet PC 등 Mobile Device가 대중화되면서 e-Book, 교육용 application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교육 업체에서 기존 교육 콘텐츠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결합하고 개인화 서비스를 지향하는 등 향후 Mobile 환경에서의 교육 모델을 준비하는 전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주)컴퍼스미디어는 다년간 축적해온 영어학습콘텐츠 개발 및 편집 노하우와 이미 유아~성인까지 연계학습이 가능토록 영역별로 구축된 자체 생산 콘텐츠를 digitize하여 저작권 문제 없이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 공교육, 소규모 공부방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관리모형을 개발 및 공급, 타사 대비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원 조달의 특성]

출판의 주 원재료인 용지는 국제펄프 수급 동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제지 업계의 적절한 투자 설비 및 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하여 출판업계의 자원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에 활용되는 학습콘텐츠는 대부분 자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모델에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저작권법 등의 법률 규제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관련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② 시장의 특성 및 점유율 등

[시장의 규모 및 특성]

현재 전세계적으로 ELT (English Language Teaching) 콘텐츠 주요 공급자는 Pearson, Oxford 등 영미권 소재의 교육 콘텐츠 업체들입니다. 한국의 ELT (English Language Teaching) 시장은 약 2,350억원(Cengage Learning Report 기준/2009년)으로 세계 3위 규모입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인 영어 어학원 시장은 한국 정부의 사교육 억제와 내신 성적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형 어학원과 소형 개인, 공부방 등으로 시장이 양극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어 사교육 시장은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높은 교육열, 조기교육 열풍, 입시제도의 수시 개편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Trend의 변화]

(1) 4 Skill 통합형 Blended Learning 강화

초등 부문은 중등에서의 내신 중심의 공교육 정책과는 별개로 읽기/듣기/쓰기/말하기의 총체적인 영어 활용 능력을 증가시키는 통합형 학습에 대해 지속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의 특성상 영어 활용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영어 활용이 가능한 학습 임계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교실 수업과 병행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주요 업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Reading(다독)수요 증가

다양한 Reading을 기초로 하여 단어 구사력, 독해력을 키우고 Speaking, Writing 등 영어 활용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 프로그램 또는 이와 결합된 체계적 Reading Program 형태로 사업화 되고 있습니다.

(3) Mobile학습 환경 대비

최근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Mobile Device 보급 확대와 더불어 e-Book, 교육용 application 개발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기존 콘텐츠와 LMS를 결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지향하는 등 향후 Mobile 환경에서의 교육 모델을 준비하는 전략이 주요 업체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③ 영업개황

종속회사인 (주)컴퍼스미디어는 지난 십여 년 간 ‘삶의 가치를 높이는 영어교육의 실현’을 모토로 영어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바탕으로 시장을 계몽하고 이끌어가는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영어학습법, 교사와 학습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습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으로 차별화된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Phonics~성인, Test 시장에 이르는 전 레벨, 영역에 걸친 ELT(English Language Teaching) 교재를 개발, 출판해온 영어교육출판 전문회사입니다.

종속회사인 (주)컴퍼스미디어는 특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 대학에서부터 중소규모의 공부방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학습 콘텐츠 및 학습자의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가능케 하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생산, 공급하는데 주력하는 양질의 영어교육 콘텐츠 서비스 업체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학습 환경과 개인화된 양방향 교육을 제공하는 Smart Class, B2C 온라인 영어다독 프로그램인 Reading Oceans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을 위해 미국, 일본, 대만, 중동지역 등 전 세계의 지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결과 2012년 매출 149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 영어교육출판

전문가 그룹을 통해 개발된 효과적인 영어학습방향과 체계적인 교수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유아용 Phonics 학습서에서부터 대학교 교양영어 및 TOEFL 및 기타 국가공인영어능력시험 수험서에 이르기까지 영미 수준의 교재 수백 종을 출판하고 교사와 학습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습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판부문은 많은 출판사가 난립하고 있는 완전 경쟁 형태이며 진입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인지도 있는 저자의 확보, 교재의 편집/디자인 Quality를 위한 지속적인 R&D, 학기 수요에 따른 적기 출간, 새로운 고객 Needs의 포착, 저작권 문제 등의 요소가 복합적이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체계적인 학습관리, 수준별 맞춤교재 추천, 교사용 보조자료 등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한 경쟁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영어 활용이 가능한 학습 임계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실 수업과 병행하는 교재와 결합된 온/오프라인 형태의 다양한 학습모델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이러닝

지난해 교과부는 2015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디지털 교과서, 유무선 통합 환경 등을 구축하는 2조 원 규모의 스마트 교실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각종 Mobile Device의 대중화와 함께 e-book, 교육용 application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고, 기존 콘텐츠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결합한 개인화된 맞춤식 서비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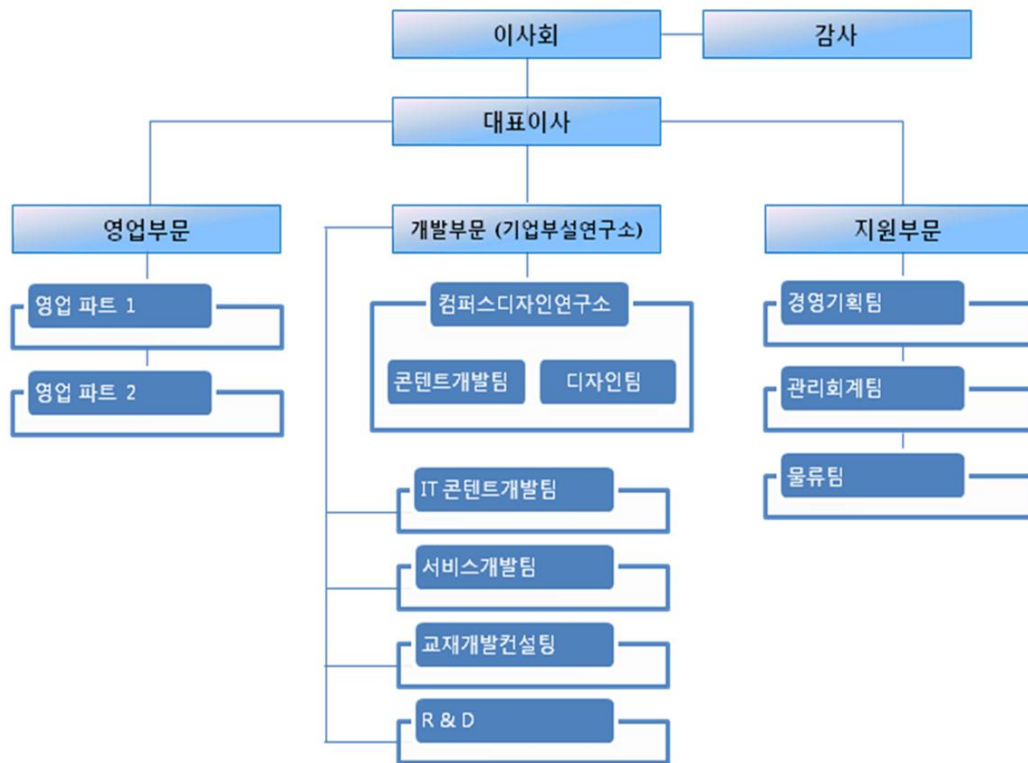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의 특성상 영어 활용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영어 활용이 가능한 학습 임계량을 확보하고 읽기/듣기/쓰기/말하기 4대 영역의 총체적인 영어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통합형 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회사는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이 가능한 Blended Learning 형태의 1천 여종의 리더스를 포함한 자기주도학습 온라인 다독프로그램(Reading Oceans) B2C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론칭하였고, 다양한 교육용 Tablet, Smart Board 활용 멀티미디어 기반 스마트러닝 서비스 모델을 준비, B2G로의 공급 및 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서비스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영어교육

각 권역별 글로벌 파트너와의 체계적인 협력 및 해외사업기반을 구축하여 현지에 적합한영어교재 및 학습솔루션 제공하고, 전 세계 35 개국에 ELT교재, TOEFL 등 수험준비서, 판권 등을 포함한 교육 콘텐츠를 수출, 2011년 대비 48% 성장한 약 26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 티칭경험이 있는 원어민 세일즈 전문가를 채용하고 매년 런던, 프랑크푸르트, 볼로냐, 아부다비 등 해외 유수의 도서박람회 및 학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해외 바이어들과의 대면상담, 최신 교수법 및 글로벌 영어교육 시장동향에 대해 면밀히 체크하고 기존/신규 바이어들이 원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디자인 및 편집에 반영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거래채널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지속적인 관계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④ 조직도



3) 해외 출판사업 부문

① 업계 현황

[산업의 특성]

종속회사인 Bearport Publishing Company, inc.는 미국 초중등 연령대 학교 도서관 및 일반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한 논픽션 시리즈물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미국내 초중등 교육 산업 부문은 오바마 내각이 들어선 이후 공교육의 보강을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모든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으나, 2012년도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면서 공교육 강화 부문은 모든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차차 시장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대상 사업부문은 경기 변동에 따라 미국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면, 이에 따른 연방 정부의 도서관이나 지역 사회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큼. 특히 학교 도서관의 경우 도서 구입 예산의 20%이상을 정부 지원 예산에서 책정 받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종속회사인 Bearport Publishing Company, inc.가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 요인은 (1) 우수한 콘텐츠 소스, (2) 숙련된 편집개발 역량, (3) 해당 영역에서 활동 영역이 넓은 마케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원 조달의 특성]

해당 사업을 위한 주요 자원은 우수한 콘텐츠 저작물 및 저작자, 이에 따른 저작권 등이며, 베어포트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는 영문 베이스로서, 미국 및 영어권 특히 영국 등에서 시리즈물의 특성상 장기적인 소싱 관계에 따라 조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종속회사인 Bearport Publishing Company, inc.의 사업은 특별히 규제를 받거나 민감한 분야의 사업군이 아닌 초중등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출판사업으로 별도의 정부의 규제나 지원 사항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요 고객군이 초등학교의 도서관 및 지역사회 도서관 등으로 이러한 주고객층의 구매 예산의 20% 이상이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매출 편차가 다소 존재하는 편이며, 저작물을 다루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저작권 관련 법령의 변경 등에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② 시장의 특성 및 점유율 등

전체 라이브러리 시장은 3천억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며, 전국 6만 6천여개의 국공립 및 사립 도서관 존재하고 있습니다. Library non-fiction 부문은 현재 약 20여개의 출판사가 각축중이며, 연간 6천여종의 신간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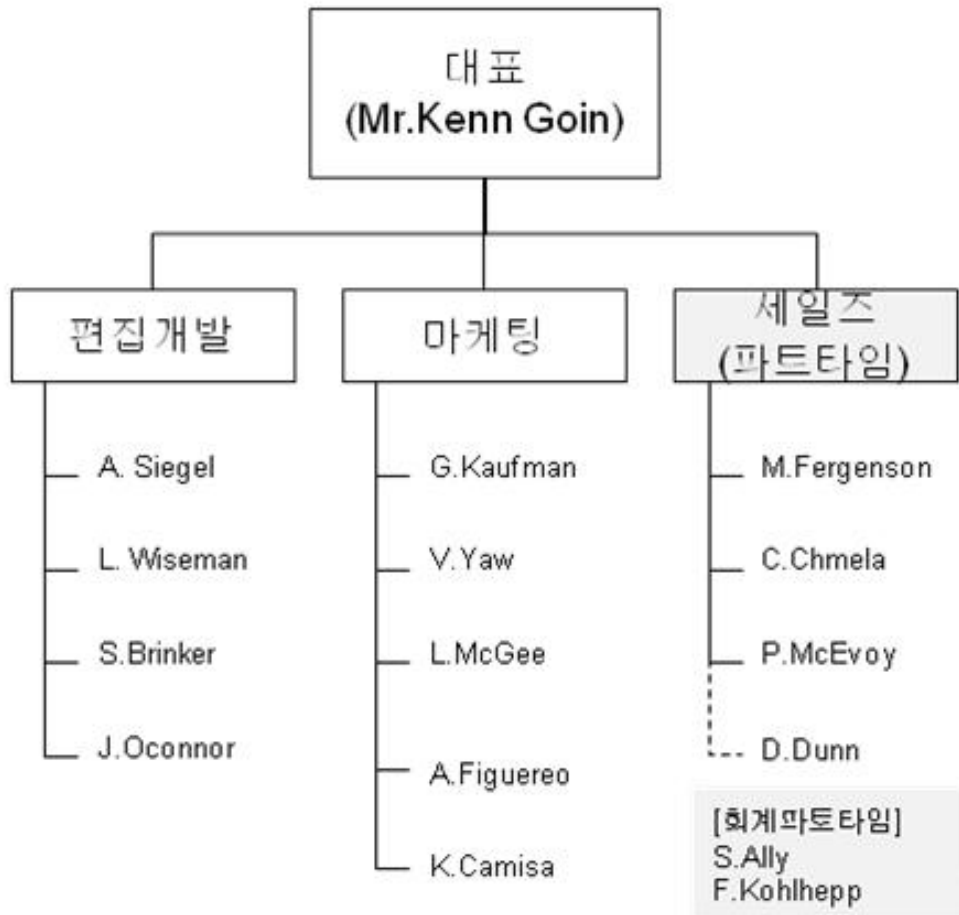
종속회사인 Bearport Publishing Company, inc.의 경우, 매출 규모상 전체 시장의 1% 이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부지역 시장에는 Capstone including Heinemann(연매출 \$60 million), Lerner(\$45 million), Facts on File(\$40-45 million)등의 주요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③ 영업개황

종속회사인 Bearport Publishing Company, inc.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초중등 대상의 논픽션 시리즈물을 주로 출간하는 출판업체입니다. 2003년 10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CEO는 Mr. Kenn Goin으로, 2012년도의 매출은 301만 USD 수준입니다.

해당 시장의 연간 규모는 약 3천만불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요 시장 및 대상 고객은 초중등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 등으로, 총판 및 개인 마케터를 활용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④ 조직도



라.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지배회사인 (주)웅진씽크빅은 지난 32년간 출판과 교육서비스 사업을 통해 쌓아온 다양한영역의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러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우수한 생산 인력 인프라와 기존 오프라인 사업을 통해 D/B화된 회원 수백만 명을 확보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웅진씽크빅은 다양한 온라인 부가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단행본 사업부문의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임프린트 시스템을 도입,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모바일 기반 플랫폼(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증가로 콘텐츠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웅진씽크빅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 러닝사업 영역(씽크U, E-book, App-Book,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 등)을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토리빔" 제품의 경우, 잠자리 책읽기를 도와주는 최초의 디바이스로 시장을 선점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전집 등의 기존 콘텐츠와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교육, 콘텐츠 소비의 신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웅진씽크빅은 교육서비스 제공 연령을 초등 고학년부터 영아까지 위아래로 확장하여주요 제품 타겟의 스펙트럼을 넓힐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노리콩", "웅진홈스쿨" 등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 모델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종속회사인 (주)컴퍼스미디어는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Blended Learning 뿐만 아니라, Tablet PC, Smart Board 등으로 멀티미디어 수업이 가능한 Smart Learning Service를 국내의 B2B, B2G 고객,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하여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ELT 콘텐츠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약 20조원 이상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시장을 겨냥하여 일본, 동남아, 중동 등의 ESL 국가로 매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영어교육 콘텐츠 시장에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 중동, 베트남 등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어, 해외 매출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수 년 간 IT 부문에의 지속적인 R&D로 Smart Learning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저작권 문제로 온라인 콘텐츠의 활용이 제한적인 외국계 출판사나 IT 개발 역량이 부족한 타사와 차별화된 각종 신규사업을 기반으로 다변화된 수익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웅진씽크빅과 그 종속기업은 기존 사업부문의 안정적인 성장과 이러한 신규 사업들의 추가 성장 모멘텀 공급을 통해, 종합 교육전문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마. 주요 제품, 서비스 등

주요 제품은 (주)웅진씽크빅과 그 종속기업의 주요 사업부문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상품이며,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주요 제품 등의 현황

(기준일 : 2013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 유형	품 목	구체적 용도	매출액	비율
국내 교육서비스 및 출판사업	교육문화사업부문	제품	웅진씽크빅수학	공부방 및 관리교사를 통하여 초등학생에게 수학을 친근감있게 만들어 주는 창의력 학습지	24,538	7.4%
			한글깨치기	유아의 특성과 생활에 기초한 내용으로 제작된 주간 한글 학습지	16,135	4.8%
			웅진씽크빅국어	공부방 및 관리교사를 통하여 초등학생에게 국어를 친근감있게 만들어 주는 창의력 학습지	25,239	7.6%
			웅진씽크빅한자	공부방 및 관리교사를 통하여 초등학생에게 한자를 친근감있게 만들어 주는 창의력 학습지	4,318	1.3%
			기타제품	웅진씽크빅 사회과학 등	118,960	35.6%
	소 계				189,190	56.7%
	미래교육사업부문	제품	21세기 웅진학습백과	교과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풍부한 시각자료 및 부록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여주는 학습백과 사전	2,001	0.6%
			첫지식 그림책공알	다양한 작동이 가능한 조작북과 팝업북으로 아이들의 체험탐구 과정을 통해 지적성장을 실현시켜주는 양방향적 체험지식 그림 책	3,062	0.9%
			비주얼 박물관	초등교과과정과 연계한 사회 과학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흥미 롭고 생생한 사진과 조화를 이룬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 는 전집	1,386	0.4%
			원리가 보이는 과 학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과학지식을 재미있는 일 러스트와 함께 쉽게 보여주는 과학 전집물	1,171	0.4%
			마술피리 그림책-꼬마	예측과 반복에 즐거움을 주는 그림책구조에 운율 리듬이 있는 언 어와 사물의 움직임 및 특성이 잘드러나는 언어 전집물	2,064	0.6%
			땅친구물친구	Story Telling 기법으로 생태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이해	2,541	0.8%

				를 높인 과학 전집물		
			호롱불 옛이야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이야기를 다양한 예술기법을 통해 담아 내어 읽는 감동에서 보는 감동까지 선사하는 전래동화집	2,934	0.9%
			기타제품	웅진유니아이, 곰돌이, 푸른아이 등	67,780	20.2%
		제품소개		-	82,939	24.8%
		상품	기타상품	웅진 클래식 음악동화등	1,449	0.4%
		상품소개		-	1,449	0.4%
	소 계				84,388	25.3%
	기타사업부문	제/상품	기타 제/상품	단행본 출판 및 홈스쿨 부문, 임대 매출 등	54,536	16.3%
	소 계			-	54,536	16.3%
	영어 교육사업	제품		Reading 교재 등	ELT 영어학습교재 및 영어동화시리즈 등	3,462
상품		Readers Series 등	영어동화시리즈 및 영어독해, 회화 교재 등	1,234	0.4%	
서비스		Reading Oceans 등	온라인 다독 프로그램 외 기타 서비스 등	1,130	0.3%	
소 계				5,826	1.7%	
해외 출판사업	제/상품		논픽션 시리즈 물	유초등 연령대 도서관용 논픽션 시리즈물	-	-
기타			기타부문 및 내부거래제거		-94	0.0%
합 계			-		333,846	100.0%

주1) 상기 주요제품 등의 현황은 내부거래 조정 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주요 제품등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사업 부문	회사명	품 목	제7기 반기	제6기말	제5기말
국내 교육서비스 및 출판사업	(주)웅진씽크빅	웅진씽크빅 수학	35,000	35,000	35,000
		웅진씽크빅 국어	35,000	35,000	35,000
		21세기 웅진학습백과	989,000	989,000	989,000
		반딧불 과학 그림책	620,000	620,000	570,000
		비주얼 박물관	880,000	770,000	770,000
		웅진 곰돌이	372,000	372,000	372,000
영어 교육사업	(주)컴퍼스미디어	Super Easy Reading	10,000	10,000	10,000
		Very Easy Reading 2nd	13,000	13,000	13,000
해외 출판사업	Bearport Publishing Company, inc.	평균 단가 20~21 USD 수준으로, 주목할 만한 가격 변동 사항 없음.			

주1) 전집류는 1질의 가격, 학습지는 1개월 회비 기준(결산일 현재의 가격)임.

단, 유니아이 곰돌이는 1년 구독료임.

바. 매출에 관한 사항

사업부문	매출 유형	품 목	제7기 반기	제6기 연간	제5기 연간
------	----------	-----	--------	--------	--------

국내 교육서비스 및 출판사업	교육문화사업본부	제 품	회원제 학습지	189,190	391,022	394,630
	미래교육사업본부	상 품 제 품	전집류 및 교구	84,388	205,690	217,371
	기타사업부문	상 품 제 품 기타매출	홈스쿨, 단행본 출판 등	54,536	115,388	139,407
영어 교육사업		상 품 제 품 서 비 스	ELT 영어학습교재 및 온라인 다독 프로그램 등	5,826	14,890	7,941
해외 출판사업		제/상품	논픽션 시리즈 물	-	3,417	3,387
기타		기타매출	기타부문 및 내부거래 제거	-94	-1,043	-428
합 계				333,846	729,364	762,309

주1) 상기 매출에 관한 사항은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부문간 매출액을 포함함.

주2) 상기 미래교육사업부문은 당기(2013년)부터 홈스쿨과 분리되어 운영함에 따라, 매출은 제5기부터 소급적용하여 전집 판매 매출만을 기재함.

주3) ㈜웅진패스원은 2013년 3월 중 매각이 완료되어, 사업부문 구분에서 제외함.

<웅진케미칼 주식회사>

가. 업계의 현황

1) 화성원사 Chain 전반의 시황

2009년 수급구조 개선 및 원재료가 안정세에 힘입어 채산성 호전이 이루어진 국내 화섬업계는 2010년 들어 뚜렷한 시황 회복세를 바탕으로 산업 Chain 전반의 양호한 수익성 개선추이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화학섬유 내 주요비중을 차지하는 폴리에스터 원사 부문은 경쟁업체의 조업중단, 생산설비 축소 등 업계 내 구조조정이 일정 수준 마무리되면서 2008년부터 점진적인 수급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2009년이후 중국 등 신흥시장의 견조한 수요 성장세에 힘입어 2010년 중 산업 전반의 뚜렷한 업황 호조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2011년에도 계속 되나, 2011년 하반기에 들어서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경기 회복 부진으로 성장률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분위기 속에 유가추이, 원재료 가격 등락 등 수익 변동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 2012년 성장의 위축

2012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그 동안 전반적인 성장추세에서 다소 안정을 다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선진국 시장인 유럽과 미국은 재정위기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둔화 요소가 상존하였고, 유가 및 원료가 등도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보였습니다. 따라서 업계 전반적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의류용 제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용, 의료용 등 비의류용 개발과 출시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화섬 업체들은 슈퍼 섬유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한 해였습니다.

3) 2013년 불안한 성장세

2013년 세계 폴리에스터 수요는 연간 6%대의 성장이 기대 됩니다. 중국의 폴리에스터 소비량은 선진국의 약 35% 수준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국의 폴리에스터 증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지속되어 화섬업체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① 수출 부문

2013년 상반기 한국의 섬유수출 누계는 79억\$로 전년동기대비 +2.24%(+1.7억\$)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품목의 현황을 전년 대비로 보면 면사(+16.1%), 의류(+11.6%) 등이 증가하였고, 화섬사(-0.76%), 면직물(-5.3%) 등이 감소 하였습니다. 수출단가는 2005년 5.0\$/kg, 2006년 5.0\$/kg, 2007년 5.1\$/kg, 2008년 5.3\$/kg, 2009년 4.7\$/kg, 2010년 5.1\$/kg, 2011년 \$5.9/Kg, 2012년 \$5.7/Kg, 2013년 상반기 \$5.8/Kg으로, 2012년 감소세를 보인 후 반등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섬유류 수출 동향]

(단위 : 백만U\$)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섬유류 계	15,932	14.6	15,595	-2.11	7,933	2.24
원 료	1,431	29.0	1,375	-3.86	701	3.73
원 사	1,793	13.5	1,755	-2.12	883	1.04
직 물	9,683	14.4	9,292	-4.04	4,723	0.27
섬유제품	3,025	10.2	3,173	4.88	1,626	8.45

※ 자료 : 한국섬유개발연구원(증감율은 전년대비임)

② 수입 부문

2013년 상반기 섬유수입은 전년동기대비 7.13% 증가한 59억\$를 기록하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면사(+12.1%), 화섬사(+6.4%)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품목별 섬유류 수입 동향]

(단위 : 백만U\$)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섬유류 계	12,628	27.2	11,989	-5.1	5,869	7.11
원 료	301	22.6	264	-12.0	122	-9.92
사	2,567	14.7	1,956	-23.8	1,066	8.17
직 물	1,956	18.8	1,768	-9.6	860	-2.62
섬유제품	7,804	34.7	8,000	2.5	3,821	9.94

※ 자료 : 한국섬유개발연구원(증감율은 전년대비임)

수처리 필터 기술 현황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고농도 폐수의 증가, 물 부족 현상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담수 플랜트의 확산은 물 산업의 기술 패러다임을 물리/화학적 처리방식에서 분리막방식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수처리 정화 방식인 물리/화학적 처리법으로는 고농도 폐수를 쉽게 정화하기 어렵게 되었고, 반면 그 동안 가격 비효율성으로 외면받았던 고기능 분리막 기술의 가격 현실화가 진전되었기 때

문입니다.

분리막 기술은 막을 통해 정제하는 기술로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하는 RO(Reverse Osmosis)와 미세 기공으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마이크로필터(MF), 울트라 필터(UF), 나노 필터(NF)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사는 RO와 MF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필터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초일류 제품을 선보여 매출 및 이익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UF필터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을 추진 중이며, 조기에 UF필터 생산 및 판매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및 해외법인 업계의 현황

웅진텍스타일 주식회사는 2012년 12월 1일자로 웅진케미칼에서 물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되었습니다. 패션의류용 소재 및 기능성 유니폼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PT WOONGJIN TEXTILES의 경우는 중동의 전통의상인 ARABIAN ROBE(디시다샤, DISHIDASHA)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두바이 모라토리움 이후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점차 회복 추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중동지역을 두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천진웅진CSM은 당사로부터 RO필터 막을 수입하여 필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환경 분야는 정책적 고려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삼투압 필터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필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웅진케미칼 상해무역법인은 당사의 대중국 진출 전초기지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마케팅영업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고객사 관리, 시장 조사 등을 시행하며 당사와상해법인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웅진케미칼 미국법인은 RO필터의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본사의 RO필터 막을 수입하여 필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저압멤브레인(low pressure membranes)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 재이용 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섬유부문 수익성 확보 및 점진적 비섬유부문 확대

유럽지역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영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내장용 PSF 등 신제품 개발로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EUAnti-dumping 관세 종료로 인한 유럽지역의 차별화 제품(LM, S/C등) 판매 확대를 통해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원사 생산 공장을 설립, 중국 내수시장 공략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비섬유 부문에서는 생산량 확대를 위해 필터 코팅라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F는 매출 확대를 위하여 신규 제품군을 개발하며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 시장점유율 등

① 폴리에스터 단섬유(PSF)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	-------	-------	-------	-------

웅진케미칼	37.0	35.0	32.8	31.0	29.3
휴비스	54.0	56.0	58.2	60.0	61.7
기 타	9.0	9.0	9.0	9.0	9.0

※ 자료 : 화성협회(출하량 기준)

② 폴리에스터 장섬유(PF)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웅진케미칼	9.0	9.0	8.0	7.7	6.9
휴비스	13.0	14.0	13.7	13.2	11.8
대한화성	19.0	8.0	8.0	8.2	11.9
기 타	59.0	69.0	70.3	70.9	69.4

※ 자료 : 화성협회(출하량 기준)

3) 시장의 특성

① 섬유 부문

PSF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의류 산업 호조,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증가로 인한 섬유교역량 확대,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의 상승 및 TPA/EG 수급 불균형으로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수익성 변동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후발국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범용 제품 대신 신소재,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PF제품은 중국이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여전히 낮은 점을 감안하여 차별화 제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물산업은 소재산업(Up-Stream)과 완제품 산업(Down-Stream)을 연결시켜주는 산업으로서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위주의 산업이며 산업특성상 환율변동 및 세계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산업용 섬유는 기존 제품에 다기능성을 부여하여 경량화와 고성능 목적으로 용도 전개 및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산업현황을 고려 시, 중국등의 후발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지만, 생상품목을 차별화하고, 전문화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사업전개와 산업용 직물 등의 비의류 섬유의 비중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비섬유 부문

RO 시장은 크게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됩니다. 가정용 RO 시장은 대부분 정수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정수기 보급률이 50%에 이르면서 완만한 성장 중이나 세계 시장의 경우, 중국, 인도 등 이머징 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염소성 필터 개발 등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사업을 강화하고, 중국 등 주요 시장의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RO 시장은 환경오염, 용수비 증가로 인한 폐수 재활용 분야와 반도체 및 광학 업종 증설로 인한 초순수 분야의 두드러진 성장이 전망됩니다. 또한 국내외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진행이 가시화되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수담수 및 재활용 시설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필터의 성능향상에 개발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필터 부문은 메탈, 멜트블로운, 폴리선폰 등 다양한 소재 개발 및 용도 확대로 세계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BLU 소재시장은 크게 확산판(도량판), 프리즘, 확산시트(마이크로렌즈시트), 반사형편광시트(DBEF), 반사시트로 분류되어지며, 본격적인 3D용 패널 생산 및 친환경 동향(저 소비전력)으로 고휘도 및 저가시트 제품의 수요가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산판, 프리즘시트, 반사시트 등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하고, 광학 부품소재 메이커로써 인지도를 확보하였습니다.

③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웅진케미칼은 '글로벌 화학소재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섬유사업, 환경소재역량을 바탕으로 한 신소재를 신규 성장동력으로 정하였습니다. 기존사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신소재 유망사업 확대를 위해 기술집약적 첨단 슈퍼 섬유로 각광받고 있는 고내열성 섬유 중 상대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메타아라미드 섬유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환경소재는 필터의 다양화를 시작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필터 부문은 세계적 수처리 필터 전문 메이커로서 Global 3대 Major로서 자리매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생산시설 구축 등 RO부문의 시장점유율 확대 노력과 함께 MF 부분에서는 멜트블로운 제조기술 확보를 통한 원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재는 확산판과 프리즘시트를 시작으로 디스플레이용 광학소재의 종합 공급업체로 성장할 것이며, 기존 LCD기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섬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전자소재로, 시장이 본격화되는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정밀화학 기반의 부품소재로 MS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④ 자회사 및 해외법인의 현황

웅진텍스타일 주식회사는 유니폼 소재는 내수시장이 주요 타겟으로 군복 및 사기업의 유니폼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류 소재는 해외 유수의 의류브랜드와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T WOONGJIN TEXTILES은 SPUN POLY를 이용해 판매비중은 디시다샤용 90%, 셔츠 및 기타용으로 10%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디시다샤는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판매되며 두바이는 물량위주의 저가전략, 사우디아라비아는 고가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천진웅진CSM은 가정용 필터와 산업용 필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필터는 주로 정수기업체를 위주로, 산업용 필터는 정부주관 공공시설 수처리 설비와 산업공장의 수요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천진웅진CSM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가정용은 30%, 산업용은 8%의 점유율로 추정됩니다.

웅진케미칼상해무역법인은 화섬 차별화 제품과, 광학소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계선진업체들과 중국 현지 기업과 중국현지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향후 메타아라미드 시장 신규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웅진케미칼 미국법인은 가정용과 산업용 필터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출 초기 단계이나, 매년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출확대를 위해서 산업용 시장 신규물량과 교체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1)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비율)
------	------	-----	-------	-------	---------

섬유 부문	제 품	복지원료 외	복지원료 외	ESLON	441,900
비섬유 부문	제 품	필터 외	역삼투압분리막외	CSM	82,097
합 계	제 품	-	-	-	524,087

※ 매출액은 연결기준임

2)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품 목		단 위	제42기 상반기	제41기	제40기
원 면	내 수	₩/KG	2,468	2,447	2,107
	수 출	\$/KG	2.0	1.8	1.6
원 사	내 수	₩/KG	2,776	2,785	2,606
	수 출	\$/KG	3.0	3.1	2.4
필 터	내 수	₩/개	465,905	484,834	464,007
	수 출	\$/개	317.2	329.8	342

주) 산출기준: 각 품목마다 질적차이로 인해 가격이 다양하여 매출비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선정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함.

자회사/해외법인	품목	단위	제42기 2분기	제41기
웅진텍스타일	복지대폭	(\$/M)	6.7	6.5
PT웅진	가공지	(\$/YD)	1.32	1.370
천진웅진CSM	가정용	(¥/EA)	52.8	53.9
미국법인	8인치	(\$/EA)	400	390

주) 매출비중이 큰 제품의 평균값

라.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단위 : 천M, 천EA, 톤)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42기 상반기	제41기	제40기
원면	PSF	구미1공장	94,480	193,487	194,052
원사	P F	구미1공장	26,857	63,709	60,794
필터	필터	구미2공장	6,266	12,041	9,599
소재	소재	안성공장	13,990	27,979	27,980

(단위 : 천YD, 천M, EA)

해외법인	품 목	제42기 상반기	제41기
------	-----	----------	------

웅진텍스타일	복지	7,200	33,760
PT웅진	가공지 외	31,000	62,000
천진웅진CSM	필터	633,600	1,267,200
미국법인	필터	461,160	2,015,254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 표준생산능력

② 산출방법 : 일일생산능력 * 작업일수

ㄱ. 공정별 생산능력

A. 구미1공장

○ 중 합 : 965.8톤/일 * 165.64 (작업일수) = 159,980톤

○ 제 면 : 537.3톤/일 * 175.7(작업일수) = 94,408톤

○ 제 사 : 176.6톤/일 * 152(작업일수) = 26,857톤

B. 구미2공장

○ 필 터 : 34.62천EA/일 * 181(작업일수) = 6,266천EA

C. 안성공장

○ 소 재 : 77.7톤/일 * 181(작업일수) = 13,990톤

D. 자회사 및 해외법인

○ 웅진텍스타일 : 40천M/일 * 180(작업일수) = 7,200천M

○ PT웅진 : 169.9천YD/일 * 180(작업일수) = 31,000천YD

○ 천진웅진 : 3,472EA/일 * 180(작업일수) = 634천EA

○ 미국법인 : 61.35EA/일 * 180(작업일수) = 461천EA

ㄴ. 품종별 생산능력

A. 복 지 : 최종공정인 가공공정과 일치함.

B. P S F : 제면공정과 일치함

C. P F : 제사공정과 일치함

D. 필 터 : 필터공정과 일치함

* 안성공장의 경우 13년 1분기부터는 현재 생산중인 제품의 CAPA 기준으로 산정함.

3) 생산실적

(단위 : 천M, 천EA, 톤)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42기 상반기	제41기	제40기
원면	PSF	구미1공장	95,451	194,042	185,687
원사	P F	구미1공장	24,039	51,313	57,690
필터	필터	구미2공장	4,450	7,478	7,933
소재	소재	안성공장	6,822	14,082	15,211

(단위 : 천YD, EA)

해외법인	품 목	제42기 상반기	제41기
------	-----	----------	------

웅진텍스타일	복지	4,861	19,581
PT웅진	가공지 외	27,226	54,341
천진웅진CSM	가정용 필터	566,073	1,036,839
미국법인	필터	318,479	563,651

4)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단위 : Hr, %)

사업소(사업부문)	연간가동가능시간	연간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구미1공장(PSF)	181일*24Hr= 4,344	4,253	97.90
구미1공장(PF)	181일*24Hr= 4,344	3,267	75.20
구미2공장(필터)	181일*24Hr= 4,344	3,085	71.02
안성공장(소재)	181일*24Hr= 4,344	2,118	48.76
합 계	17,376	12,723	73.22

자회사/해외법인	연간가동가능시간	연간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웅진텍스타일	181일*24Hr= 4,344	2,932	67.50
PT웅진	181일*24Hr= 4,344	3,815	87.82
천진웅진CSM	181일*24Hr= 4,344	3,881	89.34
미국법인	181일*24Hr= 4,344	3,002	69.10

5) 생산설비의 현황 등

① 생산설비 등

[자산항목 : 유형자산]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중인유형자산	미착유형자산	기타유형자산	합 계
취득원가	69,376,878	130,402,442	30,256,222	640,834,959	4,318,414	27,355,073	100,594,079	48,035	253,000	1,003,439,102
감가상각누계액	0	-43,921,537	-10,831,576	-	-3,513,851	-20,178,611	0	0	-253,000	-554,410,124
손상차손누계액	0	-650,577	0	-24,379,555	-14	-11,908	0	0	0	-25,042,054
정부보조금	0	0	0	-241,053	0	-409,412	0	0	0	-650,465
장부가액	69,376,878	85,830,328	19,424,646	140,502,802	804,549	6,755,142	100,594,079	48,035	0	423,336,459

② 향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 부문	계획 명칭	예상투자총액		연도별 투자실적			투자효과	비고

		자산형태	제42기 예상	제42기 반기	제41기	제40기		
전 체	신/증설	-	355	151	974	504	-	-
	소 계		355	151	974	504	-	-
	보완	-	176	47	181	126	-	-
	소 계		176	47	181	126	-	-
합 계			531	198	1,155	630	-	-

마. 매출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42기 반기	제41기	제40기
석유 부문	제품	PSF,PF외	수 출	312,558	631,273	675,896
			내 수	129,342	308,739	266,237
			합 계	441,900	940,012	942,133
비석유 부문	제품	필터 외	수 출	49,718	95,017	99,580
			내 수	33,189	70,760	124,483
			합 계	82,907	165,777	224,063
합 계				524,807	1,105,789	1,166,196

※ 연결기준 매출액

<웅진에너지 주식회사>

가. 산업의 특성, 성장성 및 경기변동의 특성

1) 산업의 특성

① 세계 에너지 동향 및 전망

현대 인류문명은 지난 200년간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에너지 환경을 살펴 볼 때, 인류가 화석연료로부터 지속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고 동시에 잠재적으로 초래될 환경 및 사회·정치적 파급효과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21세기의 세계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 세계 에너지 가채 매장량 및 가채 년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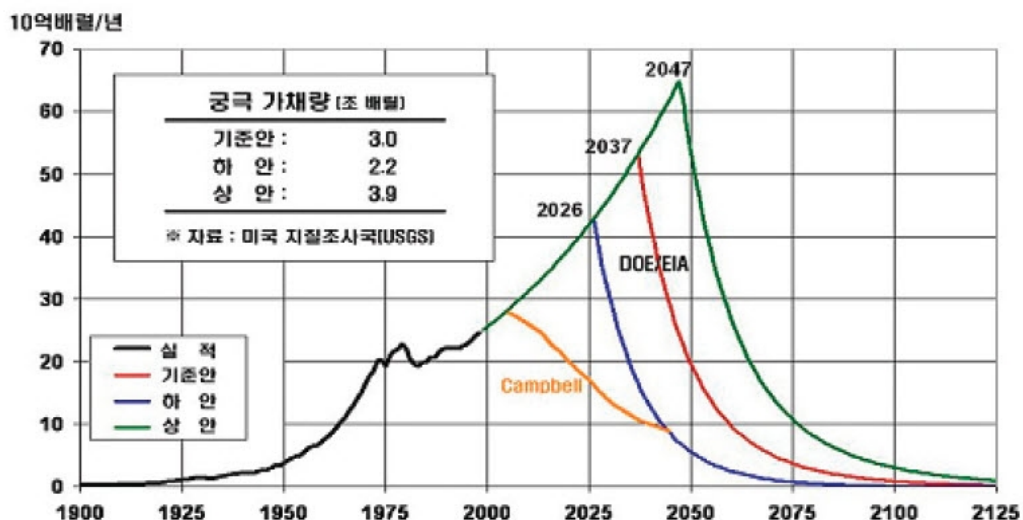
구 분	석 유	석 탄	천연가스
가채 매장 확인량	16,526억bbl	8,609억톤	208조 m³
연간 생산량	304.9억bbl	76.9억톤	3.3조 m³
가 채 년 수	54.2년	112년	63.6년

주)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2. 6)
2012-신재생 에너지 백서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과거 수차례의 에너지 위기는 경제불안 및 OPEC 가격단합 등의 원인이 해소됨에 따라 과거 시세로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최근 과거의 에너지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중국, 인도 등의 석유 수요 증가,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과 함께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에너지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100시대 도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이미 2008년 2월에 실현되었고, 09년 7월에는 국제유가(WTI油 현물 기준)가 145.31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석유시장은 심각한 공급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고, OPEC의 자원통제 강화 및 고유가 정책,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지속적인 유가 하락의 가능성은 어려울 전망이며 언제든지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석유 시장에서 잉여공급 능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최근에는 '석유 피크(peak)' 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석유피크'논쟁이란, 국제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석유 생산량이 더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이냐에 대한 의견 다툼을 말합니다. 석유 수급 구조상 석유가 완전히 고갈되어 생산되지 않는 시점보다는 세계 석유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점이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석유 생산량이 피크 시점을 달성한 이후에는 석유 부족 현상이 만성화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에너지부(DOE : Department of Energy)에서는 현재의 기술수준을 감안한다면 2050년까지는 석유 위기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2020년 내로 석유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다만 피크 시기는 매장량 확인 및 기술개발 속도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이 채택되었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러시아의 비준(2004년 11월)으로 2005년 2월 16일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국제적

환경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2012년까지의 1차 감축 이행기간 이후의 기본방향과 일정 등을 담은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감축공약 및 정량적인 목표설정을 해야만 하고, 개도국들도 측정, 보고 및 검증 가능한 방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적정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38개의 선진국에서 본격적인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본격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대체, 즉 청정연료인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② 태양광 산업의 특성

태양광 발전비용은 지난 3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이는 19.3%의 학습비율(용량이 2배가 될 때마다 가격은 19.3%하락)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조공정의 확대 및 개발 노력에 의한 실적과 가격 개선 전망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태양광발전은 기존 발전 방법대비 원가가 3~10배에 달하는데, 이는 에너지의 밀도가 낮아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폴리실리콘, 웨이퍼 등 고가의 원재료가 모듈 비용의 5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독일, 유럽 일부 국가 중심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국가들 중심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며, 실제 독일, 일본 등에서는 초기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이후 정부지원을 줄이거나 폐지하여도 산업 자체의 발전속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종합산업으로써 다양한 연관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주원료인 실리콘과 반도체산업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화학 산업, 이러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정밀기기 및 반도체 산업, 태양광 모듈 제조와 관련된 PVF나 폴리에스테르아크릴 등의 화학 산업 및 제조기기, 자동화기기 등 기계장치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전기전자 산업, 건축산업, 대형토목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과도 밀접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에너지는 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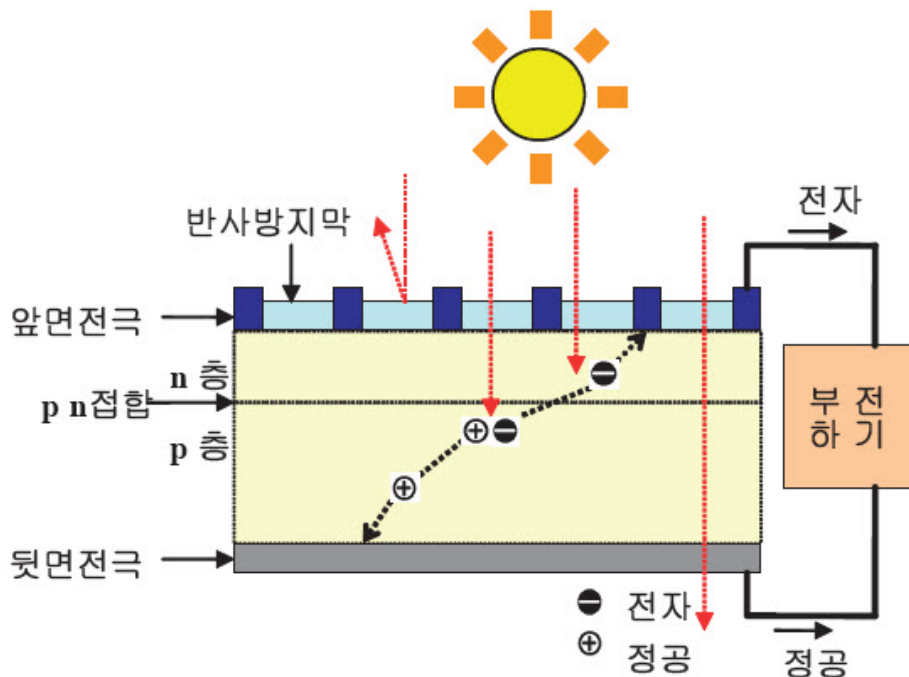
- i) 화력,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 소음, 환경파괴 등의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는 에너지원입니다. 반면, 석탄 화력 발전의 경우 1kwh당 약 860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석탄 kWh당 860g 석유 kWh당 689g 가스 kWh당 460g 태양광 kWh당 30g 풍력 kWh당 11g 원자력 kWh당 9g)
- ii) 태양광은 석유, 천연가스처럼 수입에 의존할 필요없이 자체 조달이 가능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iii) 태양광발전은 막대한 부존량을 바탕으로 적용영역의 확대와 기술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태양에너지의 이용가능량은 풍력과 바이오매스가 200배, 20배 수준인 것에 반해, 전 세계 연간 에너지 소요량의 2,850배에 달합니다.
- iv) 또한, 입지조건이 까다로운 풍력, 해수력발전과 달리 지역 및 규모(가정용 또는 대형 발전소)에 관계 없이 설치 가능하며 유지비용도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v) 태양광 발전은 향후 기술혁신에 따른 원가절감 및 효율성 제고의 가능성도 풍부하여, 일본의 경우 태양광발전 단가가 10년간 1/3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1994년 140엔/kwh, 2004년 48엔/kwh)

이러한 장점과 막대한 부존량을 바탕으로 적용영역의 확대 가능성 및 기술혁신에 따른 효율성 제고 가능성 등은 매우 크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듈 이전의 공정(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전지)은 수출 산업화가 가능한 영역으로서 해수력, 수력, 풍력 등 타 에너지가 지형적 제약으로 수출 산업화가 힘든것에 비해 차별화되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태양광 발전의 원리 및 구성요소

태양전지의 기본 구조 및 전기 생산과정을 실리콘 태양전지 단면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전지는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키고(P-N 접합) 앞 뒤 표면에 금속전극을 붙여 제작합니다. 빛이 반도체에서 흡수되면 전자와 정공 쌍이 생성되고, 전자와 정공은 P-N접합부에 존재하는 자기장의 영향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도선으로 연결된 외부 회로에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i) 가급적 많은 빛이 반도체 내부에서 흡수하도록 하고, (ii) 빛에 의해 생성된 전자와 정공 쌍이 소멸되지 않고 외부 회로까지 전달되도록 하며 (iii)P-N접합부에 큰 전기장이 생기도록 소재 및 공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전체 태양광 시스템은 (i) 빛을 전기로 전환시켜 주는 부분과 (ii) 생산된 전기를 수요에 맞도록 교류로 변환시키고 계통에 연결시켜 주는 부분 (PCS/인버터)로 구성됩니다.

태양광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핵심 부품은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자이며,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태양전지의 최소단위를 셀이라고 하며, 보통 셀 1개로부터 나오는 전압이 약 0.5V~0.6V로 매우 작으므로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수 V에서 수백 V 이상의 전압을 얻도록 패널 형태로 제작한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듈을 여러 개로 이어서 용도에 맞게 설치한 것을 어레이라고 합니다.

PCS/인버터 부분은 태양전지 어레이로부터 발생된 직류전기를 상용주파수 · 전압의 교류로 변환하여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시스템의 직류, 교류측의 전기적인 감시 · 보호를 하는 등 태양전지 모듈을 제외한 주변장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태양광 시스템 설계 및 설치의 경우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경사각 및 방위각을 위한 설계, 계통연계를 위한 설계, 사후관리를 위한 설계 등 시스템 효율의 최적화를 위한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태양광시스템의 평균 설치비의 내용을 보면, 전체 비용 중 소재가 차지하는 부분(원자재, 태양전지, 모듈 등)이 전체의 약 50%에 이릅니다.

3) 태양전지의 종류

현재 실용화 되어 전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로 결정질 실리콘(Si)태양전지입니다.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은 반도체 분야의 기술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으며 기술의 신뢰성이 높습니다. 현재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전체 태양전지시장의 90%정도를 차지하며 저가 · 고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는 물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될 수 있으며, 현재 당사가 제작하는 태양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실리콘-Bulk-단결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①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결정질 실리콘의 이론적 최대 효율은 약 27%이며, 단결정 또는 다결정 웨이퍼를 사용하고 있으며 양산용 셀의 효율은 14%~19%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용화 기술 개발에 대한투자가 전세계적으로 붐을 이루면서 일부 양산용 태양전지의 효율이 22%를 상회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② 박막 태양전지(Thin Film Solar Ce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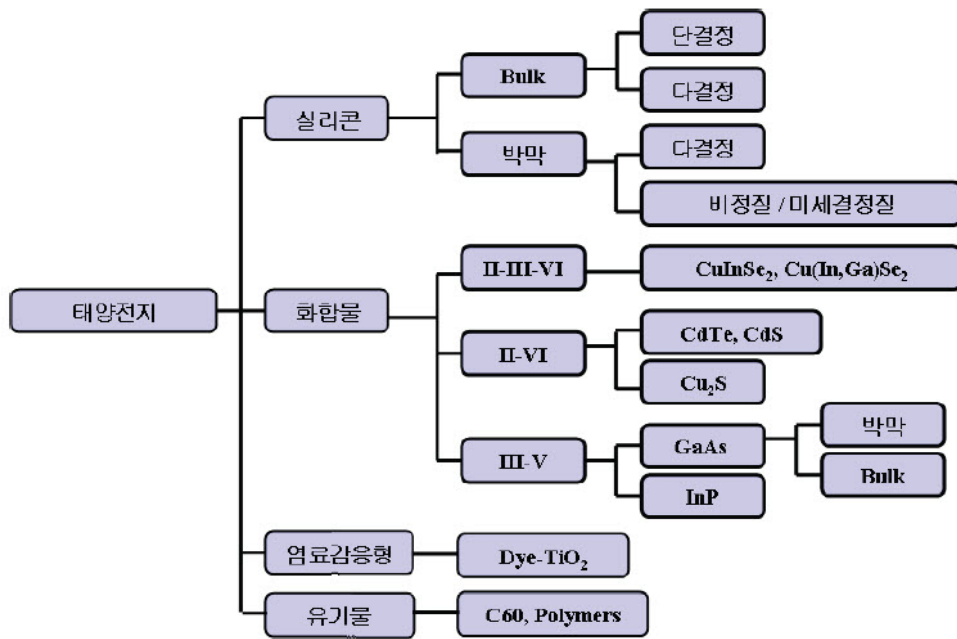
박막 태양전지는 유리, 스테인리스 강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저가의 기판에 반도체 막을 수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코팅하여 제작합니다. 결정질 실리콘 전지에 비해 소재를 적게 사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대체로 효율이 낮고 모듈의 수명에 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③ 유기계 태양전지(Organic Solar Cells)

유기계 태양전지는 유기소재를 광활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하는 신형 태양전지로서 염료감응형과 유기분자형 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④ 집광형 태양전지(Concentrator Solar Cells)

집광형 시스템은 프레넬 렌즈나 반사경을 사용하여 넓은 면적의 빛을 태양전지에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면적에 대하여 태양전지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집광도를 높일 경우 산란광을 활용하기 어렵고 추적 장치를 통해 항상 태양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냉각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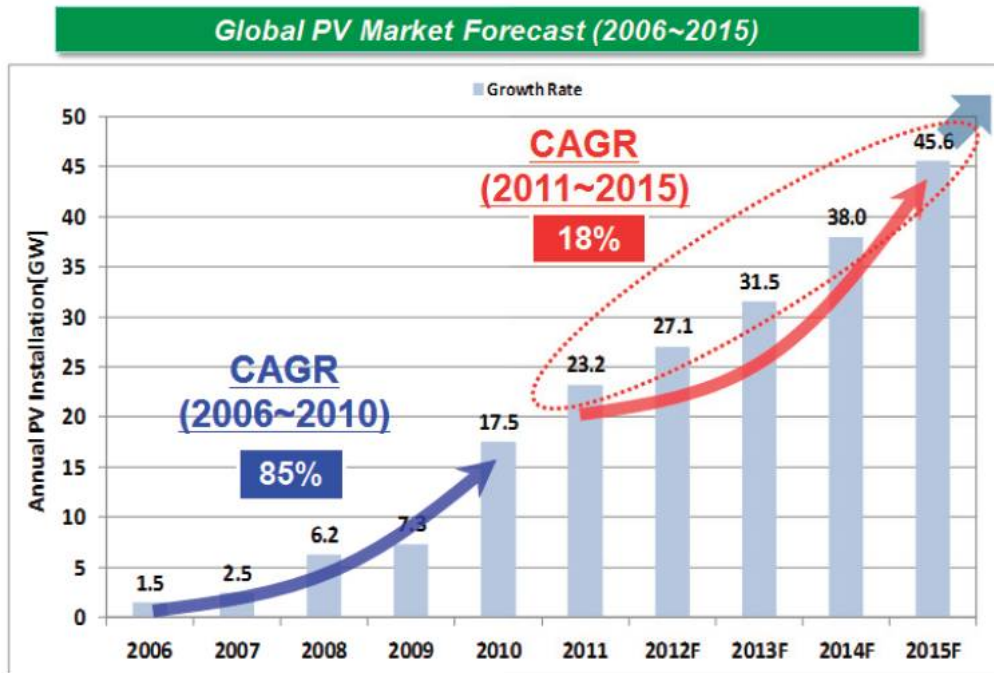


4) 태양광산업의 성장성

지구 온난화 및 수년간 계속된 고유가 행진으로 인하여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이란 태양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의 특성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해 내는 발전 체제를 말합니다. 그동안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한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도 정부 지원하에 활발하게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세계 태양광 발전 설치 규모 추이 】

(단위 : GW)



[출처 : SNE Research, 2012. 6.]

지난 10년간 태양광 발전 설치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CAGR) 45.2%로서 높은 성장성을 시현하였습니다. 특히 독일,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빠른 발전으로 그 성장세를 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태양광 시장은 공급과잉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격한 제품 가격하락이 진행되었고, 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세계 태양광 산업은 격변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양전지의 가격하락이 다소 진정되긴했지만 전체 시장규모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업체간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 등의 신흥시장의 성장이 예상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2년 대비 올해 태양광 시장은 약17%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유럽의 Anti-dumping 이슈는 대만, 한국, 일본 등의 업체에게 호재로 작용하여 향후 가격 상승 및 시장 점유율의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경기변동의 특성

화력, 수력, 원자력 등 기존의 발전형태에 비해 초기투입비용이 크고 발전단가가 높은 특징을 가지는 태양광시장은 다른 요인 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제도적 변화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지원정책 및 제도에는, 각 국가별 운영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 할당제도(RPS)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1991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년말 누적 발전용량 기준 세계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스페인 또한 2009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일부 축소함으로 인해, 태양광 시장이 일부 위축되었으나, 이는 원가절감 및 신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모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전력소비국인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산업 진흥 계획(아폴로 프로젝트)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도 태양광 설치 목표량을 2015년까지 21GW에서 40GW까지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태양광 보조금으로 130억위안(약22조원)을 책정함에 따라 기존의 태양광 시장은 유럽에서 미국과 중국 등으로 이동하면서 태양광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태양전지 가격의 하락 및 안정화는 시장성장 촉진의 모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폴리실리콘 제조원가 하락, 웨이퍼 두께의 감소, 태양광 광변효율향상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그리드 패러티" 달성을 함과 동시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나. 태양광 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전망

1) 태양광산업의 트렌드 변화

① 경쟁요소의 변화

태양광산업은 금융위기 이후인 '09년을 변곡점으로 Seller's Market에서 Buyer's Market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습니다. 이는 과거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원재료(Poly) 확보의 중요성 반감, 기술발전에 따른 진입장벽의 완화, 시장진입자 증가에 따른 공급확대 등이 주요원인입니다. 향후에는 원재료 확보보다 수요 창출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입니다. 원재료 확보 용이,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따라 원가경쟁력, 품질경쟁력 등이 핵심경쟁력으로대두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설비증설 경쟁, 수직계열화, 기술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② 시장차별화 진행

Supply chain별로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으나 고순도, 고효율 제품의 경우 오히려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도기업들은 경영효율성을 통한 원가절감, 기술혁신을 통한 고순도, 고효율 제품 생산으로 시장지배력이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③ 중국 태양광산업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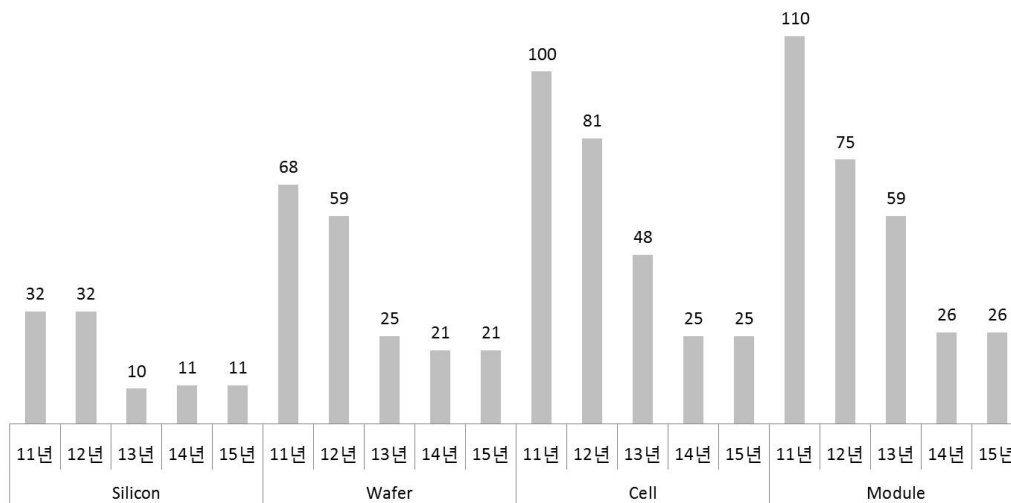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설비투자로 세계 태양전지 및 모듈시장을 과점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태양전지 및 모듈시장의 약50%(생산량 기준)를 점유하고 있으며, 11년 태양전지 및 모듈 세계 10위권내 업체(생산력 기준) 중 각각 7개 및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업체들은 태양전지 생산량의 거의 98%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따른 대규모 투자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세계최고의 원가경쟁력에 있습니다. 중국의 태양전지 모듈 가격은 한국·일본산의 70~90% 수준이며, 유럽산 모듈 가격의 65%선에 불과합니다. 태양전지 기술력에서도 세계최고수준 변환효율(19%에 근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태양광산업의 장미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중국 태양광기업들 또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침체, 더 엄격해진 은행차입금관리, 과도한 채무노출, 까다로워진 신규대출, 낮아진 지원제도, 관료주의, 무역분쟁 등은 향후 중국의 태양광 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산업재편 가속화

태양광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격한 제품 가격하락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기술경쟁력 /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대적으로 많은 down-stream 업체들의 큰 산업재편이 예상됩니다.



(출처: Solar Annual 2012, Photon Consulting)

⑤ 가격 반등 진행

업체간 경쟁으로 인한 과잉공급,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수요의 감소, 중국의 저가물량공세등으로 인하여 태양광 각 value chain별 43~49%의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폴리의 경우 11년초 Spot 물량 가격이 KG당 80불 수준에서 13년 1분기말 18불 수준으로, 8"Wafer의 경우 3.82불에서 1.22불수준으로, Cell의 경우 W(와트)당 1.15불에서 0.41불로 각각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유럽국가 중심의 태양광 산업 지원정책으로 인한 수요 증가 및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덤핑 이슈 반영으로 시장 내 가격하락을 주도했던 공급과잉에 대한 이슈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2012년말까지 이어져오던 가격 폭락 추세가 진정되고 태양광 제품 가격이 2013년 초부터 반등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글로벌 태양광산업 전망

① 성장 전망

세계 태양광산업은 성장률에 대해 최근 유럽재정위기 및 미국의 금융위기등으로 성장세로의 둔화를 예상하는 등, 시나리오별로 성장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추후 2014년 이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유럽 등 주요시장의 성장 가속화와 중국, 미국 등 신흥 시장 내수확대로 15년에 최대 46.0GW(신규 설치량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② 주요국별 전망

세계태양광 시장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이 여전히 중심축이기는 하나, 향후 미국및 중국, 인도시장도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미국은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입하여 500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며,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투자금액의 30%의세금공제 및 주택용 태양전지 패널의 설치비용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08~13년 중 연평균 67.4%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태양광산업도 '09년~'14년 중 연평균 73.3%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전력 설비가 필요해 이를 상당부분 신재생 에너지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내 태양광산업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설비 규모는 '09년 160MW에 불과하였으나, '11년 2~3GW로 예상되며, '20년에 20GW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도의 경우 '08년 36MW에 불과한 보급량을 '20년까지 20GW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③ 2020년에는 주요 전력원으로 부상 전망

태양광산업의 소재(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및 부품(태양전지, 모듈)가격은 기술개발, 설비경쟁 심화, 공정상의 원가개선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리드패러티에 도달하면 태양광산업이 가지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관련 산업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화학, 건설업이 연관되어 있는 종합산업으로 산업의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수요는 '20년 신규 102GW, 누적 509GW를 형성해 전세계 전력 생산의 약 9%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전력생산 중 태양광 비중]

(단위: %)

구분	07	08	09	10	11F	12F	13F	14F	15F	20F
전세계	0.2	0.3	0.4	0.8	1.2	1.7	2.3	2.8	3.5	9.3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Seri 보고서 인용]

다. 국내외 시장여건

1) 경쟁상황

① 경쟁 요소

태양광 Value Chain은 PolySilicon → Ingot → Wafer → Cell (태양전지) → Module → System(태양광발전소)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 투자비용 및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해, 단기적 접근성 및 수익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러한 태양광 Value Chain중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발전소는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며 대기업이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잉곳/웨이퍼 제조의 경우 중견기업 위주의 시장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기업의 신규진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일부 업체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자금 기반이 취약한 업체들의 구조조정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자본, 원가 경쟁력 그리고 판매 시장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시장 퇴출의 작업이 지속될 것이며 향후 수 년 내 업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이상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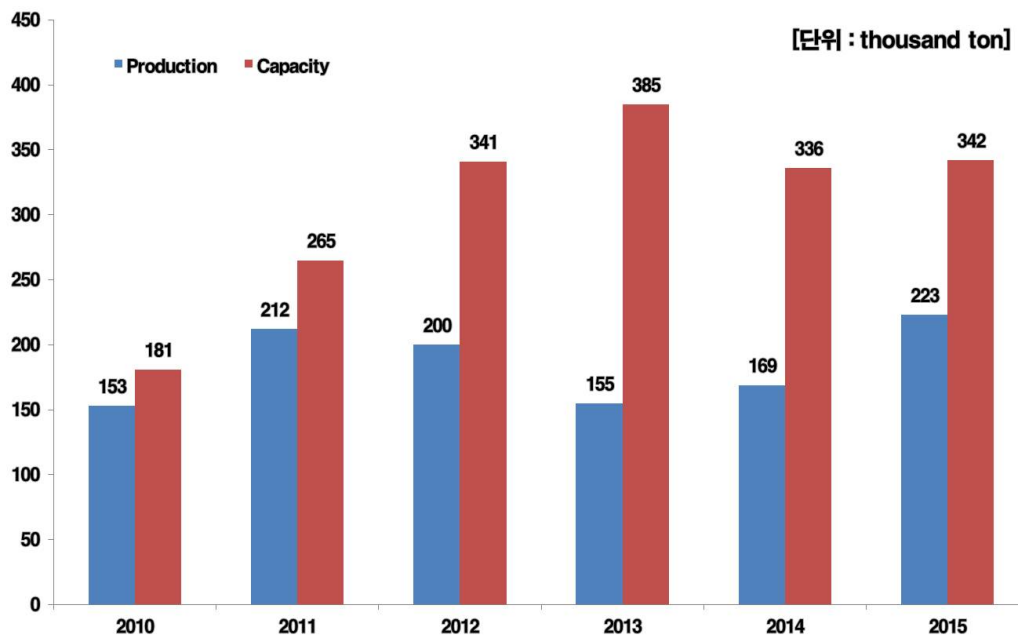


국내주요업체	OCI	웅진에너지,실트론 (LG),빅솔론, 오성 엘에스티 등	현대중공업, 신성홀딩스,KPE, LG전자	현대중공업,서울마린, 심포니에너지,이건창호시스템	현대중공업,LS산전, 에스에너지
해외주요업체	Hemlock, Wacker, Tokuyama,GCL 등	GCL, REC Sharp, LDK, Trina, Yingli 등	SunPower, Suntech, JA Solar Q-cells, First Solar, SolarWorld, Suntech, 등		
진입장벽	높음	높음	중간~높음		낮음
시장형태	소수과점	과점	다수 경쟁치열		

② 폴리실리콘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은 2000년 초까지 공급과잉 상태가 유지되었으나, 2003년 이후 독일, 스페인, 일본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의 수급은 매우 타이트하게 유지되었으며, 영업 이익율이 40%이상을 상회하는 등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도 매우 높은 수익성을 향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 및 고수익으로 폴리실리콘 시장내 기존 업체의 증설 및 신규 진입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발생 및 이에 따른 실물경기침체 등으로 수요성장은 둔화됨에 따라, 2009년 들어서는 폴리실리콘 공급과잉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Polysilicon Capacity 대비 생산 예상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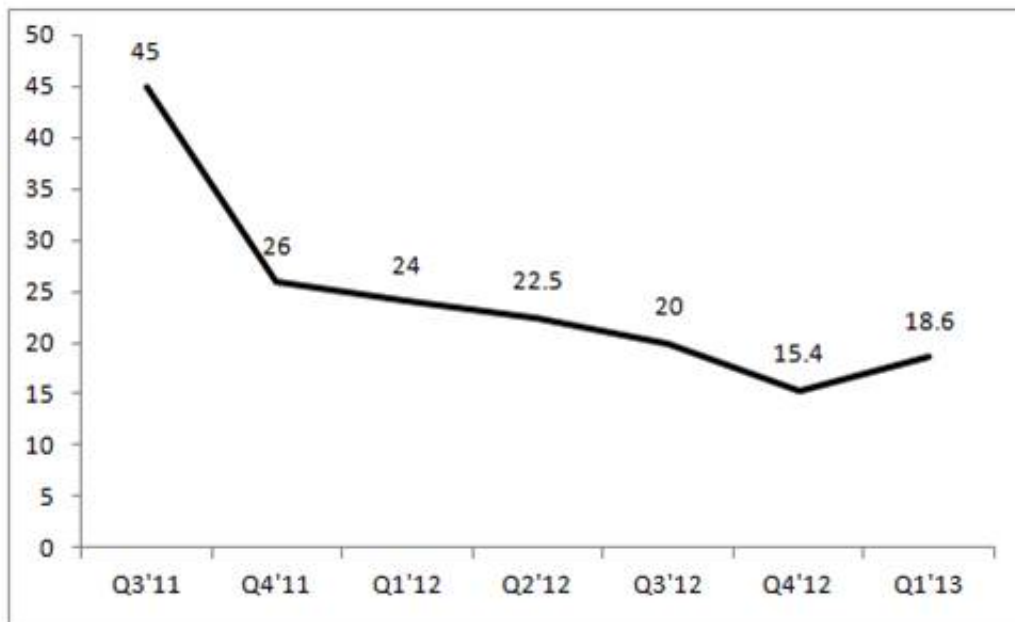


출처 : Solar Annual 2012 (Photon Consulting)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최근 폴리실리콘시장은 기존의 생산자 우위 구조에서 수요자우위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폴리실리콘 업체의 수익성 역시 2005~2008년과 같은 호황기에 비해 상당부분 하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였던 폴리실리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공급계약은 2008년 Kg당 80달러 수준에서 2009년 1분기에는 60달러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스팟가격은 2008년 상반기 Kg당 400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급락하기 시작, 50달러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11년 2분기 이후 유럽의 태양광설치 보조금 삭감 및 재정위기로 수요는 줄어드는 가운데 공급능력은 계속 늘고 있어 2012년 말에는 Kg당 15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시장내 구조조정을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산업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급과잉 이슈는 점점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러한 산업내 공급과잉 이슈가 완화됨에 따라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래 그림과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폴리실리콘 가격변동 추이 】

(단위: \$/Kg)



출처 : PV insight data 인용

그러나, 아직 폴리실리콘 가격은 과거 대비 급격히 하락을 한 상태이며 이러한 폴리실리콘가격 하락이 산업에 꼭 부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화석연료발전대비 태양광발전 원가가 5배이상 높은 상태에서, 폴리실리콘가격 하락 및 이에 따른 전체적인 발전비용 하락은 현재 폴리실리콘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익성을 타 밸류체인에 이전시키는 동시에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이 상승되어 태양광 산업 전체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기때문입니다.

국내 폴리실리콘시장도 태양광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성장 및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등장 등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CI가 2008년 3월 최초 상업생산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국내수요량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였지만, 현재는 KCC 및 KAM, 한국실리콘 등 국내업체의 연이은 증설로 폴리실리콘 수입비중은 대폭 하락하였으며, 현재 국내 업체들의 생산량이 전체 수요를 상회하여 폴리실리콘업체간 경쟁심화 및 경영 상황 악화로 산업재편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잉곳/웨이퍼

태양광산업의 높은 성장에 비례하여 후방 산업인 잉곳/웨이퍼 산업 또한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태양광산업협회의 2011년 6월말 보고에 따르면, 세계시장에서 웨이퍼의 생산량은 2007년 3.2GW에서 2011년에는 26.4GW 로 연평균 성장률은 52.5% 에 달한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태양광용 웨이퍼 세계시장 추이 및 전망 】

(단위 : G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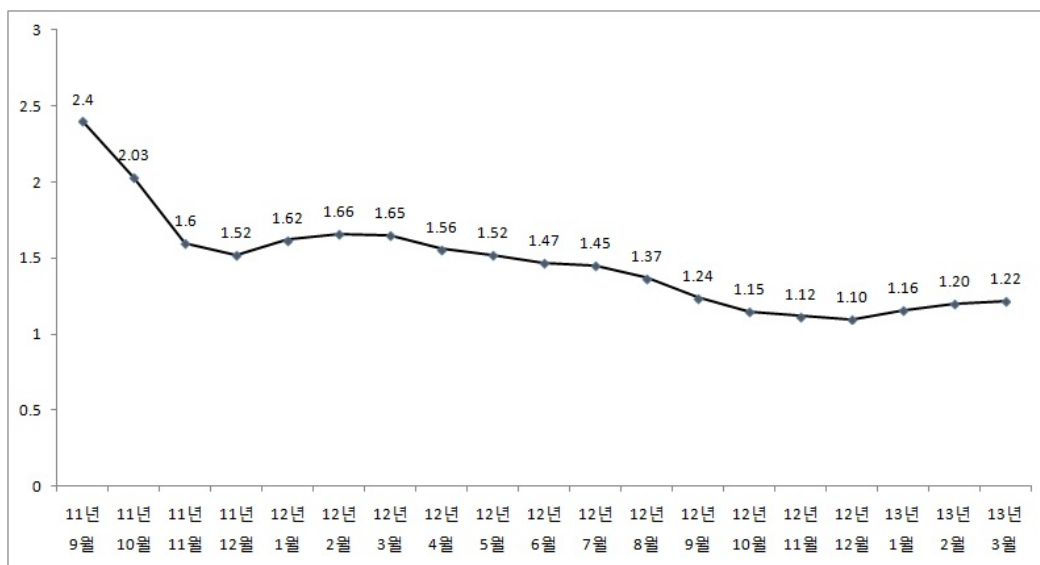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성장률 (2007년~2013년)
생산량	3.2	11.0	16.7	20.2	26.4	34.2	42.7	44.8%

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자료 인용(2011.06.24)

국내 태양광용 잉곳/웨이퍼 시장에는 현재 웅진에너지, LG실트론, 오성엘에스티, 빅솔론, 한솔테크닉스, SKC솔믹스 등이 진입한 상태입니다. 전체 웨이퍼시장은 2007년 3GW에서 2012년 34GW로 11배 이상 확대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이룩하였으나, 태양광 Value chain 내 전 제품에 대해 공급과잉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격한 가격하락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공급과잉 문제가 산업내 구조조정 진행으로 인하여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웨이퍼 가격 또한 2013년 초부터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웨이퍼 가격변동 추이 】

(단위: \$/pcs)



출처 : PV insight data 인용

태양광 산업 내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제품의 원가 및 기술이 핵심경쟁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선진사의 경우 기술적 성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1998년 330 마이크로미터(μm)였던 웨이퍼 두께도 꾸준히 얇아져, 현재는 200 마이크로미터(μm)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잉곳 / 웨이퍼 내에서의 단결정(mono)와 다결정(multi)에 대한 성장성에 있어서 12년 이후 Polysilicon가격이 \$20/kg 이하 수준으로 급락한 현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결정의 빠른성장세가 예상됩니다.

3) 셀/모듈

세계 태양전지 설치량은 1999년 125MW에서 2011년 24~26GW로 급성장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45%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결정질 태양전지 생산업체 수도 2003년 70여개에서 2009년에는 160여개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2009년 사이에 대거 신규진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세계 태양전지 셀 / 모듈 생산능력은 각각 58GW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 상위 10개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8년 52.3%에서 2010년 64.0%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공격적인 생산 CAPA 확장에 따름입니다.

현재 국내 태양전지시장에서 업체현황을 살펴보면, 셀 분야의 경우 한화케미칼,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및 M&A를 통한 시장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태양광 시장 침체로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셀/모듈 업체 또한 산업재편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시장 점유율

(가) 세계 잉곳/웨이퍼 생산량/출하량 추이

10~11년도 진입업체수의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재정위기등으로 인한 신규수요감소와 가동률 조정등으로 향후 1~2년간은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 및 미국, 일본 등 신흥 태양광 시장의 강력한 정부정책에 따라 향후에도 성장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태양광 설치 유형이 지붕형(roof-top) 수요가 지배적임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시장 Needs 또한 큰 폭의 증가 추세이기에 잉곳 / 웨이퍼의 생산 및 출하는 향후에도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시장점유율

최근 1개년도 내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객관적인 수치로 산정할 수 없으나, 당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웨이퍼 생산 능력은 약 3.3GW 이며 전세계 웨이퍼 생산 규모는 약 40GW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내 단결정 시장은 약 2GW, 전세계 단결정 시장 규모는 13GW로 시장 점유율은 각각 50%, 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태양광산업 거래관행상 태양전지나 모듈업체들이 제품을 태양광 발전소에 판매할 때 15~20년간의 효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태양광 잉곳 및 웨이퍼의 품질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당사는 경쟁방식인 다결정 폴리실리콘 제품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Aging에 따른 효율성 저하 속도가 낮은 양질의 단결정 제품만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같은 단결정 잉곳 성장 공법으로 2007년 양산 첫해, 28억 매출, 2008년 677억 매출, 2009년 1,189억, 2010년 1,603억원, 2011년 3,134억원, 2012년 1,430억원(공급과잉에 따른 평가 하락 요인)의 매출로 급속하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당사가 이 같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요인은 자체 제작한 장비와 기술력으로 타 업체에 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낮은 단가에 잉곳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잉곳/웨이퍼 부분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생산원가절감을 통하여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미국의 SunPower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2010년 초부터 신규 고객 Needs에 부응하고자 현재 국내·외로 태양광 선도기업에 잉곳 및 웨이퍼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결정의 N-Type과 Low Oi 등 고부가 가치 제품군의 다변화 및 앞선 기술력으로 수익성을 제고해 신속하고 유연한시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2. 주요제품

가. 주요 제품등의 현황 및 매출금액

당사의 주요 제품은 잉곳 및 웨이퍼입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잉곳은 태양전지 생산에 사용되는 N-type과 P-type 잉곳으로서 타사 대비잉곳의 품질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장비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2011년말 1GW Capacity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단결정기준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Capacity입니다. 또한 P-type 잉곳 생산과 제품 크기의 다양화(150mm, 160mm,

165mm, 200mm)를통하여다양한 고객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2008년 웨이퍼 장비를 도입하여 웨이퍼 생산능력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웨이퍼의 생산 및 판매가 진행되었습니다. 2공장 준공과 더불어 Wafer 장비30대를 도입, 11년 말 설치완료하여, 500MW급 Capacity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Diamond-wire sawing 기술을 적용, 양산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의 기타매출은 잉곳의 생산과정 중에 발생하는 스크랩과 파우더등의 부산물로서 당사는 단결정의 고효율 태양전지용 잉곳을 사용하고 있어, 요구사양에 미달하는 부산물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와 달리 다결정업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타 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잉곳 가공중에 발생하는 파우더는 파우더 가공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주요제품의 매출금액 】

(단위 : 백만원)

매출 유형	제 품 명	2013년 반기 (제8기 반기)		2012년 (제7기)		2011년 (제6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제 품	잉곳	42,186	73.9%	65,070	45.5%	220,079	70.2%
	웨이퍼	13,001	22.8%	74,686	52.2%	86,506	27.6%
	기타	1,896	3.3%	3,220	2.3%	6,791	2.2%
매 출 총 계		57,083	100.0%	142,976	100.0%	313,376	100.00%

- 기준일: 2013.01.01~2013.06.30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및 가격변동원인

당사 주요 제품인 잉곳과 웨이퍼의 가격은 전세계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 증가에 반해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로 태양광 시장 전체의 수요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2011년 연초 대비 12년말 제품가격은 약 7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과잉에 대한 이슈는 산업 내 구조조정이 진행되가며 점차 해소되어가며 2012년도 말 기준 대비 2013년 1분기는 산업내 제품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소폭 반등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판매제품인 잉곳과 웨이퍼는 산업내 모듈 설치 수요 변동에 따라 판매 가격이변동되는 시장 환경이 가격변동의 주 원인입니다.

3. 주요 원재료

가. 가격 변동 추이

당사의 주요 원재료인 Poly Silicon의 시장내 Spot 가격은 최근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2011년 3분기 \$45/kg에서 2012년 말 \$15/kg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과잉 이슈가 점차 해소되며 폴리실리콘 가격이 \$18/kg 상승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당사는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위하여 독일의 Wacker 사와 PolySilicon에 대한 장기공급계약 체결하였으며, 기타 무역업체, 제조사 등을 통하여 폴리실리콘의 가격과 정보를 입수및 구매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매입처 및 매입금액

【 주요원부재료 매입현황 】

(단위 : 백만원)

원재료명	매입액 (제 8 기 반기)	주요매입처	특수관계여부	비고
PolySilicon	17,038	Wacker외	해당없음	장기 공급 계약, 주1)
Quartz Crucible	7,755	AQM 외	해당없음	주2)
Graphite	3,658	TCK 외	해당없음	주3)

주1) 당사의 주요 원재료인 Poly Silicon은 독일의 Wacker로부터 대부분 매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활한 원재료 수급을 위하여 독일의 Wacker사와 PolySilicon에 대한 장기공급계약 체결이 되어 있으며 기타무역업체, 제조사 등을 통하여 폴리실리콘의 가격과 정보를 입수 및 구매하고 있습니다. (SunEdison社 납품용은 SunEdison社로부터 매입)

주2) Quartz Crucible은 원재료인 Poly Silicon을 담아두어 Growing공정에 사용하는 부자재로서 최초 AQM을 통하여 구매하였으나, 복수공급처 발굴을 통해 JingYing社 등에서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3) Graphite는 실리콘 단결정의 공정장비의 부품으로 고순도 흑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요구 특성으로는 고온에서의 소성 변형, Si와의 비반응성, 비산화성, 고순도, SiC와의 열팽창계수가 유사할 것 등이 있습니다. Graphite내 전기를 흐르게 함으로써 Graphite에서 발생하는 고열로 고체의 Polysilicon을 액체로 만들어 줍니다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①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i) 생산능력

(단위 : MW)

품 목	2013년 (제8기 반기)	2012년(제7기)	2011년(제6기)
Ingot	250	1,000	1,000
Wafer	125	500	500

주) 당사의 연간 Ingot 및 Wafer 생산 Capacity는 각각 1GW, 500MW임.

ii)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산출기준 : 월별 장비 설치 일정 및 가동일수 등을 고려한 총 생산 가능량

㉡ 산출방법 :

- 생산능력 = (가동시간 X 장비수) / Cycle time X 단위 prime weight
- 가동시간 : 연간 생산가동일수는 1년 (365일), 24시간 기준입니다(단위 : hour).
- 장비수 : 잉곳성장로(Grower)의 대수를 의미합니다.
- Cycle time : Ingot 한 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단위 : hour)

- 단위 Prime weight : 한 Ingot 당 양품의 무게 (단위 : kg)

② 출하실적 및 가동률

i) 출하실적

(단위 : MW)

품 목	2013년 (제8기 반기)	2012년(제7기)	2011년(제6기)
Ingot	213	243.6	462
Wafer	39	190.2	106

- 기준: 2013.01.01~2013.06.30

주1) 위 표의 생산실적은 출하량(Shipment) 기준입니다.

ii) 가동률

(단위 : %)

품 목	2013년 (제8기 반기)	2012년(제7기)	2011년(제6기)
Ingot	59.1	43.50%	91.96%
Wafer	24.4%	65.3%	70%

- 기준: 2013.01.01~2013.06.30

주1) Wafer가동률은 MES산출 기준임.

㉠ 분기별 Grower 보유 현황

[단위: 대수]

구분	2013				2012				2011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분기말 Grower수	369	369	-	-	369	369	369	369	257	282	369	369

㉡ 분기별 수율 평균

(단위 : %)

구분	2013				2012				2011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평균 수율	91.8%	91.7%	-	-	97.6%	97.3%	96.4%	94.6%	97.1%	97.3%	97.2%	98.2%

주) 평균수율 = Prime Length / 기준길이

※ 기준길이 : 150,160,165mm(Diameter)기준으로 charge량 계산시 나오는 이론적 길이입니다.

㉔ 평균가동시간

한 번의 생산 LOT는 평균 2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당사의 생산 장비는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① 매출실적

2013. 6.30 현재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품 목		2013년 (제 8 기 반기)	2012년 (제 7 기)	2011년 (제 6 기)
제품	잉곳	수출	42,162	64,996	218,370
		내수	23	74	1,709
		합계	42,185	65,070	220,079
	웨이퍼	수출	4,410	25,361	34,945
		내수	8,592	49,325	51,561
		합계	13,002	74,686	86,506
기타		수출	934	977	6,791
		내수	962	2,243	—
		합계	1,896	3,220	6,791
합 계		수출	47,506	91,334	260,106
		내수	9,577	51,642	53,270
		합계	57,083	142,976	313,376

-기준: 2013.01.01~2013.06.30

주1) 기타매출은 제품 생산중에 발생하는 부산물과 태양광 시공 및 발전 매출입니다.

② 주요매출처

2013.06.30현재

(단위 : 천원)

매출처	매출액 (제8기 반기)	비율
SunEdison	32,390,950	68.10%
LG전자	8,554,655	17.98%
Suniva 外	6,620,316	13.92%

합계	47,565,921	100.0%
----	------------	--------

주) 2013년도 누적 매출액 기준

6) 수주상황

당사는 SunPower社와 2016년까지 단결정 잉곳에 대한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최초계약일 2006년 12월) 해당 계약에 따라 당사는 태양광 산업 환경과 SunPower社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공급 물량 및 가격 합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잉곳을납품하여 왔습니다. 2012년도 한 해동안 SunPower社에 약 648억원(순액기준)의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최근에는 SunPower社의 구매 전략 변경으로 웨이퍼 공급을 위한 계약 협의 및 Qual Test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2014년말까지 SunEdison社에 단결정 잉곳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태이며, 총 수량은 4,600MT~5,100MT될 전망이나, Tolling Biz.(임가공) 구조이기에 수주총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웅진식품주식회사>

1. 산업의 개요 및 특성 등

① 산업의 특성

음료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산업입니다.

하지만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과즙음료나 탄산음료는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소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 프리미엄 제품(과즙 및 생수 등)과 커피가 시장 성장을 견인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명 제품들의 국내출시 및 기능성제품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하여 2013년에도 음료산업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경쟁요소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 특성으로 인해, 유업계/제약업계 및 식품회사 등의 신규 진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간 차별성이 적어, 산업 내 가격 경쟁이 치열하며, 짧은 라이프사이클과 해외 유명제품의 수입/국내 출시 등으로 인해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④ 자원조달상의 특성

국외 조달의 비중이 약 40%로 환율과 국제 작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⑤ 영업개황

2013년 2분기 매출액은 약 514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1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전체 음료시장의 규모가 전년대비 축소되었을 뿐만아니라 그 중에서도 자사의 주력 품목인 과채주스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라도 파악됩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원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판매관리비용을 통제하여 전년동기 대비 약 330% 상승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분기에는 메밀, 코코넛 등의 새로운 소재를 컴셉으로 한 음료와 인기 캐릭터 코코몽을 앞세운 어린이 음료를 출시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건강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품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기존사업과 신사업, 해외사업과 국내 내수시장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공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식품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고객의 건강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및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통해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⑥ 시장의 특성

2012년 하반기부터 세계적 이상기후와 곡물투기 과열에 의해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음료 업계 전반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시장 내에서의 경쟁 심화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여 제품 LifeCycle은 더욱 짧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웰빙 트렌드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유기농 소재 주스, 식초, 프리미엄 생수 등 건강한 이미지의 제품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기능성을 강조한 기능성 음료의 성장도 주목됩니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한류 열풍도 해외수출 등 직/간접적으로 음료시장 전반에 긍정적 요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요제품 및 원재료 등

(1) 주요 제품 등의 매출 현황

(2013년 상반기 누적)

(단위:백만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구분	매출액	비율
음료 제조 판매	제 품 / 상 품	주스류	내수	49,277	49.3
			수출	2,921	2.9
		차류	내수	5,351	5.3
			수출	37	0.0
		곡물류	내수	19,713	19.7
			수출	918	0.9
		커피류	내수	6,289	6.3
			수출	73	0.1
		건식류	-	5,052	5.1
		생수	-	3,993	4.0
		기타	-	5,324	5.3
기타	기타	기타	-	1,059	1.1
합 계				100,007	100.0

(2)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원, Box당)

품 목	2013년 2분기	2012년 연간	2011년 연간
자연은 알로에	25,000	25,000	24,000
아침햇살	26,000	26,000	24,000
초록매실	26,000	26,000	24,000
하늘보리	14,000	14,000	13,000

* 산출기준

1. 대리점 판매가 기준 : 물품대금 + 부가세
2. Box당 기준(해당 품목의 주요 SKU)
 - 1) 자연은 알로에 1.5L Pet(1.5L × 12 본)
 - 2) 아침햇살 1.5L Pet(1.5L × 12 본)
 - 3) 초록매실 1.5L Pet(1.5L × 12 본)
 - 4) 하늘보리 500ml Pet(500ml × 20 본)

* 주요 가격변동 원인

- 1)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상승
- 2) 곡물 가격 등의 재료비 단가 인상
- 3) 공병 등 부자재 단가 인상

(3)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2013년 6월 30일 현재)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매입 유형	품목	용도	매입액	비율 (%)	비고
청량음료 생산판매	원재료	당류	음료 제조	4126	9.55	* 삼양사 외
		오렌지농축액		3040	7.03	* Biofresh 외
		포도농축액		1042	2.41	* VINOS Y BODEGAS 외
		기타		11861	27.44	
		원재료 소계		20069	46.43	
	부재료	PET병		3852	8.91	* 삼양사 등
		유리병		3841	8.89	* 테크팩솔루션
		캡		2500	5.78	* 삼화왕관
		기타		12964	29.99	* 공관 및 기타
		부재료 소계		23157	53.57	
합계				43226	100.00	

* 비율은 전체 매입금액 대비 Category별 구매 비중 임

(4)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원/kg)

품목		제38기 2분기	제37기	제36기
설탕	국내	851.14	1002.26	1,019.32
과당		810.50	731.97	672.33
공관		82.0	82.0	85.0

① 산출기준

가. 제38기 2분기 : 2013년 1월 ~ 2013년 6월 가중평균 가격

나. 제37기, 제36기 : 연간 가중평균 가격

② 주요 가격변동 원인

당류(kg) : 국제 원자재 수입가격 변경(원당/옥수수)으로 인한 단가 변경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 근거

① 생산능력

(단위: 천본, 백만원)

사업소	제 38기 반기	
	수량	금액
유구공장	49,130	40,557

②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 표준 생산능력

(단위: 천본)

라인	산출근거	라인별	비 고
검용라인(병)	400 BPM → 400×60×20.5×11×3×98%	31,822	180㎖ 24入 생산기준
검용라인(Pet)	250 BPM → 250×60×20.5×11×3×98%	19,889	340㎖ 20入 생산기준
Pet 라인	140 BPM → 140×60×20.5×22×3×98%	22,276	1.5ℓ 12入 생산기준
CAN 라인	565 BPM → 565×60×8.0×15×3×98%	23,920	180㎖ 30入 생산기준
장쾌삼 라인	25 BPM → 25×60×8.0×5×3×98%	353	600㎖ 2×5入 생산기준
합 계		98,260	

* 산출근거 : CAPA(BPM) × 60M(분) × 20.5HR(일) × 22일(월간) × 6개월
× 98%(기계효율) = 생산능력

③ 평균 가동시간

(단위: 분)

구 분	설비능력 (BPM)	생산능력(평균)			비 고
		일간	월간	연간	
유구공장	1,380	1,352	18,453	221,441	-

(2) 생산실적 및 가동률

① 생산실적

(단위: 천본, 백만원)

사업소	제38 기 반기		제37기		제36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유구공장	92,638	54,799	183,812	110,167	176,891	104,799

②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단위: 분)

사업소	분기 가동가능시간	분기 실제가동시간	평균 가동률
유구공장	382,320	316,584	83%

* 가동 가능시간

겸용라인(병), 겸용라인(PET) : 60分×20.5HR×11日×6개월

PET : 60分×20.5HR×22日×6개월

CAN : 60分×8.0HR×15日×6개월

장쾌삼 : 60分×8.0HR×5日×6개월

* 평균 가동률 = 가동 가능시간 대비 분기 실제 가동시간

* 실제 가동시간 : 순생산시간 적용

<웅진폴리실리콘주식회사>

웅진폴리실리콘주식회사는 태양광전지 제조의 기초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8년 7월 16일 설립되었으며, 당기말 현재 경상북도 상주시에 1단계 제조시설을 완공하였으나, 업황 불황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2월22일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웅진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본 회생 계획안에 따라 재무구조를 개선 및 회생채권 등의 변제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자산 등을 조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웅진폴리실리콘(주)의 매각작업도 추진 중에 있으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5기말	제 4기말	제 3기말
자산총계	317,888	737,515	644,419
[유동자산]	6,875	82,517	62,756
[비유동자산]	311,013	654,998	581,663
부채총계	671,582	556,316	427,422
[유동부채]	596,284	167,221	124,341
[비유동부채]	75,298	389,095	303,081

자본총계	-353,694	181,199	216,997
[자본금]	195,767	195,767	194,150
매출액	34,507	189,214	74,663
영업이익	-99,615	11,388	-8,966
당기순이익(손실)	-562,687	-10,749	-9,641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1기 반기	제 30기말	제 29기말
[유동자산]	691,222	731,609	1,454,010
· 현금및 현금성자산	300,935	57,740	115,452
· 기타유동금융자산	675	1,047	40,58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10,671	590,380	864,899
· 당기법인세자산	399	108	1,243
· 기타유동자산	22,861	7,541	96,490
· 유동성금융리스채권	104	113	158
· 재고자산	55,578	74,679	335,186
[비유동자산]	1,108,113	1,261,086	2,337,46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43	1,835	59,777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8,788	5,846	98,314
· 관계기업주식	118,977	115,160	950,544
· 이연법인세자산	28,473	154,808	94,814
· 기타비유동자산	25,252	25,685	3,145
· 금융리스채권	9	119	164
· 유형자산	889,327	940,043	848,225
· 투자부동산	1,939	1,939	2,493
· 무형자산	13,906	15,650	279,99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020,636	764,526	-
자산총계	2,819,972	2,757,220	3,791,477
[유동부채]	1,526,578	2,902,555	1,862,732
[비유동부채]	398,409	316,658	1,061,351
[매각예정비유동부채]	619,354	111,667	-
부채총계	2,544,341	3,330,879	2,924,083
[자본금]	23,502	32,386	32,386
[자본잉여금]	949,483	847,331	845,06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789	3,589	-30,565
[기타자본구성요소]	-1,986	-25,221	-26,628
[이익잉여금]	-786,571	-1,353,276	-57,602
[비지배주주지분]	86,477	-60,625	104,743

자본총계	275,632	-573,659	867,394
매출액	200,319	702,023	1,030,431
영업이익	-13,939	-243,728	123,699
당기순이익(손실)	516,591	-1,588,237	-161,341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566,397	-1,285,909	-146,185
- 비지배지분	-49,805	-302,328	-15,157
총포괄이익(손실)	520,436	-1,559,414	-207,477
기본주당순이익	15,130	-22,546	-2,563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17개	10개	12개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

사업연도	당기에 연결에 포함된 회사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제31기 반기	(주)북센, (주)오피엠에스 웅진폴리실리콘(주), 북센제일차(유), (주)웅진플레이도시, 웅진식품(주), (주)오션스위츠, 웅진에너지(주) (주)웅진케미칼, 웅진텍스타일(주) PT WOONGJIN TEXTILES, TIANJIN WOONGJIN CSM ECOTECH CO., LTD., WOONGJIN CHEMICAL SHANGHAI CO., LTD., WOONGJIN CHEMICAL AMERICA INC, SUZHOUWOONGJIN ESLON FIBER CO., LTD. 더블유피디제일차(유), 제이에이치더블유(유)	웅진홀딩스제일차(유)
제30기	(주)북센, (주)오피엠에스, 웅진폴리실리콘(주) 웅진홀딩스제일차(유), (주)웅진플레이도시 웅진식품(주), (주)오션스위츠, 웅진에너지(주) 더블유피디제일차(유), 제이에이치더블유(유)	극동건설(주), 함덕산업단지개발(주), 이케이건설(주), 케이엠케이디(주), (주)웅진로지스틱스 (유)플레이도시제일차 (유)플레이도시제사차
제29기	(주)북센, (주)오피엠에스 극동건설(주) 함덕산업단지개발(주) (주)오션스위츠, 이케이건설(주) 케이엠케이디(주), 웅진폴리실리콘(주) (주)웅진로지스틱스, (유)플레이도시제일차 (유)플레이도시사차, 제이에이치더블유(유)	(주)웅진에스티

주1) 전전기 중 연결실체는 (주)웅진로지스틱스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또한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이었던 (주)웅진에스티를 합병하였음.

주2) 전기 중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인 (주)웅진로지스틱스를 흡수합병하였음. 또한, 연결실체는 (주)웅진플레이도시를 신규로 취득하였고 극동건설(주)의 회생절차개시일 현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 제

146조 ③항에 의해,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극동건설(주)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극동건설(주), 이케이건설(주), 케이엠케이디(주), 합덕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음.

주3) 당기중 연결실체는 2013년 1월 2일자로 종속기업인 (주)웅진케미칼을 취득하였고, 투자자의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웅진에너지(주)와 웅진식품(주)는 관계 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분류되어 연결실체에 포함함.

다.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1) 회계처리방법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개정서,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영향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한 회계정책은 첨부된 연결검토보고서 주석 3의 유의적 회계정책에서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첨부된 연결검토보고서 주석 2의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주석 3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계정책의 변경

① 재무제표 표시

i) 영업이익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ii) 기타포괄손익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iii) 연결재무제표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연결되는 기업들로 결정된 웅진식품(주)와 그 종속회사, 웅진에너지(주)가 신규로 연결 범위에 포함되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② 종업원급여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한 범위접근법의 적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발생한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며,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별도로 산출하던 것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적용하여 계산한 순이자비용(수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사항 중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 산정 시 할인율을 소급 적용해 산출한 재무적 효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해 회계정책의 변경효과는 소급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③ 연결범위

새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별도재무제표' 및 해석서 '제2012호 '연결 : 특수목적기업'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단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때 그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웅진식품(주)와 그 종속회사 및 (주)웅진에너지에 대해 당기 중 변경된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기업주식에서 종속기업주식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④ 상기 기준서 외에 당반기부터 새로 적용되는 아래의 기준서 및 해석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제정 등

⑤ 반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요 조정사항

① 계정재분류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정부보조금의 경우 사용 전에는 재무상태표에 정부보조금관련부채로, 사용 후에는 관련 비유동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사용 전 정부보조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차감항목에서 정부보조금관련부채로 계정대체하였습니다. 또한, 과거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유동성을 구분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유동항목으로 분류된 이연법인세를 비유동항목으로 계정재분류하였습니다.

②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채무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확정급여채무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종업원급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금융비용자본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매각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매출채권의 매각거래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매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담보부차입거래로 처리하였습니다.

⑥ 하자보수충당부채 인식 변경

과거회계기준에서는 건설계약, 분양공사의 수익인식을 위한 진행률 산정 시 예상하자보수원가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예상하자보수원가가공사의 진행정도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바, 진행률 산정시 제외하여 수익을인식하고 예상하자보수원가는 진행률에 따라 원가에 산입하였습니다.

⑦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차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⑧ 매도가능지분증권의 손상차손환입 취소

과거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 공정가치 변동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지분증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 인식한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⑨ 금융보증부채 인식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상대방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석에 기재하고 충당보채의 요건의 충족하는 경우 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 충족하는 경우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금융보증계약은 시행사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당사의 건설계약과 관련한 필수사항인 경우에는 금융보증계약의 부채 계상에 대응하여 선급공사원가로 인식하고 진행율에 따라 원가에 산입하였습니다.

⑩ 법인세 조정

연결실체는 전환효과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차이조정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현재(이하 "전환일")의 재무상태의 차이조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5,001,762,046	3,180,580,272	1,821,181,774
조정사항:			
계정재분류	8,002,043	8,002,043	-
확정급여채무	-	4,683,831	(4,683,831)
종업원급여	70,662	2,729,581	(2,658,919)
금융비용자본화	5,174,178	-	5,174,178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제거	6,664,141	6,606,929	57,212
하자보수충당부채 인식 변경	5,207,670	3,744,881	1,462,789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차손	3,648,820	-	3,648,82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환입 취소	(3,809,440)	-	(3,809,440)
금융보증부채 인식	8,624,655	13,469,613	(4,844,958)
법인세 조정	(1,089,133)	(3,550,314)	2,461,181
연결실체 및 지분법 변동 등	(2,161,356,028)	(1,301,164,437)	(860,191,591)
조정액 합계	(2,128,862,432)	(1,265,477,873)	(863,384,55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872,899,614	1,915,102,399	957,797,215

②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의 종료일인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차이조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당기순이익	총포괄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4,067,975,907	2,669,277,697	1,398,698,210	47,384,556	50,509,175
조정사항:					
계정재분류	5,933,224	5,933,224	-	-	-
확정급여채무	-	1,084,788	(1,084,788)	(1,218,671)	3,633,008
종업원급여	-	2,964,303	(2,964,303)	(305,383)	(305,383)

금융비용자본화	9,203,993	-	9,203,993	4,029,815	4,029,815
무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97,004	-	97,004	97,004	97,004
지분법조정	(20,948,478)	(109,560)	(20,838,918)	17,576,656	18,110,711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제거 환원	10,727,755	10,690,197	37,558	(19,654)	(19,654)
하자보수충당부채 인식 변경	5,386,493	2,737,998	2,648,495	1,185,706	1,185,706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채권채무 가감	(41,538)	(41,538)	-	-	-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차손	4,911,645	-	4,911,645	12,628,250	12,628,25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환입 취소	(3,084,518)	-	(3,084,518)	724,922	724,922
금융보증부채 인식	9,247,629	17,715,975	(8,468,346)	(3,623,389)	(3,623,389)
법인세 조정	(4,123,967)	(5,464,798)	1,340,831	(1,075,545)	(28,433,860)
연결실체 및 지분법변동 등	(703,152,097)	(392,106,221)	(311,045,876)	10,471,519	32,028,841
조정액 합계	(685,842,855)	(356,595,632)	(329,247,223)	40,471,230	40,055,97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382,133,052	2,312,682,065	1,069,450,987	87,855,786	90,565,146

2.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가. 요약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1기 반기	제 30기말	제 29기말
[유동자산]	621,189	570,954	322,234
· 현금및 현금성자산	286,824	14,501	53,567
· 기타유동금융자산	1	1	14,69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30,353	534,805	241,575
· 미수법인세환급액	392	-	-
· 기타유동자산	3,476	13,110	6,099
· 유동성금융리스채권	104	113	158
· 재고자산	38	8,425	6,137
[비유동자산]	252,340	351,859	1,663,483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95	1,088	14,551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6,478	3,168	3,054
· 종속기업주식	57,820	8,121	823,714
· 관계기업주식	115,160	164,859	810,203
· 이연법인세자산	40,457	160,937	-
· 기타비유동자산	27	27	27
· 금융리스채권	9	119	164
· 유형자산	4,395	5,236	4,960
· 무형자산	7,299	8,306	6,8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96,069	603,658	-

자산총계	1,069,598	1,526,471	1,985,717
[유동부채]	466,058	1,923,948	689,093
[비유동부채]	341,337	68,815	435,923
부채총계	807,395	1,992,763	1,125,016
[자본금]	23,502	32,386	32,386
[자본잉여금]	917,517	815,365	815,36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653
[기타자본구성요소]	-1,986	-25,221	-26,628
[이익잉여금]	-676,830	-1,288,823	40,232
자본총계	262,203	-466,293	860,701
매출액	77,451	601,426	681,278
영업이익	9,622	-48,283	59,661
당기순이익(손실)	611,981	-1,327,958	9,019
총포괄이익	611,993	-1,328,402	8,056
기본주당순이익	18,222	-23,283	158

나.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1) 회계처리방법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첨부된 검토보고서의 주석 2.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3. 유의적 회계정책에서 동일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계정책의 변경

① 재무제표 표시

i) 영업이익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수익에서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표시 개정이 당사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는 동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하여 비교표시되는 전기 반기포괄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	당반기		전반기	
개정전 영업이익(손실)		(751,657)		39,578,632
차이내역				
기타수익		(1,465,596)		-
유형자산처분이익	(1,465,596)		-	
기타비용		11,839,131		52,387
유형자산처분손실	-		74	
기타채권손상차손	11,839,131		1,624	
재고자산폐기손실	-		50,689	
영업이익(손실)		9,621,878		39,631,019

ii) 기타포괄손익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교 표시된 반기 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② 종업원급여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한 범위 접근법의 적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발생한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며,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별도로 산출하던 것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적용하여 계산한 순이자비용(수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사항 중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 산정 시 할인율을 소급 적용해 산출한 재무적 효과가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해 회계정책의 변경효과는 소급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③ 연결범위

새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해석서 '제2012호 '연결 : 특수목적기업'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단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주석9. 종속기업투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웅진에너지에 대해 당기 중 변경된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기업주식에서 종속기업주식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④ 상기 기준서 외에 당반기부터 새로 적용되는 아래의 기준서 및 해석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제정 등

⑤ 2013년 반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이 적용되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에 대한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주석에 설명된 회계 정책은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의 비교정보의 작성 및 2010년 1월 1일(전환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공시에 적용되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당사가 선택한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함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 적용하였습니다.

③ 차입원가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의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해서 적용하였습니다

④ 별도재무제표상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

전환일에 별도재무제표상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서 계상된 장부가액을 간주원가로 적용하였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현금흐름표의 차이조정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던 이자 및 배당금의 수취금액과 이자의 지급금액에 대해서 각각 투자활동현금흐름과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던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현금흐름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3) 영업이익의 분류

당사의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항목은 과거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달라졌으며, 과거 회계기준과의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제 29기	제 28기
과거회계기준 영업이익	59,660,627	63,844,499
차이내역		
기타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2,855	2,487
기타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	(5,312)
유형자산손상차손	(69,565)	-
재고자산폐기손실	(5,533)	-
무형자산처분손실	(246,833)	-
무형자산손상차손	(1,369,995)	-
영업이익	57,971,556	63,841,674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요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보증부채의 인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을 최초측정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여금융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매출채권 매각 취소

당사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매각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매출채권의 매각거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매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담보부차입거래로 처리하였습니다.

③ 누적유급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

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였습니다.

⑤ 퇴직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채무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확정급여채무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⑥ 대손설정방법 변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⑦ 차입원가자본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⑧ 무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당사는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습니다.

⑨ 지분법 취소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당사는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⑩ 법인세효과

당사는 전환효과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자본의 차이조정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현재(이하 "전환일")의 재무상태의 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과거 회계기준	1,783,792,095	967,381,281	816,410,814
조정사항:			
① 금융보증부채의 인식	-	8,665,654	(8,665,654)
③ 누적유급휴가	-	605,232	(605,232)
④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264,566	-	264,566
⑤ 퇴직급여부채	-	1,172,324	(1,172,324)

⑩ 법인세효과	-	(3,550,314)	3,550,314
조정사항 합계	264,566	6,892,896	(6,628,33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784,056,661	974,274,177	809,782,484

②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의 종료일인 2010년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과거 회계기준	1,849,391,810	966,000,229	883,391,581	11,912,194	10,627,886
조정사항:					
① 금융보증부채의 인식	-	14,292,706	(14,292,706)	(5,627,052)	(5,627,052)
③ 누적유급휴가	-	714,681	(714,681)	(109,449)	(109,449)
② 매출채권 매각 취소	6,400,000	6,400,000	-	-	-
④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264,566	-	264,566	-	-
⑤ 퇴직급여부채	-	389,354	(389,354)	(100,226)	782,970
⑧ 무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97,004	-	97,004	97,004	97,004
⑨ 지분법 취소	(20,907,210)	(109,560)	(20,797,650)	17,617,924	18,151,979
⑩ 법인세효과	-	(5,464,798)	5,464,798	1,914,484	1,914,484
조정사항 합계	(14,145,640)	16,222,383	(30,368,023)	13,792,685	15,209,93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835,246,170	982,222,612	853,023,558	25,704,879	25,837,822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연결감사인

제31기 반기	제30기	제29기
대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2)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	지적사항 등 요약
제31기 반기	예외사항 없음	-
제30 기	적정	-
제29 기	적정	-

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의 명칭

제31기 반기	제30기	제29기
대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2)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	지적사항 등 요약
제31기 반기	예외사항 없음	-
제30기	적정	-
제29기	적정	-

다.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1)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용역체결현황

[단위: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31기 반기	대주회계법인	회계감사 용역	75	40
제30 기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 용역	150	40
제29 기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 용역	150	40

2)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최근3년)

- 해당사항 없음

라. 종속회사 감사의견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 항목의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의 개요

2013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4인의 상근이사, 1인의 비상근이사, 2인의 사외이사 등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사내이사 현황

[2013년 6월 30일 기준]

성명	약력	담당업무	비고
윤석금	- 서울대 경영대학원, 고려대 국제대학원 - 現 웅진그룹 회장	사내이사 (그룹회장)	-
이주석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 前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기타 비상무이사	-
신광수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The Wharton School, Univ. of Pennsylvania (MBA) - 前 보스턴컨설팅그룹 매니저 - 前(주)복센 대표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
이재진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現 (주)웅진홀딩스 사업총괄본부장	사내이사	-
한상교	-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 前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무 - 前 한국투자신탁운용 이사	사내이사	-

2) 사외이사 현황

[2013년 6월 30일 기준]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비고
정진규	- 서울대 법학과 - 前 법무연수원장 - 現 법무법인대륙 대표변호사	없음	-	-
김익래	- 성균관대(원) 경영학(박사) -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 現 딜로이트컨설팅 고문	없음	-	-

- 주1)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부서 또는 팀): 지주부문 CFO실 금융팀
 주2) 상세한 내용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당사는 2012년 10월 11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동년 10월 17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법정관리 회사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됨에 따라 회생계획 종결 시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기능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 이사의 독립성

이사 선임은 상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선출되고 있으며, 이사 선출의 독립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의 이사에 대한 각각의 추천인 및 선임배경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6월 30일 현재]

이 사	추천인	선임배경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윤석금	법률상관리인	당사 업무 총괄 및 안정적인 대외업무 수행	그룹총괄	-	본인
이주석	법률상관리인	당사 업무 총괄 및 안정적인 대외업무 수행	기타비상무이사	-	임원
신광수	법률상관리인	당사 업무 총괄 및 안정적인 대외업무 수행	대표이사	-	임원
이재진	법률상관리인	당사 업무 총괄 및 안정적인 대외업무 수행	사내이사	-	임원
한상교	채권단	당사 업무 총괄 및 안정적인 대외업무 수행	사내이사	-	임원
정진규	법률상관리인	법률전문가로 법적문제 자문	사외이사	-	사외이사
김익래	법률상관리인	회계전문가로 관련문제 자문	사외이사	-	사외이사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구성

성 명	주 요 경 력	사외이사 여부	비 고
김종식	- 연세대학교 법학과 - 前) (주)우리은행 부행장 - 前) (주)STX 사외이사	X	2013.3.14.선임

나. 감사위원의 독립성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2013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임한 김종식 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회사의 명칭

- 기업집단의 명칭 : 웅진
- 소속회사의 명칭 : 주식회사 웅진홀딩스(비금융 지주회사)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013.06.30 현재]

번호	회 사 명	주 요 사 업	설립년월일	상장여부
1	(주)웅진홀딩스	지주회사	1983-03-21	상 장
2	(주)웅진씽크빅	교육서비스, 출판 제조, 판매	2007-05-01	상 장
3	극동건설(주)	종합건설업	1953-04-28	비상장
4	웅진식품(주)	식품, 음료	1976-04-28	비상장
5	(주)북센	출판 유통	1997-01-01	비상장
6	웅진에너지(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유사반도체 제조업	2006-11-17	상 장
7	웅진폴리실리콘(주)	폴리실리콘 제조업	2008-07-16	비상장
8	웅진케미칼(주)	섬유소재 및 필터 제조와 판매	1972-07-01	상 장
9	(주)컴퍼스미디어	온라인교육컨텐츠 및 출판	2003-04-30	비상장
10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	골프장 사업	2003-05-01	비상장
11	(주)오피엠에스	정보서비스업	2005-01-14	비상장
12	(주)웅진비나코리아	부동산 개발 및 교육사업	2008-05-28	비상장
13	합덕산업단지개발(주)	단지조성사업	2006-05-09	비상장
14	(주)오션스위츠	부동산 등	2008-05-23	비상장
15	이케이건설(주)	종합 건설업	1999-08-06	비상장
16	(주)케이엠케이디	부동산업	2010-12-21	비상장
17	(주)웅진플레이도시	부동산 등	2009-05-28	비상장
18	웅진텍스타일(주)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012-12-03	비상장
19	웅진캐피탈(주)	구조조정 전문업무, 투자자문	2006-05-24	비상장
20	웅진금융파트너스PEF	자본시장법률에 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	2010-04-16	비상장
21	웅진금융제일 유한회사	자본시장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2010-06-17	비상장
22	웅진금융제이 유한회사	자본시장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2010-06-21	비상장
23	(주)서울상호저축은행	금융업	1982-12-16	비상장
24	(주)늘푸른저축은행	금융업	1982-10-16	비상장

[2013.06.30 현재]

구 분	성 명	회 사
상근 사내이사	윤석금	(주)웅진씽크빅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이주석	웅진에너지(주) 기타비상무이사
상근 사내이사	신광수	(주)웅진플레이도시, 웅진케미칼(주), (주)오피엠에스,(주)복센 기타비상무이사
상근 사내이사	이재진	(주)웅진씽크빅 기타비상무이사, 웅진식품(주) 기타비상무이사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3.06.30)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취득(처분)		평가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총자산	당기순손익
							수량	금액						
(주)웅진 씽크빅	2007.10.08	경영 참가	143,377	8,193	28.32	115,160	-	-	3,304	8,193	28.32	118,464	535,645	-51,020
합 계				-	-	115,160	-	-	3,304	-	-	118,464	-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3.06.30)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윤석금	최대주주	보통주	44,555,898	73.92	2,970,393	6.99	회생계획에 따른 감자로 주식수 및 비율 변동
(주)웅진홀 딩스	자사주	보통주	3,238,060	5.37	215,870	0.51	상동
(재)웅진	재단	보통주	247,600	0.41	27,511	0.07	상동
윤형덕	특수관계인	보통주	1,250,973	2.08	83,398	0.20	상동
윤새봄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3,315	1.66	66,887	0.16	상동
김향숙	특수관계인	보통주	15,858	0.00	1,057	0.01	상동
이시봉	특수관계인	보통주	35,000	0.06	2,333	0.01	회생계획에 따른 감자 및 출자 전환으로 주식수 및 비율 변동
이주석	특수관계인	보통주	2,720	0.00	1,563	0.01	상동
신광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560	0.01	회생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취득
윤영근	특수관계인	보통주	4,375	0.00	291	0.00	상동
계		보통주	50,353,799	83.54	3,369,863	7.93	-
		기 타	0	0.00	0	0.00	-

주1) 상기 지분율은 기초(60,272,436주) 및 기말의 발행주식수(42,503,966주) 대비 비율임.

주2) 당사는 2013년 2월 22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1차 감자(감자기준일 2월 26일), 출자전환(납입일 2월 27일), 2차 감자(기준일 2월 28일), 3차 감자(3월 19일)를 연속적으로 실시하였음.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3.06.30)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윤석금	2,970,393	6.99%	
	-	-	-	-
우리사주조합		7,080	0.02%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3.06.30)

(단위 : 주)

구분	주주		보유주식		비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2,272	99.92%	39,134,103	92.08%	-

주) 2013년도 1차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일(2013년 4월 30일) 기준

2.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p>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해 제휴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타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 기타 필요한 경우 <p>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p> <p>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p>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3월 중
주주명부폐쇄시기	<p>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금지한다.</p> <p>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 간 전에 공고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p>		
주권의 종류	1, 5, 10, 50, 100, 500, 10000주권 8권종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Tel : 02-2073-8105)		

주주의 특전	-	공고게재신문	정관 제 4조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 (www.wjholdings.co.kr)
--------	---	--------	---

3.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2013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3년 6월
보통주	최 고	2,660	2,300	1,975	3,060	4,325	3,755
	최 저	1,980	1,715	1,975	1,975	2,700	3,160
월간거래량		26,861,621	16,973,719	-	2,680,380	21,634,629	4,694,487

주1) 종가 기준

주2) 당사는 2013년 2월 22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1차 감자(감자기준일 2월 26일), 출자전환(납입일 2월 27일), 2차 감자(기준일 2월 28일), 3차 감자(3월 19일)를 연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자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기간은 1차 감자 기준일인 2월 26일부터 변경상장일(4월 30일)전일까지임.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2013.06.30)

(단위 : 주)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보통주	우선주		
윤석금	1945.12	회장	등기임원	상근	회장	- 서울대 경영대학원 - 고려대 국제대학원 - 現 웅진그룹 회장	2,970,393	-	1980.05~	-
이주석	1950.07	부회장	등기임원	비상근	부회장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 前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1,563	-	2010.01~	-
신광수	1969.01	대표 이사	등기임원	상근	대표 이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The Wharton School, Univ. of Pennsylvania (MBA) - 前 보스턴컨설팅그룹 매니저 - 前(주)복센 대표이사	560	-	2006.03~	-
이재진	1972.09	사내 이사	등기임원	상근	사내 이사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現 웅진홀딩스 사업총괄본부장	2,333	-	2004.12~	-
한상교	1949.04	사내 이사	등기임원	상근	사내 이사	-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 前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무 - 前 한국투자신탁운용 이사	-	-	2013.05~	-
정진규	1946.09	사외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 서울대 법학과 - 前 법무연수원장 - 現 법무법인대륙 대표변호사	-	-	2007.05~	-
김익래	1944.06	사외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 성균관대(원) 경영학(박사) -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 現 딜로이트컨설팅 고문	-	-	2012.03~	-
김종식	1955.07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 前(주)우리은행 부행장 - 前(주)STX 사외이사	-	-	2013.03~	2014.03.13

주1) 상기 기말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감자 및 출자전환 등의 완료 후 주식수임.

주2) 당사는 2013년 5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를 신규선임하였으며, 당사 회생계획안 「제 14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을 제203조에 의거하여 1년이며, 매년 회생계획인가결정일(당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2013년 2월 22일)이 속한 달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함.

-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2013.06.30 현재]

구 분	성 명	회 사
상근 사내이사	윤석금	(주)웅진씽크빅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이주석	웅진에너지(주) 기타비상무이사
상근 사내이사	신광수	(주)웅진플레이도시, 웅진케미칼(주), (주)오피엠에스,(주)북센 기타비상무이사
상근 사내이사	이재진	(주)웅진씽크빅 기타비상무이사, 웅진식품(주) 기타비상무이사

[2013.6.30 현재, 단위: 명, 백만원]

구분/성별	직 원 수				평균 근속년수	당기 급여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 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지주	52	-	-	52	8.7	1,446	28	-
CIT서비스	154	8	-	162	6.3	3,765	23	
IT서비스	117	-	-	117	3.8	2,740	23	
웨어드서비스	46	12	-	58	9.0	1,217	21	
콜센터	17	632	-	649	4.0	6,133	9	
합계	386	652	-	1,038	4.8	15,301	15	
남	283	20	-	303	6.4	7,491	25	
여	103	632	-	735	4.2	7,810	11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총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비고
이 사	7	3,000,000,000	-
감 사	1	300,000,000	-

나. 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 급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5	294	74	-	-
사외이사	2	42	21	-	-
감사위원회 위원 또 는 감사	1	59	59	-	-

계	8	395	56	-	-
---	---	-----	----	---	---

주1) 등기이사의 1인당 평균지급액은 무급 등기임원을 제외한 금액임.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별도기준>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거래 및 기타거래 내역

가. 매출 등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반기	전반기
종속기업	(주)북센	상품매출 외	1,008,069	1,305,295
	웅진폴리실리콘(주)	상품매출 외	2,872,061	3,829,105
	(주)오션스위츠	상품매출 외	453,262	679,535
	(주)오피엠에스	상품매출 외	18,708	44,270
	(주)웅진로지스틱스	용역매출 외	-	5,267
	웅진식품(주)	상품매출 외	2,308,416	32,060,974
	웅진에너지(주)	상품매출 외	714,693	15,369,364
	웅진케미칼(주)	상품매출 외	8,006,094	95,292,930
	(주)웅진플레이도시	상품매출 외	810,465	1,703,324
	웅진텍스타일(주)	상품매출 외	269,493	-
관계기업	(주)웅진씽크빅	상품매출 외	28,537,560	65,467,309
기 타	웅진코웨이(주)	상품매출 외	-	59,539,199
	(주)웅진패스원	상품매출 외	-	2,404,915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	상품매출 외	496,959	562,855
	(재)웅진	상품매출 외	45	1,749
	웅진캐피탈(주)	용역매출 외	51,765	1,511
	웅진루카스투자자문(주)	용역매출 외	240	2,329
	(주)컴퍼스미디어	용역매출 외	27,773	91,677
	(주)서울상호저축은행	용역매출 외	40,828	1,211,055
	삼양정수(주)	용역매출 외	-	8,217
	그린엔텍	상품매출 외	-	358,276
	극동건설(주)	상품매출 외	-	67,416,613
합 계			45,616,431	347,355,769

나. 매입 등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반기	전반기

종속기업	(주)복센	교육훈련비 외	3,619	163,984
	웅진폴리실리콘(주)	물품대 외	196,791	1,198
	(주)오션스위츠	복리후생비 외	22,680	25,548
	(주)오피엠에스	광고선전비 외	54,012	79,511
	(주)웅진로지스틱스	전산용역비 외	-	13,905
	웅진식품(주)	물품대 외	448,695	794,053
	(주)웅진플레이도시	전산용역비 외	1,857	793,376
	웅진케미칼(주)	물품대 외	-	2,715,762
관계기업	(주)웅진씽크빅	물품대 외	-	16,115
기 타	웅진코웨이(주)	물품대 외	-	1,101,942
	(주)웅진패스원	교육훈련비 외	-	234,796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	전산용역비 외	1,800	11,893
합 계			729,454	5,952,083

다. 출자거래 등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반기	전반기
종속기업	웅진폴리실리콘(주)	대여금 대여	1,842,006	89,273,917
합 계			1,842,006	89,273,917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채 권	채 무	채 권	채 무
종속기업	192,323,576	2,331,274	94,017,085	109,679
관계기업	8,408,700	101,139	5,212,814	3,614,753
기 타	23,890,644	20,503	383,921,050	9,514,309
합 계	224,622,920	2,452,916	483,150,949	13,238,741

3. 당반기와 전반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단위: 천원)		
분 류	당반기	전반기
단기급여(*1)	627,840	1,048,608
퇴직급여(*2)	57,924	174,509
주식기준보상(*3)	-	503,444

합 계	685,764	1,726,561
-----	---------	-----------

- 단기급여는 현직 임원에 대한 급여, 사회보장분담금, 유급연차휴가, 이익분배금, 상여금(보고기간 종
 (*1) 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수 있는 것에 한함) 및 비화폐성급여(예: 의료급여 등) 등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 (*2)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입니다.
- (*3)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에 대한 보상비용입니다.

4.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제공처	담보 및 보증내역			제공받은 회사의 사용내역	
		담보 및 보증내역	주 식 수	금 액	여신금액 등	여신금융기관
종속기업	웅진폴리실리콘(주) (*)1)	웅진에너지(주) 주식	8,890,000주	18,677,370	100,757,018	서울보증보험(주)
		선수금 이행보증	-	18,566,781	-	-
	웅진플레이도시	자금보충	-	69,599,576	69,599,576	하나은행 등
기 타	(주)오션스위츠	자금보충	-	8,875,000	8,875,000	(주)제주은행
	웅진금융제일(유)	자금보충	-	14,200,000	14,200,000	(주)아이비케이캐피탈
	우리사주조합	지급보증	-	1,165,378	971,148	(주)신한은행
합 계				131,084,105	194,402,742	

-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종속기업인 웅진폴리실리콘(주)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선수금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금융보증충당부채
 (*1) 28,396,891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의 회생계획안 마련을 위해 실시된 채권신고절차에 의해 신고된 상기 자금보충의무 전부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 등의 사유로 부인하였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특수목적기업 제이에이치더블유(유)의 차입금 70,000,000천원에 대하여 (주)웅진씽크빅 주식 1,365,767주 및 (주)웅진에너지 주식2,535,364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건물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액이 해당차입금의 상환에 미달시에는 자금보충의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금융 보증충당부채로 48,590,853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거래 및 기타거래 내역

1) 매출 등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당반기		전반기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종속기업	(주)웅진플레이도시 (*1)	-	-	4,656,921	5,770,008

	웅진케미칼(주) (*1)	-	-	57,253,688	99,214,695
관계기업	(주)웅진씽크빅	24,663,984	34,472,793	32,143,342	67,899,505
기 타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	364,952	498,318	398,556	562,855
	웅진루카스투자자문(주)	120	240	-	2,329
	웅진캐피탈(주)	51,379	51,765	490	1,511
	(재)웅진	-	45	121	1,749
	그린엔텍(주)	-	-	358,276	358,276
	(주)컴퍼스미디어	14,267	27,773	12,630	91,677
합 계		25,094,702	35,050,934	94,824,024	173,902,605

(*1) 당반기는 연결실체의 변동으로 연결실체에 포함되었으며, 전반기 거래내역은 연결실체 포함 전의 거래내역입니다.

2) 매입 등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특수관계자명	당반기		전반기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종속기업	(주)웅진플레이도시 (*1)	-	-	676,180	802,544
	웅진케미칼(주) (*1)	-	-	1,095,012	2,818,373
관계기업	(주)웅진씽크빅	1,197,015	1,197,015	-	16,115
기 타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	8,084	9,884	13,907	36,664
합 계		2,410,198	1,206,899	1,785,099	5,458,795

(*1) 당반기는 연결실체의 변동으로 연결실체에 포함되었으며, 전반기 거래내역은 연결실체 포함 전의 거래내역입니다.

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채 권	채 무	채 권	채 무
종속기업	129,167,426	129,167,426	278,168,405	278,168,405
관계기업	9,459,316	13,284,065	28,493,999	15,603,561
기 타	24,629,053	115,319,661	459,190,540	139,279,407
합 계	163,255,795	257,771,152	765,852,944	433,051,373

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실체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단위: 천원)		
분 류	당반기	전반기
단기급여 (*1)	884,608	1,461,631

퇴직급여 (*2)	81,328	315,933
주식기준보상 (*3)	28,967	780,448
합 계	994,903	2,558,012

단기급여는 현직 임원에 대한 급여, 사회보장분담금, 유급연차휴가, 이익분배금, 상여금(보고기간종료 (*1)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수 있는 것에 한함) 및 비화폐성급여(예: 의료급여 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입니다.

(*3)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에 대한 보상비용입니다.

라.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의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거 래 내 용	당반기말	전기말
장기대여금	차량구매대여금	-	40,191

마.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주요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제공처	담보 및 보증내역			제공받은 회사의 사용내역	
		담보 및 보증내역	주 식 수	금 액	여신금액 등	여신금융기관
종속기업	웅진폴리실리콘(주)	웅진에너지(주) 주식	8,890,000주	18,677,370	100,757,018	서울보증보험(주)
)(*1)	선수금 이행보증	-	18,566,781	-	-
	웅진플레이도시	자금보충	-	69,599,576	69,599,576	하나은행 등
기 타	(주)오션스위치	자금보충	-	8,875,000	8,875,000	(주)제주은행
	웅진금융제일(유)	자금보충	-	14,200,000	14,200,000	(주)아이비케이캐피탈
	우리사주조합	지급보증	-	1,165,378	971,148	(주)신한은행
합 계				131,084,105	194,402,742	

(*1)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인 웅진폴리실리콘(주)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내역과 관련하여 금융보증충당부채 28,396,891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회생계획안 마련을 위해 실시된 채권신고절차에 의해 신고된 상기 자금 보충의무 전부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 등의 사유로 부인하였습니다.

바.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인 특수목적기업 제이에이치더블유(유)의 차입 원금 70,000,000천원에 대하여 (주)웅진씽크빅 주식 1,365,767주 및 (주)웅진에너지 주식 2,535,364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건물과 관련하여담보제공액이 해당차입 금의 상환에 미달시에는 자금보충의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이와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금융보증충당부채로 48,590,853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간 중요거래

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실체간의 매출·매입거래 및 기타거래 내역

(단위: 천원)								
회 사 명	당반기				전반기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등		매입 등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주)웅진홀딩스	13,363,483	13,363,483	704,974	704,974	74,454,115	119,490,192	333,799	935,035
극동건설(주)	-	-	-	-	6,270,855	6,270,855	46,784,836	67,421,905
웅진식품㈜	491,480	491,480	9,314,840	9,533,352	298,700	784,319	22,596,876	39,256,864
(주)북센	11,075,314	11,075,314	1,006,806	1,009,729	4,202,556	7,446,129	(136,720)	793,016
웅진폴리실리콘(주)	293,628	412,919	-	-	3,134,892	3,134,892	8,778,208	11,063,117
(주)오션스위츠	-	-	453,262	453,262	22,680	25,548	(264,740)	77,370
(주)오피엠에스	382,843	391,427	-	18,708	73,203	112,458	24,394	44,270
웅진텍스타일㈜	-	-	327,285	327,285	-	-	-	-
웅진에너지㈜	-	-	815,966	815,966	663,111	803,649	11,003,459	18,476,465
웅진케미칼㈜	-	-	12,169,736	12,169,736	-	-	-	-
(주)웅진플레이도시	273,837	386,729	1,087,716	1,088,340	-	-	-	-
제이에이치더블유(유)	3,229,669	3,229,669	3,229,669	3,229,669	-	-	-	-
더블유피디제일차(유)	4,170,014	4,170,014	4,170,014	4,170,014	-	-	-	-
합 계	33,280,268	33,521,035	33,280,268	33,521,035	89,120,112	138,068,042	89,120,112	138,068,042

한편, 상기 연결실체 간의 거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어 본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간의 채권·채무내역

(단위: 천원)				
회 사 명	당반기말		전기말	
	채 권	채 무	채 권	채 무
(주)웅진홀딩스	98,026,348	2,331,076	112,316,131	3,641,583
웅진식품㈜	267,560	18,546,632	151,164	18,315,331
(주)북센	2,068,426	1,393,432	1,143,624	820,865
웅진폴리실리콘(주)	16,969	29,450,425	640	119,263,660
(주)오피엠에스	43,520	32,897	211,891	33,306
웅진텍스타일㈜	-	54,410	-	-
웅진에너지㈜	26,832,754	898,530	31,863,769	984,513
웅진케미칼㈜	1,793,660	12,840,769	-	-
(주)웅진플레이도시	-	63,501,066	70,309	135,109,147
제이에이치더블유(유)	48,590	48,590	-	-
더블유피디제일차(유)	69,599	69,599	132,410,877	-
합 계	129,167,426	129,167,426	278,168,405	278,168,405

한편, 연결실체간의 채권·채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어 본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간의 담보 및 지급보증의 내역

(단위: 천원)						
제공자	제공받는자	담보제공자산 등			제공받은 회사의 사용내역	
		담보제공 자산 등	주 식 수	금 액	여신금액 등	여신금융기관
(주)웅진홀딩스	웅진폴리실리콘(주)	웅진에너지(주) 주식	8,890,000주	18,677,370	100,757,018	서울보증보험(주)
		선수금 이행보증	-	18,566,781	-	-
	웅진플레이도시	자금보충	-	69,599,576	69,599,576	하나은행 등
	제이에이치더블유(유)	(주)웅진씽크빅 주식	1,365,767주	19,197,221	54,786,133	-
		웅진에너지(주) 주식	2,535,364주	5,324,264		-
합 계				131,365,212	225,142,727	

(*1)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인 웅진폴리실리콘(주)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선수금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금
 융보증충당부채 28,396,891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주)웅진홀딩스는 더블유피디제일차(유)와 제이에이치더블유(유)에 제공된 담보제
 공액이 해당차입금의 상환에 미달시에는 자금보충의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최근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2013년도 1차 임시주주총회 (2013.05.28)	제1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2호 의안: 대표이사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30억원으로 승인)	
제30기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미개최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2012.03.23)	제1호 의안: 제 29기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2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김익래 사외이사 신규선임)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30억원으로 승인)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3억원으로 승인)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337,677주 부여(신광수외 11인)	
제28기 정기주주총회 (2011.03.25)	제1호 의안: 제 28기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30억원으로 승인)	
	제4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3억원으로 승인)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118,256주 부여 (신광수외 9인)	

주1) 당사는 2012년 9월 26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3년 2월 22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에 의거, 회생계획인가법인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주주총회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에 따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나. 우발채무 및 제재현황 등

1) 극동건설(주)의 지분증권의 양도담보 거래

연결실체는 2008년 2월 중 군인공제회와 극동건설(주) 주식 1,989,812주를 49,999,996천원에 다음의 조건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군인공제회는 2012년 2월 중 1,193,887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관련 금액 29,999,996천원이 상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반기말 현재 795,925주에 대한 29,159,391천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있습니다.

구 분	내 용
-----	-----

매수선택권 보유	당사가 잔금지급일(2008년 2월 15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동안 994,906주를 한도로 행사일까지 연복리 12%를 적용한 금액에서 군인공제회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이 확정된 이익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매도청구권 부여	군인공제회가 잔금지급일(2008년 2월 15일)로부터 3년 경과 후 2년 동안 1,989,812주를 한도로 행사일까지 연복리 8.20%를 적용한 금액에서 군인공제회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이 확정된 이익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보유

2) 웅진폴리실리콘(주)의 지분증권에 대한 주주간약정

당사의 종속기업인 웅진폴리실리콘(주)는 2009년 6월 26일자로 미래에셋파트너스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09년 7월 17일자로 99,999,997천원(13,333,333주, 주당 7,500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가 미래에셋파트너스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2009년 6월 26일자로 체결한 주주간약정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우선매수권 보유	미래에셋파트너스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웅진폴리실리콘(주)의 지분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지분증권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매각참여권 부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진폴리실리콘(주)의 지분증권을 당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에셋파트너스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지분증권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이외에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웅진폴리실리콘(주)가 상장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은 웅진폴리실리콘(주)에 대한 투자금액에 일정이자 가산액으로 웅진폴리실리콘(주)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래에셋파트너스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웅진폴리실리콘(주)가 상장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시 미래에셋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웅진폴리실리콘(주)에 대한 투자금액에 일정이자 가산액으로 당사에 웅진폴리실리콘(주)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매도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주) 계좌에 이에 상당하는 금원(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융기관예치금 201,892천원) 및 (주)웅진씽크빅 주식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당사의 회생절차 개시에 의해 미래에셋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웅진폴리실리콘(주) 주식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당사는 전액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의 법률적 효력 및 당사의 금전채무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반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자금보충약정 등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극동건설(주)을 위하여 자금보충 및 담보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극동건설(주)의 시행사 등을 위하여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당반기말 현재 제공한 자금보충의무 등은 579,709,125천원입니다. 상기 금액은 차입금잔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회생계획안 마련을 위해 실시된 채권신고절차에 의해 신고된 상기 자금보충의무 전부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 등의 사유로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극동건설(주)의 시행사 등을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의 이행지급보증 등으로 160,112천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으로 3,070,000천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채권조사확정재판

당사는 2013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부인한 일부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최종결과는 당반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5) 미확정회생채권 현실화예상금액 관련 우발부채

당사는 부인한 자금보충의무 등 미확정회생채권의 현실화예상금액 539,186,362천원에 대해서 140,267,836천원은 금융보증충당부채 등으로 확정부채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가 받은 회생계획안"제3장 제6절 미확정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의 처리"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 등이 모두 종결되고, 그 결과 확정된 금액이 미확정채권의 현실화예상금액 539,186,362천원 미만으로확정되는경우 위 현실화예상금액과 확정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변제자금은 먼저, 지급의 사유 발생한 연도의 말까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할 채권 중 본 회생계획안 제7장 제3절에 따른 이행점검 결과 채권자협의회가 인정하는 예상수익금 등의 부족으로 인한 미변제된 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그 미변제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 대여채무, 회생채권 CP, 회생채권 공모사채, 회생채권 전환사채, 회생채권 상거래채무를 대상으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현금변제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 중 각 채권자에게 현금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비례하여 변제한다. 단, 채무자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잉여변제자금의 5%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당반기말 현재 주요 소송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① 당사가 원고인 소송

당사가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에 대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② 당사가 피고인 소송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주)제일산업에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당사의 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공사기성금에 대하여 공익채권으로서 우선변제를 구하는 소송 등 총 7건(소송가액 105,942백만원)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에 관한 사항 (별도기준)>

1) 극동건설(주)의 지분증권의 양도담보 거래

당사는 2008년 2월 중 군인공제회와 극동건설(주) 주식 1,989,812주를 49,999,996천원에 다음의 조건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군인공제회는 2012년 2월 중 1,193,887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관련 금액 29,999,996천원이 상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반기말 현재 795,925주에 대한 29,159,391천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매수선택권 보유	당사가 잔금지급일(2008년 2월 15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동안 994,906주를 한도로 행사일까지 연복리 12%를 적용한 금액에서 군인공제회가 이미 지급 받았거나 지급이 확정된 이익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매도청구권 부여	군인공제회가 잔금지급일(2008년 2월 15일)로부터 3년 경과 후 2년 동안 1,989,812주를 한도로 행사일까지 연복리 8.20%를 적용한 금액에서 군인공제회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이 확정된 이익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보유

2) 웅진폴리실리콘(주)의 지분증권에 대한 주주간약정

당사의 종속기업인 웅진폴리실리콘(주)는 2009년 6월 26일자로 미래에셋파트너스오토모티브투자전문회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09년 7월 17일자로 99,999,997천원(13,333,333주, 주당 7,500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가 미래에셋파트너스오토모티브투자전문회사와 2009년 6월 26일자로 체결한 주주간약정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우선매수권 보유	미래에셋파트너스오토모티브투자전문회사가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웅진폴리실리콘(주)의 지분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지분증권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매각참여권 부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진폴리실리콘(주)의 지분증권을 당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에셋파트너스오토모티브투자전문회사는 해당 지분증권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이외에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웅진폴리실리콘(주)가 상장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은 웅진폴리실리콘(주)에 대한 투자금액에 일정이자 가산액으로 웅진폴리실리콘(주)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래에셋파트너스오토모티브투자전문회사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웅진폴리실리콘(주)가 상장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시 미래에셋오토모티브투자전문회사는 웅진폴리실리콘(주)에 대한 투자금액에 일정이자 가산액으로 당사에 웅진폴리실리콘(주)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매도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주) 계좌에 이에 상당하는 금원(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융기관예치금 201,892천원) 및 (주)웅진씽크빅 주식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당사의 회생절차 개시에 의해 미래에셋오토모티브투자전문회사가 웅진폴리실리콘(주) 주식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당사는 전액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의 법률적 효력 및 당사의 금전 채무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반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자금보충약정 등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극동건설(주)을 위하여 자금보충 및 담보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극동건설(주)의 시행사 등을 위하여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당반기말 현재 제공한 자금보충의무 등은 579,709,125천원입니다. 상기 금액은 차입금잔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 당사는 당사의 회생계획안 마련을 위해 실시된 채권신고절차에 의해 신고된 상기 자금보충의무 전부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 등의 사유로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극동건설(주)의 시행사 등을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의 이행지급보증 등으로 160,112천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으로 3,070,000천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채권조사확정재판

당사는 2013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부인한 일부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최종결과는 당반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5) 미확정회생채권 현실화예상금액 관련 우발부채

당사는 부인한 자금보충의무 등 미확정회생채권의 현실화예상금액 539,186,362천원에 대해서 140,267,836천원은 금융보증충당부채 등으로 확정부채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가 받은 회생계획안 "제3장 제6절 미확정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의 처리"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 등이 모두 종결되고, 그 결과 확정된 금액이 미확정채권의 현실화예상금액 539,186,362천원 미만으로확정되는경우 위 현실화예상금액과 확정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변제자금은 먼저, 지급의 사유 발생한 연도의 말까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할 채권 중 본 회생계획안 제7장 제3절에 따른 이행점검 결과 채권자협의회가 인정하는 예상수익금 등의 부족으로 인한 미변제된 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그 미변제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 대여채무, 회생채권 CP, 회생채권 공모사채, 회생채권 전환사채, 회생채권 상거래채무를 대상으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현금변제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 중 각 채권자에게 현금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비례하여 변제한다. 단, 채무자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잉여변제자금의 5%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당반기말 현재 주요 소송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① 당사가 원고인 소송

당사가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에 대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② 당사가 피고인 소송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주)제일산업에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당사의 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공사기성금에 대하여 공익채권으로서 우선변제를 구하는 소송 등 총 7건(소송가액 105,942백만원)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웅진에너지에 관한 사항>

1)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기관별 한도 약정내역

(단위: 천원)

금융기관	내역	금액
------	----	----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약정	21,751,928
	에너지이용합리화대출약정	6,300,000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대출약정	40,000,000
합 계		68,051,928

2)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직원의 우리사주 청약대금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에 각각 6,266백만원 및 8,305백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3)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SunPower Philippines Manufacturing, Ltd.으로부터 주요 원재료인 Poly Silicon을 2016년 12월까지 약정된 가격으로 공급받는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SunPower Corporation에 2016년 12월까지 약정된 가격으로 Ingot을 판매하는 장기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 당사는 SunPower Corporation과의 Ingot Plant License 계약에 따라 2007년 중 Ingot 제조를 위한 기술료로 32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해당 지급액은 개발비로 계상하고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6)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Wacker Chemie AG로부터 주요 원재료인 Poly Silicon을 2016년 12월까지 약정된 가격으로 공급받는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선지급한 구매대금과 관련하여 선급금과 장기선급금에 계상된 금액은 각각 8,928백만원과 23,909백만원입니다.

7)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주)웅진폴리실리콘으로부터 주요 원재료인 Poly Silicon을 2015년 말까지 약정된 가격으로 공급받는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선지급한 구매대금과 관련하여 선급금에 계상된 금액은 26,615백만원입니다.

8)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4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9)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보험가입현황

(단위 : 천원)

보험종류	부 보 대 상	보 험 회 사	부 보 금 액
재산종합보험	건물, 구축물, 공기구비품, 재고자산 등	삼성화재해상보험(주)	479,373,843

한편, 상기 부보사항 이외에 당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및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종업원에 대해서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0) 소송사건

- 당기 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주요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회사는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며,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원고	피고	소송가액	소송내용
안승호外 11명	웅진에너지(주)	12.9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금 청구의 소(연체이자 포함)

2. 소규모 합병

가. 합병의 개요

당사는 2010년 12월 13일자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2011년 2월 22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종속기업인 (주)웅진에스티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나. 피합병회사의 현황

피합병회사	대 표 자	주요 목적사업	합병회사와의 관계
(주)웅진에스티	정 철 중	컴퓨터 제조업	종속기업

다. 합병 회계처리 방법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연결재무제표 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행한 합병회계처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유동자산(*)	10,622,264	유동부채	11,185,785
비유동자산	-1,545,267	비유동부채	-2,094,485
		종속기업주식	2,405,148
		자본잉여금	-499,68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64,566
		이익잉여금	-1,655,200

(*) 유동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2,031,89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중단사업

1) 중단사업의 개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주)북센은 2010년 4월 30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총판사업(지역별 서적도매 사업), BTC사업(대형쇼핑몰입점 및 온라인 사업), 지류사업(지류도매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식품	케미칼	웅진홀딩스	북센	합계
매 출 액	106,177,557	524,807,076	6,796,902	-	637,781,535
매출원가	66,006,059	454,385,671	6,083,555	-	526,475,285
매출총이익	40,171,498	70,421,405	713,347	-	111,306,250
판매비와관리비	35,258,694	52,391,168	10,922,843	-	98,572,705
영업이익(손실)	4,912,804	18,030,237	(10,209,496)	-	12,733,545
기타수익	2,276,848	11,016,458	-	624	13,293,930
기타비용	1,737,776	10,430,502	-	(62,500)	12,105,778
금융수익	12,795	1,180,817	-	-	1,193,612
금융원가	1,275,080	6,578,477	-	-	7,853,557
중단사업세전손실	4,189,591	13,218,533	(10,209,496)	(61,876)	7,136,752
법인세효과	2,234,352	2,234,352	-	-	4,468,704
기타	741,404	214,686	-	-	956,090
중단사업손실	2,696,643	11,198,867	(10,209,496)	(61,876)	3,624,138

②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극동건설	북센	식품	합계
매 출 액	319,137,973	-	111,354,573	430,492,546
매출원가	302,071,908	-	74,133,755	376,205,663
매출총이익	17,066,065	-	37,220,818	54,286,883
판매비와관리비	26,531,004	218	35,643,509	62,174,731
영업이익	(9,464,939)	(218)	1,577,309	(7,887,848)
기타수익	12,085,049	1,154	431,667	12,517,870
기타비용	3,981,648	162,259	529,528	4,673,435
금융수익	13,817,056	-	898,300	14,715,356
금융비용	18,916,267	-	793,929	19,710,196
중단사업세전손실	(6,460,749)	(161,323)	1,583,819	(5,038,253)
법인세효과	(4,867,857)	-	174,567	(4,693,290)
기타	61,395,276	-	38,472,545	99,867,821
중단사업손실	59,802,384	(161,323)	39,881,797	99,522,858

(3)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

①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식품	케미칼	웅진홀딩스	북센

영업활동현금흐름	4,453,875	38,183,394	-	-
투자활동현금흐름	(2,514,822)	(49,507,150)	-	-
재무활동현금흐름	(4,741,463)	45,352,443	-	-
합 계	(2,802,410)	34,028,687	-	-

②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극동	식품	복센
영업활동현금흐름	59,207,007	3,896,470	1,154
투자활동현금흐름	(91,051,174)	(7,207,642)	-
재무활동현금흐름	90,003,162	3,334,746	-
합 계	58,158,995	23,574	1,154

4. 종속기업의 취득과 비지배지분

가. 웅진로지스틱스

연결실체는 전기 중 해외운송주선업체인 (주)웅진로지스틱스 주식 283,150주(지분율100%)를 취득하여 (주)웅진로지스틱스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주)웅진로지스틱스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함에 따라 연결실체는 물류 프로세스를 현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웅진로지스틱스의 지분에 대하여 2011년 1월 1일에 취득거래가 있었다면,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전기 매출이 1,495,447,404천원, 전기순손실은 161,183,812천원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웅진로지스틱스 인수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이전대가 및 영업권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법률 수수료와 실사 수수료 등은 연결실체의 포괄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유동자산(★)	2,341,778
비유동자산	172,809
[자산총계]	2,514,587
유동부채	2,393,142
비유동부채	85,821
[부채총계]	2,478,963
인수한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35,624

총이전대가	1,610,384
영업권	1,574,760

(*) 유동자산에는 585,700천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웅진케미칼

당기 중 연결실체는 2013년 1월 2일자로 종속기업인 (주)웅진케미칼 주식 214,644,092주(46.3%)를 취득하여 (주)웅진케미칼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한편, (주)웅진케미칼 주식 인수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이전대가 및 영업권의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법률 수수료와 실사 수수료 등은 연결실체의 포괄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지분율	공정가치*지분율
유동자산(*)	291,181,524	45.90%	133,663,935
비유동자산	487,092,859	45.90%	223,595,053
[자산총계]	778,274,383	45.90%	357,258,989
유동부채	343,683,007	45.90%	157,764,210
비유동부채	124,647,234	45.90%	57,218,053
[부채총계]	468,330,241	45.90%	214,982,263
인수한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309,944,142	45.90%	142,276,725
총이전대가			178,154,596
영업권			35,877,871

5.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

당사는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6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동 법원은 2012년 10월 11일부로 당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 2월 22일에 당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동의를 얻어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① 당반기 중 회생채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시인된 총채권액(*)	관리변경		개시후이자	변제할 금액	증가(*2)	감소	반기말
		출자전환	면제					
회생담보권								
대여채무(*4)	416,423,715	-	-	10,855,539	427,279,254	-	(427,279,254)	-
물상보증채무(*3)	118,290,719	-	-	-	118,290,719	-	(84,220,448)	34,070,271
회생담보권 합계	534,714,434	-	-	10,855,539	545,569,973	-	(511,499,702)	34,070,271
회생채권								
대여채무	36,958,252	11,028,342	-	-	25,929,910	-	-	25,929,910

CP채무	99,752,180	29,766,051	-	-	69,986,129	69,041	(20,602)	70,034,568
공모사채채무	658,858,173	196,603,279	-	-	462,254,894	1,190,128	(355,134)	463,089,888
전환사채채무	10,559,420	3,150,931	-	-	7,408,489	-	-	7,408,489
상거래채무	149,854,267	44,716,513	-	-	105,137,754	-	(213)	105,137,541
임대보증금	438,072	-	-	-	438,072	-	-	438,072
특수관계자 대여채무	3,084,860	3,084,860	-	-	-	-	-	-
특수관계자 상거래채무	5,875,840	2,937,920	-	-	2,937,920	-	-	919,205
임원퇴직금채무	85,843	32,887	-	-	52,956	-	-	52,956
미확정구상채무(*5)	6,034,016	미정	미정	-	미정	-	-	미정
미확정보증채무(*6)	41,943,505	미정	미정	-	미정	-	-	미정
풋옵션약정(*7)	-	-	-	-	-	-	-	-
자금보증채무(*8)	-	-	-	-	-	-	-	-
회생채권 합계	1,013,444,428	291,320,783	-	-	674,146,124	1,259,169	(375,949)	673,010,628
차감:유동성회생채무								(347,414,505)
차감계								325,596,123

- (*1) 시인된 총채권액은 원금, 개시전이자 및 가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인가일 이후 확정채권의 증가로 미지급금에서 회생채무로 계정재분류하였습니다. 인가후 확정회생채권의 감소금액은 출자전환채무로 표시하였습니다.
- (*3) 물상보증채무는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거나 당사가 제공한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합니다. 당사는 물상보증채무 중 34,070,271천원을 금융보증충당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 (*4) 당반기중 당사가 보유중인 코웨이(주)의 주식전량을 처분하여 현금변제하였습니다.
- (*5)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제공받는 보증 금액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 (*6)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등이 당사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함으로써 당사가 보증기관 및 법인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 (*7) 주석1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에셋파트너스오호 피이에프 및 사단법인 군인공제회와 체결한 풋옵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채무입니다. 이에 대하여 변제할의무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의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당반기말 현재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8) 주석1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 또는 극동건설(주)의 시행사 등을 위하여 제공한 자금보증약정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이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및 이에 따른 이의의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당반기말 현재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② 채무조정이익의 내역

가. 출자전환과 관련된 채무조정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채무조정대상 장부금액	발행주식수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채무조정이익(*)
회생채권 대여채무	11,028,342	22,056,684주	11,028,342	(6,623,328)	6,623,328
회생채권 CP채무	29,766,051	59,532,092주	29,766,046	(17,876,695)	17,876,700
회생채권 공모사채	196,603,279	393,205,610주	196,602,805	(118,074,409)	118,074,883
회생채권 전환사채	3,150,931	6,301,861주	3,150,931	(1,892,365)	1,892,365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44,716,513	89,431,590주	44,715,795	(26,855,116)	26,855,834
회생채권 특수관계자채무	6,022,780	12,045,553주	6,022,777	(3,617,119)	3,617,122
회생채권 임원퇴직금	32,887	65,768주	32,884	(19,749)	19,752
합 계	291,320,783	582,639,158주	291,319,580	(174,958,781)	174,959,984

(*) 당사의 주권은 감자에 따른 주권제출로 인하여 2013년 2월22일자로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매매거래정지일의 1주당 거래종가는 1,975원입니다. 매매거래정지일(2013년 2월 22일)과 당반기말(2013년 3월 1일) 현재까지 시점차이가 크지 않아, 감자후 출자 전환되어 증가한 주식수를 고려하여 2013년 3월 1일의 1주당 주권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채무의 출자전환을 위해 발행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소멸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나. 상환유예와 관련된 채무조정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채무조정대상 명목금액	채무조정전 장부금액	채무조정후 장부금액	채무조정이익
회생채권 대여채무	25,929,909	25,929,909	23,324,311	2,605,598
회생채권 CP채무	69,986,130	69,986,130	63,198,357	6,787,773
회생채권 공모사채	462,254,894	462,254,894	410,314,093	51,940,801
회생채권 전환사채	7,408,489	7,408,489	6,475,213	933,276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105,137,754	105,137,754	94,393,444	10,744,310
회생채권 특수관계자채무	2,937,920	2,937,920	2,637,686	300,234
회생채권 임원퇴직금	52,957	52,957	47,545	5,412
합 계	673,708,053	673,708,053	600,390,649	73,317,404

(*) 회생채권 임대보증금 438,072천원의 경우 상환유예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임대목적물의 재임대 또는 매각시 전액 변제할 예정임에 따라, 이로 인한 채무조정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 인가일 이후 확정채권의 증가로 인하여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조정이익 225,657천원과 상환유예에 따른 채무조정이익 105,401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기타 회생채권 미신고로 인한 채무조정이익 60,703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③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세 등 채무,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구 분	내 용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p>(1) 원금 및 개시전 이자</p> <p>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코웨이㈜의 지분 매각이 완료된 이후 제1차년도(2013년) 3월 말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대하여 연 5.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금변제하되, 준비년도(2012년)부터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변제기일까지 발생한 개시후 이자는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변제기일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회생담보권 물상보증	<p>(1) 원금 및 개시전 이자</p> <p>시인된 총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거나(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는 것 포함) 당사가 제공한 담보물건을 처분하여(이미 처분되었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처분대금 포함) 변제 받도록 하되, 이를 통하여도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면제합니다. 단, 위의내용과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변제할 수 있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당사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대하여 연 5.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p>
------------	---

나. 회생채권 등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구 분	내 용
회생채권 대여채무	<p>(1) 원금 및 개시전 이자</p> <p>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29.84%를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70.16%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은 제1차년도(2013년)에 51.5%, 제2차년도(2014년)에 10.5%, 제3차년도(2015년)에 28.3%, 제4차년도(2016년)에 1.8%, 제5차년도(2017년)에 0.9%, 제6차년도(2018년)에 1.1%, 제7차년도(2019년)에 1.4%, 제8차년도에 1.3%(2020년), 제9차년도(2021년)에 1.5%, 제10차년도(2022년)에 1.7%를 각 변제(총100%)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당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회생채권 CP채무	<p>(1) 원금 및 개시전 이자</p> <p>회생채권 대여채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회생채권 공모사채	<p>(1) 원금 및 개시전 이자</p> <p>회생채권 대여채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회생채권 전환사채	<p>(1) 원금 및 개시전 이자</p> <p>회생채권 대여채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p>(1) 원금 및 개시전 이자</p> <p>회생채권 대여채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회생채권 임대보증금	<p>(1) 원금 및 개시전 이자</p> <p>① 시인된 건물임대보증금(이하 “중전 임대보증금”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대보증금으로 중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만약,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이 중전 임대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반환 임대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②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전 임대보증금을 매각대금 정산일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매각대금으로 중전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인도 후 3개월 이내에 미변제 임대보증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회생채권 특수관계자채무	<p>(1) 원금 및 개시전이자</p> <p>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 8,960,699,908원 중 특수관계자 대여채무 3,084,860,009원에 대해서는 100%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특수관계자 상거래채권 5,875,839,899원에 대해서는 50%를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5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은 제1차년도(2013년)에 51.5%를, 제2차년도(2014년)에 10.5%를, 제3차년도(2015년)에 28.3%, 제4차년도(2016년)에 1.8%를, 제5차년도(2017년)에 0.9%를, 제6차년도(2018년)에 1.1%를, 제7차년도(2019년)에 1.4%를 제8차년도(2020년)에 1.3%를, 9차년도(2021년)에 1.5%를, 제10차년도(2022년)에 1.7%를 각 변제(총 100%)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당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회생채권 임원퇴직금	<p>(1) 원금 및 개시전이자</p> <p>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8.31%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61.69%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은 제1차년도(2013년)에 51.5%, 제2차년도(2014년)에 10.5%, 제3차년도(2015년)에 28.3%, 제4차년도(2016년)에 1.8%, 제5차년도(2017년)에 0.9%, 제6차년도(2018년)에 1.1%, 제7차년도(2019년)에 1.4%, 제8차년도에 1.3%(2020년), 제9차년도(2021년)에 1.5%, 제10차년도(2022년)에 1.7%를 각 변제(총100%)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당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p>(1) 원금 및 개시전이자</p> <p>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여 확정되는 경우 시인액 범위내에서 대위변제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29.84%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70.16%를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제 1 차년도(2013 년)에 51.5%, 제 2 차년도(2014 년)에 10.5%, 제 3차년도(2015 년)에 28.3%, 제 4 차년도(2016 년)에 1.8%, 제 5 차년도(2017 년)에 0.9%, 제 6 차년도(2018 년)에 1.1%, 제 7 차년도(2019 년)에 1.4%, 제 8 차년도에 1.3%(2020 년), 제 9 차년도(2021 년)에 1.5%, 제 10 차년도(2022 년)에 1.7%를 각 변제(총 100%)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 2 차연도(2014 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제하되,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당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회생채권 미확정보증채무	<p>(1) 원금 및 개시전이자</p> <p>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여 확정되는 경우 시인액 범위내에서 대위변제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8.31%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61.69%를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제 1 차년도(2013 년)에 51.5%, 제 2 차년도(2014 년)에 10.5%, 제 3차년도(2015 년)에 28.3%, 제 4 차년도(2016 년)에 1.8%, 제 5 차년도(2017 년)에 0.9%, 제 6 차년도(2018 년)에 1.1%, 제 7 차년도(2019 년)에 1.4%, 제 8 차년도에 1.3%(2020 년), 제 9 차년도(2021 년)에 1.5%, 제 10 차년도(2022 년)에 1.7%를 각 변제(총 100%)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 2 차년도(2014 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제하되,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당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조세 및 벌금채무	<p>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은 면제합니다. 신고된 채권액 중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은 1차년도(2013년) 변제기일 전일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다툼이있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p>
회생채권 풋옵션약정채무	<p>(1) 원금 및 개시전 이자</p> <p>당사가 미래에셋파트너스오호 피아에프 및 사단법인 군인공제회와 각각 체결한 풋옵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되는 채무 중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등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당사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채무(이하 “회생채권 풋옵션약정채무”라 함)는 확정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8.31%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61.69%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은 제1차년도(2013년)에 51.5%, 제2차년도(2014년)에 10.5%, 제3차년도(2015년)에 28.3%, 제4차년도(2016년)에 1.8%, 제5차년도(2017년)에 0.9%, 제6차년도(2018년)에 1.1%, 제7차년도(2019년)에 1.4%, 제8차년도에 1.3%(2020년), 제9차년도(2021년)에 1.5%, 제10차년도(2022년)에 1.7%를 각 변제(총100%)하는 것으로 하며, 단 제2차년도 (2014년) 이후에 채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제하되,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무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당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회생채권 자금보충채무	<p>(1) 원금 및 개시전 이자</p> <p>당사가 주채무자(극동건설㈜, SPC 등)의 사업진행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자금을 보충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채무 중에서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등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당사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무(이하 “회생채권 자금보충채무”라 함)는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도록 하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은 그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8.31% 출자전환하며, 나머지 61.69%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은 제1차년도(2013년)에 51.5%, 제2차년도(2014년)에 10.5%, 제3차년도 (2015년)에 28.3%, 제4차년도(2016년)에 1.8%, 제5차년도(2017년)에 0.9%, 제6차년도(2018년)에 1.1%, 제7차년도(2019년)에 1.4%, 제8차년도에 1.3%(2020년), 제9차년도(2021년)에 1.5%, 제10차년도(2022년)에 1.7%를 각 변제(총100%)하는 것으로 하며, 단 제2차년도(2014년) 이후에 채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제하되,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무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당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p>(2) 개시후 이자</p> <p>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p>

공익채권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현재 미지급된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 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

다.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처리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추완 신고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완 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 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④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 발행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후 1영업일에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된 보통주식 60,272,518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중 대주주인 윤석금 회장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46,868,139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3,238,060주는 보통주식 5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하고, 나머지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은 3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하였습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후 2영업일에 회생채권 대여채무, 회생채권 CP채무, 회생채권 공모사채, 회생채권 전환사채,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회생채권 임원퇴직금채무, 회생채권 특수관계자채무, 회생채권 보증채무, 회생채권 풋옵션약정채무, 회생채권 자금보충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원에 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에 의한 자본 감소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후 2영업일에 회생채권 특수관계자채무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후 그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 전체 12,045,553주를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라.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주식병합

회생채권 대여채무, 회생채권 CP채무, 회생채권 공모사채, 회생채권 전환사채,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회생채권 임원퇴직금채무, 회생채권 특수관계자채무, 회생채권 보증채무, 회생채권 풋옵션채권, 회생채권 자금보충채무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후, 무상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이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출자전환주식 전체를 대상(회생채권 풋옵션약정채무, 회생채권 자금보충채무 및 기타 미확정 채무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에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회생계획안 인가일 후 15영업일에 기존 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 대여채무, 회생채권 CP채무, 회생채권 공모사채, 회생채권 전환사채,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회생채권 임원퇴직금채무, 회생채권 특수관계자채무, 회생채권 보증채무, 회생채권 풋옵션약정채권, 회생채권 자금보충채무의 출자전환 이후 무상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주식병합이 이루어진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 전체를 대상(회생채권 풋옵션약정채무, 회생채권 자금보충채무 및 기타미확정 채무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에도 재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

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연결실체의 반기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당사는 극동건설(주)의 인수 및 추가적인 지원에 따른 재무상태의 악화와 차입금에 의존한 태양광사업 진출로 인한 유동성부족의 심화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력으로 유동성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2013년 2월 22일자 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당사의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재원마련을 위하여 웅진케미칼(주)와 웅진식품(주)를 2013년 내에 매각하고 웅진에너지(주), 웅진폴리실리콘(주), (주)웅진플레이도시를 2015년까지 매각할 계획이며 경영구조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이러한 자금조달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며 만일 이러한 당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위 반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2011.01.01~2013.06.30) 동안 총 2건인 14,510,694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으며, 그 중 총 2건인 14,510,694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		단기매매 차익	단기매매 차익 통보금액	환수금액	미환수 금액	반환청구여부	반환청구 조치계획	제척기간	공시여부
차익 취득시	작성일 현재	발생사실 통보일							
임원	퇴직	2013.05.09	3,235,145	3,235,145	-	반환청구 하였음	-	2014.02.09 ~ 2014.09.19	-
직원	재직	2013.05.09	11,275,549	11,275,549	-	반환청구 하였음	-	2014.05.24 ~ 2014.07.18	-
합 계 (2	건)	14,510,694	14,510,694	-				

※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에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3.06.30)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 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	-----	------	------------------	------------	-----------

신주인수권부사 채	2009.05.29	170,000	차입금상환자금 1,700억원	차입금상환자금 1,700억원 (우리은행 외 6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최초 자금사용계획과 동 일
--------------	------------	---------	--------------------	---	-------------------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3.06.30)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전환사채	2008.06.13	150,000	차입금상환자금 1,500억원	차입금상환 1,500억원 (하나대투증권)	최초 자금사용계획과 동 일

XI. 재무제표 등

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31 기 반기말 2013.06.30 현재

제 30 기말 2012.12.31 현재

제 29 기말 2011.12.31 현재

(단위 : 원)

	제 31 기 반기말	제 30 기말	제 29 기말
자산			
유동자산	691,222,470,097	731,608,725,823	1,454,009,606,503
현금및현금성자산	300,935,018,391	57,740,349,015	115,451,995,850
기타유동금융자산	674,629,112	1,047,160,787	40,580,358,388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72,574,416	
매도가능금융자산	674,629,112	665,569,156	40,579,643,388
위험회피파생상품자산		309,017,215	
만기보유금융자산			715,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10,670,855,668	590,380,163,207	864,898,824,613
금융기관예치금	144,256,745,536	401,471,249,695	29,325,387,769
매출채권	120,404,164,801	224,385,719,697	437,912,279,043
매출채권손상차손누계액	(22,703,876,402)	(107,109,319,021)	(114,611,422,387)
단기대여금	134,533,479,221	341,364,539,578	521,650,865,195
단기대여금손상차손누계액	(73,016,444,147)	(281,496,952,329)	(157,762,508,432)
미수금	27,510,109,660	10,685,190,623	43,739,213,595
미수금손상차손누계액	(24,369,347,854)	(3,280,469,117)	(9,258,574,301)
미수수익	12,149,178,657	12,935,811,697	20,070,449,392
미수수익손상차손누계액	(8,093,153,804)	(11,162,566,073)	(7,434,599,070)
미청구공사			102,440,812,526
미청구공사손상차손누계액			(1,173,078,717)
단기보증금		2,586,958,457	
당기법인세자산	398,742,410	108,144,720	1,243,488,555
기타유동자산	22,860,868,374	7,541,192,206	96,490,348,754
선급금	22,153,414,718	32,376,607,864	95,932,922,970
선급금손상차손누계액	(2,982,232,437)	(29,313,298,622)	(3,962,438,985)
선급비용	2,556,254,410	3,396,438,287	4,519,864,769
선급부가가치세	1,092,829,067	654,941,641	
기타의 기타유동자산	40,602,616	426,503,036	
유동성금융리스채권	104,100,000	112,843,335	158,396,410
유동성금융리스채권	104,100,000	206,100,000	171,269,085
유동성금융리스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9,439,362)	(12,872,675)

유동성금융리스채권손상차손누계액		(83,817,303)	
재고자산	55,578,256,142	74,678,872,553	335,186,193,933
상품	5,617,965,914	6,512,816,642	15,581,040,596
상품평가충당금	(24,337,457)	(491,159,734)	(2,697,683,324)
제품	1,107,670,656	5,566,723,391	15,018,773,549
제품손상차손누계액	(283,611,748)	(2,670,909,232)	(3,629,027,028)
반제품	13,892,403,139	24,942,562,809	28,084,631,454
반제품손상차손누계액	(1,063,578,566)	(20,163,451,924)	
재공품	1,240,799,754	592,732,503	
재공품손상차손누계액	(45,391,866)	(257,284,544)	
부산물	52,660,443	63,722,391	784,507,546
부산물손상차손누계액	(47,501,226)	(58,563,174)	
원재료	6,898,903,751	42,002,590,827	8,212,105,136
원재료손상차손누계액	(2,012,029,930)	(17,440,144,069)	
저장품	26,929,784,517	31,895,524,429	4,162,725,061
저장품손상차손누계액	(4,161,010,186)	(4,161,244,186)	
완성주택	3,313,874,711	3,313,874,711	
미착재고자산	4,818,285,742	5,944,738,385	4,273,023,297
미착재고자산손상차손누계액	(656,631,506)	(913,656,672)	
미성공사			132,509,405,858
미성공사정보보조금			(59,316,446)
용지			131,825,553,010
기타재고자산			1,120,455,224
비유동자산	1,108,113,474,319	1,261,085,762,743	2,337,467,580,81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42,775,457	1,835,172,912	59,777,457,721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549,793,062	942,502,717	2,305,854,670
매도가능금융자산	892,982,395	892,670,195	45,271,350,593
만기보유금융자산			12,200,252,458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8,788,216,907	5,846,466,927	98,314,494,034
장기금융기관예치금	110,091,270	104,972,184	5,505,300,315
장기매출채권	25,878,616,673		51,625,620
장기매출채권손상차손누계액	(3,239,158,133)		
장기대여금	48,985,535,091	70,024,444,434	70,046,735,733
장기대여금손상차손누계액	(48,590,853,149)	(70,000,000,000)	
장기미수금	1,011,790,000	901,790,000	4,739,304,909
장기미수금손상차손누계액	(901,790,000)	(901,790,000)	
장기보증금	5,533,985,155	5,717,050,309	17,744,889,137
장기미수수익			226,638,320
관계기업주식	118,977,256,272	115,160,414,432	950,543,748,058
이연법인세자산	28,473,304,617	154,807,860,646	94,813,699,678
기타비유동자산	25,251,665,520	25,685,233,116	3,145,259,499
장기선급금	23,909,590,328	23,909,590,328	
장기선급비용	1,315,075,192	1,748,642,788	3,051,120,534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7,000,000	27,000,000	94,138,965

금융리스채권	8,675,000	118,558,839	163,570,439
금융리스채권	8,675,000	171,225,000	170,855,220
금융리스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3,772,734)	(7,284,781)
금융리스채권손상차손누계액		(48,893,427)	
유형자산	889,326,781,461	940,043,398,714	848,225,238,035
토지	263,030,899,035	276,276,001,172	170,193,025,267
건물	311,884,724,251	311,005,925,491	109,616,130,56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4,567,440,071)	(30,129,508,411)	(7,923,439,450)
건물손상차손누계액	(24,807,563,232)	(24,807,563,232)	
건물정보보조금			(5,566,760,774)
구축물	36,477,401,018	36,480,901,018	29,886,150,056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4,721,369,799)	(4,308,848,658)	(1,980,761,994)
구축물손상차손누계액	(16,511,335,661)	(16,513,114,023)	
구축물정보보조금	(176,483,755)	(182,366,255)	
기계장치	763,264,441,654	761,824,422,068	479,985,583,615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62,219,024,605)	(144,946,724,293)	(33,617,533,431)
기계장치손상차손누계액	(306,202,968,737)	(306,202,968,737)	
기계장치정보보조금	(1,198,886,679)	(1,235,253,071)	
차량운반구	386,654,323	390,271,560	825,924,413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229,632,034)	(230,306,510)	(470,583,871)
차량운반구손상차손누계액	(73,863,747)	(73,863,747)	
공기구	11,009,783,484	11,793,937,727	6,418,566,556
공기구감가상각누계액	(5,583,406,749)	(5,586,490,536)	(4,550,596,328)
공기구손상차손누계액	(2,066,873,896)	(2,070,384,489)	(143,189,952)
비품	30,690,509,909	31,233,520,444	14,636,824,022
비품감가상각누계액	(20,230,085,747)	(18,987,647,519)	(9,310,340,409)
비품손상차손누계액	(825,189,952)	(825,189,952)	(69,565,396)
비품정보보조금			(52,017,328)
금융리스비품	1,512,223,504	1,512,223,504	814,512,504
금융리스비품감가상각누계액	(747,937,239)	(495,899,988)	(65,598,931)
건설중인유형자산	115,728,134,234	143,764,524,728	94,390,536,033
건설중인유형자산손상차손누계액	(65,791,752,587)	(79,198,572,287)	(3,202,509,313)
기타유형자산	6,915,866,711	7,091,685,264	15,448,930,302
기타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3,654,159,602)	(3,011,389,715)	(7,038,048,116)
기타유형자산손상차손누계액	(1,965,882,570)	(2,523,922,839)	
투자부동산	1,938,511,800	1,938,511,800	2,493,407,125
토지	1,938,511,800	1,938,511,800	2,493,407,125
무형자산	13,906,287,285	15,650,145,357	279,990,706,223
영업권	1,574,760,487	4,879,704,358	277,489,443,505
영업권손상차손누계액		(3,304,943,871)	(11,708,690,086)
산업재산권	943,984,634	930,828,825	714,681,010
산업재산권감가상각누계액	(672,894,496)	(585,600,020)	(414,718,149)
산업재산권손상차손누계액	(2,000,000)	(2,000,000)	
개발비	7,598,106,892	8,098,773,221	7,287,936,944

개발비감가상각누계액	(5,278,121,006)	(4,998,981,071)	(2,721,786,021)
개발비손상차손누계액	(378,230,000)	(378,230,000)	(1,744,862,087)
개발비정보부조금	(419,545,142)	(489,469,340)	(629,317,736)
소프트웨어	9,267,414,363	10,150,125,865	8,994,448,764
소프트웨어감가상각누계액	(4,721,540,635)	(4,632,533,009)	(4,104,842,062)
소프트웨어손상차손누계액	(1,339,544,946)	(1,513,572,059)	(4,634,878)
시설이용권	7,564,508,417	7,564,508,417	3,989,901,430
시설이용권손상차손누계액	(1,521,859,160)	(1,521,859,160)	
금융리스소프트웨어	835,424,178	835,424,178	835,424,178
금융리스소프트웨어감가상각누계액	(383,585,149)	(347,426,742)	(180,341,906)
금융리스소프트웨어손상차손누계액	(276,784,878)	(276,784,878)	
기타무형자산	2,147,638,700	2,182,408,700	2,803,424,618
기타무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273,013,930)	(1,144,081,191)	(1,176,834,301)
기타무형자산손상차손누계액	(9,944,219)	(9,944,219)	
건설중인무형자산	411,475,056	458,837,000	561,473,000
건설중인무형자산손상차손누계액	(159,961,881)	(245,039,64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020,636,314,172	764,525,562,068	
자산총계	2,819,972,258,588	2,757,220,050,634	3,791,477,187,315
부채			
유동부채	1,526,577,595,952	2,902,554,532,710	1,862,731,566,332
기타유동금융부채	2,501,595,969	2,891,314,526	12,803,259,382
위험회피파생상품부채	45,541,622		10,331,541,900
유동성금융보증계약부채	2,456,054,347	2,891,314,526	1,851,101,554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620,615,92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1,725,607,997	366,911,171,294	458,521,800,361
매입채무	68,522,263,892	200,585,013,282	230,745,299,127
미지급금	36,532,660,877	77,241,722,247	188,241,631,157
미지급비용	84,536,787,028	78,635,048,865	37,492,990,030
단기예수보증금	12,133,896,200	10,449,386,900	2,041,880,047
단기차입금	140,108,389,605	581,135,417,541	571,263,194,509
자산유동화채무	2,000,000,000	20,000,000,000	
유동성사채	164,892,904,301	753,168,569,031	389,578,807,213
유동성사채	68,982,000,000	648,764,972,843	195,000,000,000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85,744,821)		(280,764,540)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97,612,080,000	97,612,080,000	165,850,960,000
유동성신주인수권상환할증금	10,746,601,948	10,746,601,948	24,505,652,484
유동성신주인수권할인발행차금	(1,157,727,698)	(1,306,920,120)	(481,478,337)
유동성신주인수권조정	(11,204,305,128)	(12,648,165,640)	(4,967,027,801)
유동성전환사채		10,000,000,000	10,000,000,000
유동성전환사채상환할증금			550,480,000
유동성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55,520,467)
유동성전환사채전환권조정			(543,494,126)
유동성장기차입금	464,004,637,880	572,411,238,519	177,007,178,260
당기법인세부채	1,183,401,130	12,539,126,025	1,866,274,867

유동성충당부채	56,104,440,135	55,959,983,503	2,037,991,681
유동성반품충당부채	356,399,375	425,697,813	490,035,543
유동성소송충당부채	39,523,590,000	39,523,590,000	
유동성금융보증충당부채	16,224,450,760	16,010,695,690	
유동성하자보수충당부채			1,547,956,138
기타유동부채	155,529,657,460	535,875,046,021	248,972,228,954
선수금	135,808,053,109	517,271,898,704	170,188,622,230
예수부가가치세	3,285,068,394	2,306,036,673	9,383,683
예수금	2,592,661,564	1,494,077,139	4,215,021,027
선수수익	1,150,238,147	1,479,936,585	6,181,109,903
정부보조금관련부채	12,693,636,246	13,323,096,920	2,150,718,691
미지급배당금			2,728,387,428
초과청구공사			63,498,985,992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083,852,070	1,662,666,250	680,831,105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083,852,070	1,662,666,250	727,083,000
유동성금융리스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46,251,895)
유동성회생채무	337,443,109,405		
유동성회생채무	347,414,505,228		
유동성회생채무현재가치할인차금	(9,971,395,823)		
비유동부채	398,408,634,099	316,658,363,705	1,061,351,421,53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212,702,987	4,585,436,567	31,396,940,432
위험회피파생상품부채		83,282,979	19,885,370,752
장기금융보증계약부채	3,212,702,987	4,502,153,588	11,354,602,768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156,966,912
장기매입채무및기타장기채무	15,753,479,830	15,079,142,314	39,028,763,630
장기미지급금	1,948,744,000	1,549,424,000	982,904,000
예수보증금	13,803,967,160	11,159,323,709	42,152,563,044
예수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4,107,472,084)
장기미지급비용	768,670	2,370,394,605	768,670
자산유동화채무	333,333,336		
장기차입금	55,462,189,685	182,234,433,252	537,503,161,588
장기차입금	55,462,189,685	182,234,433,252	540,932,630,123
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3,429,468,535)
사채		64,146,858,334	294,180,458,145
일반사채		64,266,000,000	295,000,000,000
일반사채할인발행차금		(119,141,666)	(819,541,855)
퇴직급여부채	14,252,641,895	14,348,672,298	27,883,178,134
확정급여채무	20,902,356,313	22,230,015,971	45,299,034,355
사외적립자산	(6,649,714,418)	(7,881,343,673)	(17,415,856,221)
이연법인세부채	15,089,648,699	15,213,256,382	12,102,100,272
총당부채	18,415,448,575	19,534,032,974	21,687,802,717
하자보수충당부채			20,564,154,225
판매보증충당부채		398,766,861	1,042,131,332
금융보증충당부채	18,415,448,575	19,135,266,113	

복구충당부채			81,517,160
기타비유동부채	2,102,022,622	1,516,531,584	96,921,051,004
장기선수수익	2,102,022,622	1,516,531,584	4,107,472,084
장기선수금			92,813,578,920
금융리스부채	273,787,166,470		647,965,608
금융리스부채	325,596,123,984		686,312,750
금융리스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51,808,957,514)		(38,347,142)
매각예정비유동부채	619,354,288,854	111,666,514,393	
부채총계	2,544,340,518,905	3,330,879,410,808	2,924,082,987,862
자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89,154,244,590	(513,033,959,940)	762,650,849,097
자본금	23,501,983,000	32,386,259,000	32,386,218,000
보통주자본금	23,501,983,000	32,386,259,000	32,386,218,000
자본잉여금	949,483,190,363	847,331,094,719	845,059,705,405
주식발행초과금	626,484,516,650	801,451,625,714	801,451,008,348
기타자본잉여금	322,998,673,713	45,879,469,005	43,608,697,05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788,613,351	3,588,612,422	(30,565,006,47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1,940,416	19,919,036	7,807,048,397
지분법자본변동		3,694,205,258	2,759,805,936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184,020,443)	(125,511,872)	(14,360,441,245)
부의지분법자본변동	3,950,693,378		(27,280,613,978)
해외사업환산이익			509,194,414
기타자본구성요소	(1,985,842,314)	(25,220,571,604)	(26,628,328,140)
자기주식	(2,135,921,312)	(32,038,918,626)	(32,038,918,626)
주식선택권		6,818,347,022	5,410,590,486
출자전환채무	150,078,998		
결손금	(786,570,892,126)	(1,353,275,901,580)	(57,601,739,692)
미처리결손금	(786,570,892,126)	(1,353,275,901,580)	(57,601,739,692)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자본	937,192,316	(17,843,452,897)	
비지배지분	86,477,495,093	(60,625,400,234)	104,743,350,356
자본총계	275,631,739,683	(573,659,360,174)	867,394,199,453
자본과부채총계	2,819,972,258,588	2,757,220,050,634	3,791,477,187,315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31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0 기 반기 2012.01.01 부터 2012.06.30 까지

제 30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29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제 31 기 반기		제 30 기 반기		제 30 기	제 29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100,158,387,684	200,318,622,121	235,445,737,668	475,998,984,458	702,023,022,581	1,030,431,056,834
매출원가	83,770,988,118	177,183,978,329	318,299,109,273	577,100,260,679	842,646,911,873	841,752,717,024
매출총이익	16,387,399,566	23,134,643,792	(82,853,371,605)	(101,101,276,221)	(140,623,889,292)	188,678,339,810

판매비와관리비	22,795,152,720	37,073,907,014	18,947,476,161	36,700,964,174	103,104,048,699	64,979,665,646
급여	4,028,911,595	9,391,861,063	5,747,395,012	11,876,548,094	19,814,193,349	19,310,896,570
퇴직급여	379,064,722	951,426,096	576,612,215	1,140,782,967	2,727,464,076	1,775,564,790
복리후생비	1,314,578,418	2,540,347,740	2,331,327,945	4,330,197,442	6,100,549,401	6,957,156,251
판매촉진비	37,169,413	116,284,995	118,914,492	127,445,390	293,423,391	178,479,130
해외시장개척비			650,909	650,909	832,728	6,035,953
광고선전비	444,017,043	534,442,480	274,342,654	727,098,680	1,334,417,185	1,077,208,936
포장운반비	168,439,355	323,463,951	456,471,171	996,984,120	516,469,138	1,182,377,163
통신비	63,723,692	181,800,922	46,272,837	100,421,845	770,853,460	891,580,697
임차료	151,425,860	397,155,078	653,546,016	1,380,879,683	2,598,892,140	2,959,371,893
수도광열비	784,860,348	1,763,740,536	27,874,929	153,433,223	1,042,111,347	148,640,505
차량유지비	6,916,274	22,169,975	53,938,492	154,543,622	127,437,627	204,253,555
세금과공과	356,175,168	986,552,614	655,440,491	1,283,876,973	2,728,106,393	2,024,185,379
지급수수료	625,390,330	1,339,702,428	4,037,779,110	4,657,687,322	8,739,136,319	10,287,642,153
여비교통비	271,857,507	556,372,964	587,825,550	1,152,444,371	1,541,809,323	2,038,800,147
교육훈련비	35,206,079	53,135,037	305,906,108	667,302,851	769,415,298	1,217,553,460
용역비	211,797,244	441,464,740	872,192,753	2,193,339,607	1,528,640,267	2,586,858,512
도서인쇄비	14,804,139	37,932,248	35,699,813	59,616,019	108,814,862	153,008,151
소모품비	266,420,912	815,796,420	121,580,584	224,714,906	553,829,983	151,311,908
회의비	71,477,027	141,822,700	144,936,529	270,345,908	425,004,482	542,209,851
건본비	7,951,526	16,429,538	65,785,267	100,044,743	12,705,820	136,889,453
접대비	90,846,336	148,081,573	319,517,436	561,938,238	920,540,434	1,294,468,051
보험료	99,415,574	189,356,810	120,921,974	209,404,990	380,113,824	256,992,799
감가상각비	1,709,936,494	3,482,101,276	239,616,784	1,086,994,901	3,442,306,883	2,306,240,485
무형자산상각비	422,484,781	916,857,217	624,126,227	1,262,185,013	1,871,393,036	1,889,244,655
수선비	144,039,171	411,195,549	36,215,975	52,395,022	168,539,488	773,795,533
연구비		27,081,665	59,872,450	104,080,518	272,377,475	266,594,885
경상개발비			80,218,909	94,786,909		
판매보증비용			51,960,024	75,622,025	146,794,675	783,556,529
주식보상비용	72,938,646	174,170,191	259,966,365	1,571,921,473	1,651,249,274	1,906,897,172
A/S비용		17,629,739				
매출채권손상차손		988,650,068				279,874,062
조업도손실	10,026,654,998	10,026,654,998			34,556,336,343	
기타의판매비와관리비		80,226,403	40,567,140	83,276,410	147,346,674	125,304,445
판매수수료					582,190,890	486,165,607
소비자보상비						96,046,000
매출채권손상차손	988,650,068				7,230,753,114	684,460,966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영업이익(손실)	(6,407,753,154)	(13,939,263,222)	(101,800,847,766)	(137,802,240,395)	(243,727,937,991)	123,698,674,164
기타수익	7,965,745,770	751,471,740,443	(91,204,001)	6,520,877,383	8,100,498,085	8,297,693,402
유형자산처분이익	7,224,454,340	8,691,840,223			24,232,414	25,048,138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27,763,705,760	27,810,753,565	22,914,132	48,864,382	95,125,946	
지분법이익	(2,784,061,847)					
관계기업주식등처분이익	(36,820,044,734)	460,876,152,906			75,560,563	
외환차익	1,408,815,020	1,219,982,955	2,193,174,631	5,105,817,202	876,184,033	5,630,734,673
외화환산이익	6,220,685,755	1,513,375,479	(2,397,368,224)	309,841,138	2,454,974,067	183,596,621
잡이익		2,690,486,089	90,075,460	1,056,354,661	1,700,047,186	1,708,313,970
채무면제이익	4,952,191,476	248,669,149,226				750,000,000
부의영업권환입					2,874,373,876	

기타비용	17,754,286,434	28,145,209,344	4,102,128,171	15,526,902,486	1,064,116,542,923	21,469,975,758
유형자산처분손실	6,514,685,512	6,514,685,512	726,167	10,998,584	15,432,020	
무형자산처분손실	3,492,804	3,492,804			58,043,187	
재고자산폐기손실	32,279,408	32,279,408	327,786,805	361,830,803	50,689,396	5,533,278
기타채권손상차손		7,129,979,519	3,782,206	5,222,255	452,133,465,764	
관계기업주식등처분손실				438,739,242	179,318,773,710	11,108,232,214
외환차손	1,167,296,716	1,167,296,716	1,927,745,828	3,824,984,445	1,472,932,346	2,524,670,397
외화환산손실	9,835,476,486	9,835,476,486	507,230,438	741,730,228	273,514,353	2,274,241,177
유형자산손상차손	8,043,609	8,043,609			359,437,354,065	69,565,396
무형자산손상차손					6,788,424,677	1,369,995,380
투자부동산처분손실						246,833,333
기부금	1,712,000	10,598,750	4,156,000	12,293,500	21,137,500	94,115,000
잡손실	191,299,899	3,443,356,540	1,330,700,727	10,131,103,429	64,546,775,905	3,776,789,583
금융수익	4,488,690,608	11,956,550,974	3,811,648,832	20,676,149,906	25,679,907,182	14,326,914,427
이자수익	2,574,658,733	9,864,726,562	1,280,080,883	5,503,925,999	8,591,711,149	8,006,672,821
배당금수익		30,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금융보증수익	1,912,155,598	1,912,155,598	2,081,749,668	6,759,423,193	14,275,681,890	4,791,721,606
파생상품거래이익	1,876,277	30,401,861	449,818,281	1,886,629,457	2,567,065,450	1,510,520,000
파생상품평가이익		119,266,953		6,508,171,257	227,448,693	
금융원가	53,498,512,572	84,955,591,887	32,780,112,445	65,947,214,188	172,205,503,345	99,262,189,527
이자비용	53,175,530,246	84,492,542,189	25,842,855,657	50,726,557,396	97,800,299,944	82,355,673,635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9,919,752	310,849,098	464,160,981	464,160,981	
파생상품거래손실	49,539,624	130,660,964	3,880,433,814	2,195,542,248	9,824,564,148	170,630,000
파생상품평가손실	273,442,702	322,468,982	47,549,292	97,549,292	566,814,058	2,567,065,450
기타금융상품처분손실			8,780	8,780		
사채상환손실			9,456,899	1,367,121,518		2,252,068,302
금융보증비용			2,688,958,905	11,096,273,973	15,984,856,669	7,616,007,671
차입금상환손실						4,300,744,469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12,418,845,742	
금융보증손실					35,145,961,80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65,206,115,782)	636,388,226,964	(134,962,643,551)	(192,079,329,780)	(1,446,269,578,992)	25,591,116,708
법인세비용	2,279,325,986	123,421,249,459	(20,454,057,704)	(17,472,139,840)	(154,818,189,436)	2,862,755,533
계속사업이익(손실)	(67,485,441,768)	512,966,977,505	(114,508,585,847)	(174,607,189,940)	(1,291,451,389,556)	22,728,361,175
중단사업손실	6,188,294,812	3,624,137,706	68,265,774,529	99,522,858,384	(296,785,551,432)	(184,069,833,726)
당기순이익(손실)	(61,297,146,956)	516,591,115,211	(46,242,811,318)	(75,084,331,556)	(1,588,236,940,988)	(161,341,472,55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4,548,185,807)	566,396,524,026	(28,325,094,221)	(33,646,889,075)	(1,285,908,821,539)	(146,184,748,842)
비지배지분	(36,748,961,149)	(49,805,408,815)	(17,917,717,097)	(41,437,442,481)	(302,328,119,449)	(15,156,723,709)
기타포괄손익	3,821,815,930	3,845,346,042	(2,364,217,327)	1,245,983,362	28,823,390,992	(46,135,564,24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2,234,222,382	648,892,400	543,664,528	803,807,627		
부의지분법자본변동			26,162,624	33,223,543	9,330,077,275	(26,717,959,376)
지분법자본변동	111,476,188		(113,261,907)	(169,764,656)	2,297,218,869	2,354,935,359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364,449)	(364,449)				
보험수리적손실	2,123,110,643	649,256,849	630,763,811	940,348,740	(2,539,226,363)	(3,107,697,32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587,593,548	3,196,453,642	(2,907,881,855)	442,175,735		
해외사업환산손익	1,582,608,324	3,058,995,886	193,539,506	(53,672,876)	(509,194,414)	537,178,309
파생상품평가이익	6,200,163	134,866,244	(3,250,561,898)	284,080,727	28,051,564,02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214,939)	2,591,512	149,140,537	211,767,884		8,110,598,79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7,807,048,397)	
파생상품평가손실						(27,312,620,002)
총포괄이익(손실)	(57,475,331,026)	520,436,461,253	(48,607,028,645)	(73,838,348,194)	(1,559,413,549,996)	(207,477,036,794)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2,299,908,530)	568,403,069,628	(28,901,783,149)	(31,969,795,944)	(1,270,658,388,524)	(178,203,957,677)
비지배지분	(35,175,422,496)	(47,966,608,375)	(19,705,245,496)	(41,868,552,250)	(288,755,161,472)	(29,273,079,117)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795)	15,130	(811)	(1,316)	(22,546)	(2,563)
기본주당계속사업손익	(1,976)	15,023	(2,008)	(3,061)	(16,262)	500
희석주당이익(손실)	(1,795)	15,130	(811)	(1,316)	(22,546)	(2,563)
희석주당계속사업손익	(1,976)	15,023	(2,008)	(3,061)	(16,262)	500

연결 자본변동표

제 31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0 기 반기 2012.01.01 부터 2012.06.30 까지

제 30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29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결손금)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2011.01.01 (기초자본)	32,382,423,500	843,650,579,200	(1,274,914,473)	(28,335,263,852)	91,312,125,982		131,716,036,008	1,069,450,986,365
당기손실					(146,184,748,842)		(15,156,723,709)	(161,341,472,551)
지분법자본변동			2,360,801,023				(5,865,664)	2,354,935,359
무의지분법자본변동			(26,195,960,270)				(521,999,106)	(26,717,959,37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7,685,081,395				425,517,400	8,110,598,795
파생상품평가이익								
해외사업환산이익			509,194,414				27,983,895	537,178,309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보험수리적손실					(2,729,116,832)		(378,580,496)	(3,107,697,328)
주식보상원가의 인식				1,706,935,712				1,706,935,712
무상감자								
출자전환								
주식선택권의 소멸								
기타								
연결실체의 변동								
파생상품평가손실			(13,649,208,565)				(13,663,411,437)	(27,312,620,002)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 자본의 분류								
자본잉여금의 증가								
연결대상변동효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유상증자(신주인수권 의 행사)	3,794,500	65,905,043						69,699,543
종속기업 자본변동 등		1,343,221,162					2,300,393,465	3,643,614,627
2011.12.31 (기말자본)	32,386,218,000	845,049,705,405	(30,565,006,476)	(26,628,328,140)	(57,601,739,692)		104,743,350,356	867,394,199,453
2012.01.01 (기초자본)	32,386,218,000	845,049,705,405	(30,565,006,476)	(26,628,328,140)	(57,601,739,692)		104,743,350,356	867,394,199,453
당기순손실					1,285,908,821,539		(302,328,119,449)	(1,588,236,940,988)
지분법자본변동			2,297,218,869					2,297,218,869
무의지분법자본변동			9,330,077,275					9,330,077,27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이익			(7,807,048,397)					(7,807,048,397)
파생상품평가이익			14,360,441,245				13,691,122,777	28,501,564,022
해외사업환산이익			(509,194,414)					(509,194,414)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보험수리적손실					(2,421,061,563)		(118,164,800)	
주식보상원가의 인식				1,407,756,536			272,182,929	1,679,939,465
무상감자								
출자전환								
주식선택권의 소멸								
기타								
연결실체의 변동								
파생상품평가손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권 원자본의 분류			17,950,536,703			(17,950,536,703)		
자본잉여금의 증가								
연결대상변동효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유상증자(신주인수권 의 행사)	41,000	613,400						654,400
종속기업 자본변동 등		123,307,925					14,197,238,950	14,320,546,875
2012.12.31 (기말자본)	32,386,259,000	845,183,626,730	5,057,024,805	(25,220,571,604)	(1,345,931,622,794)	(17,950,536,703)	(169,542,389,237)	(573,659,360,174)
2012.01.01 (기초자본)	32,386,218,000	845,049,705,405	(32,449,590,556)	(26,628,328,140)	(57,795,609,367)		328,573,338,945	1,091,225,818,712
당기순손실					(33,646,889,075)		(41,437,442,481)	(75,084,331,556)
지분법자본변동			(171,495,411)				1,730,755	(169,764,656)
무의지분법자본변동			33,223,543					33,223,54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이익			193,691,481				18,076,403	211,767,884
파생상품평가이익								
해외사업환산이익			(33,656,706)	(8,426,478)			(11,589,692)	(53,672,876)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보험수리적손실					1,316,093,983		(375,745,243)	940,348,740
주식보상원가의 인식				620,709,756			(126,126,661)	494,583,095
무상감자								
출자전환								
주식선택권의 소멸								
기타			17,800,865,664	(17,800,865,664)				
연결실체의 변동							(17,589,283)	(17,589,283)
파생상품평가손실			347,662,719				(63,581,992)	284,080,727
매각예정비유동자산권 원자본의 분류								
자본잉여금의 증가								

연결대상변동효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9,839,976)	(9,839,976)
유상증자(신주인수권 의 행사)	41,000	614,272						655,272
종속기업 자본변동 등		141,738,616					22,894,235,822	23,035,974,438
2012.06.30 (기말자본)	32,386,259,000	847,282,142,718	(14,279,299,266)	(43,816,910,526)	(90,126,404,459)		309,445,466,597	1,040,891,254,064
2013.01.01 (기초자본)	32,386,259,000	847,331,094,719	3,588,612,422	(43,064,024,501)	(1,353,275,901,580)		(60,625,400,234)	(573,659,360,174)
당기순손실					566,396,524,026		(49,805,408,815)	516,591,115,211
지분법자본변동			118,654,482	(118,654,482)				
부의지분법자본변동			(17,800,865,664)	17,800,865,66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이익			(2,127,257)				4,718,769	2,591,512
파생상품평가이익			195,956,787	75,493,638			(136,584,181)	134,866,244
해외사업환산이익			1,946,700,233	1,023,108,462			89,187,191	3,058,995,886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196,380)	(168,069)				(364,449)
보험수리적손실			240,636,320		308,485,392		100,135,137	649,256,849
주식보상원가의 인식							243,162,596	243,162,596
무상감자	(300,203,855,000)	270,300,857,686		29,902,997,314				
출자전환	291,319,579,000	(174,958,780,765)		150,078,998				116,360,798,235
주식선택권의 소멸		6,818,347,022		(6,818,347,022)				
기타			15,501,242,408				196,617,037,230	212,118,279,638
연결실체의 변동					36		(9,352,600)	(9,352,564)
파생상품평가손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권 현자본의 분류								
자본잉여금의 증가								
연결대상변동효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유상증자(신주인수권 의 행사)								
종속기업 자본변동 등								
2013.06.30 (기말자본)	23,501,983,000	949,482,190,363	3,788,613,351	(1,048,649,998)	(786,570,892,126)		86,477,495,093	275,631,739,683

연결 현금흐름표

제 31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0 기 반기 2012.01.01 부터 2012.06.30 까지

제 30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29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제 31 기 반기	제 30 기 반기	제 30 기	제 29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92,261,231,349	62,201,985,935	80,314,406,472	141,198,679,514
당기순손실	516,591,115,211	(75,084,331,556)	(1,588,236,940,988)	(161,341,472,551)
조정	(485,608,466,212)	78,996,392,750	1,556,898,080,638	277,577,803,918
법인세비용(수익)	123,171,164,459	(17,472,139,840)	(65,932,763,733)	(47,461,448,407)
이자비용	84,492,542,189	53,212,888,521	134,100,609,664	120,758,151,577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9,919,752	464,169,761	749,809,944	
금융보증비용		11,096,273,973	15,984,856,669	7,616,007,671
이자수익	9,864,726,562	(5,503,925,999)	(16,359,228,288)	(21,508,909,169)
배당금수익	(30,000,000)	(22,991,269,200)	(23,157,182,300)	(231,783,450)
금융보증수익		(6,759,423,193)	(21,666,556,957)	(7,743,948,385)
감가상각비	25,373,438,248	37,381,583,561	38,059,030,509	35,103,400,012
무형자산상각비	1,283,424,011	1,641,956,895	3,219,235,309	3,020,024,823
퇴직급여	913,391,802	3,810,593,456	12,123,927,552	10,013,380,579
지분법손실		2,705,679,348	111,045,825,139	2,715,690,877
외화환산손실	9,835,476,486	691,820,056	1,476,385,911	2,301,010,232
매출채권및기타채권손상차손	8,118,629,587	5,222,255		
유형자산처분손실	6,514,685,512	10,998,584	15,432,020	35,593,670
주식보상비용	174,170,191	1,667,508,749	1,598,047,199	2,338,726,979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438,739,242	180,636,769,570	11,108,232,214
재고자산폐기손실	32,279,408			
재고자산평가손실		9,746,959,350	21,592,198,068	6,136,754,736
파생상품평가손실	322,468,982	97,549,292	566,814,058	2,567,065,450
파생상품거래손실	130,660,964	1,997,015,651	9,824,564,148	170,630,000
기타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3,492,804	15,639,924,999	417,712,008	3,041,751,695
외화환산이익	(1,513,375,479)	(268,653,767)	(3,758,214,147)	(241,374,338)
매출채권및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26,822,103,497)	(48,864,382)		
지분법이익	(3,560,353,720)		(1,510,434,379)	(76,519,752,195)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22,870,789)	(3,529,411,645)	
유형자산처분이익	(8,691,840,223)		(26,050,596)	(598,426,316)
채무면제이익	(248,669,149,226)			
파생상품거래이익	(30,401,861)	(1,267,172,516)	(2,567,065,450)	
파생상품평가이익	(119,266,953)	(6,508,171,257)	(227,448,693)	(1,510,520,000)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460,876,152,906)		(75,560,563)	
중단사업이익	(3,624,137,706)			
기타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1,912,155,598)	(670,000,000)	(557,515,586)	(765,830,452)
매출채권손상차손			212,339,321,866	101,277,243,245
기타채권손상차손			452,133,465,764	96,103,111,845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4,575,818,606	10,325,570,969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95,125,946)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12,511,598,679	5,000,000,000
금융보증손실			35,145,961,803	
차입금상환손실				4,300,744,469
사채상환손실				2,252,068,302
무형자산 손상차손			6,788,424,677	7,396,775,916
유형자산손상차손			359,437,354,065	69,565,396
투자부동산처분손실				511,604,763
관계기업주식등손상차손			50,792,283,587	
잡손실			41,237,171,901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7,137,605,919)	(3,308,790)
부의영업권환입			(2,874,373,876)	
운전자본의 변동	72,805,255,915	14,566,479,248	87,627,650,082	2,484,774,177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9,342,765,393	(12,707,244,979)	(108,814,348,072)	(51,303,987,501)
미수금의 감소(증가)	65,455,694,374	4,733,187,284	(24,413,361,753)	58,155,707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26,003,242,264)	(22,110,003,445)	(1,545,647,216)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10,691,117,590)	5,483,507,092	(2,586,254,612)	(544,438,136)
선급금의 감소(증가)	28,258,044,343	(6,531,479,773)	3,760,828,485	(981,030,486)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405,772,366	(1,772,669,568)	570,215,991	(314,623,895)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40,373,025,312	(3,554,062,500)	99,336,617,495	(114,619,024,399)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7,579,911,246	85,652,700,775	153,349,228,377	(13,041,478,625)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29,488,131,800)	(86,808,964,109)	(30,766,701,107)	121,267,670,901
장기미지급금의 증가(감소)		4,197,371,000	4,005,371,000	(16,265,159,668)
금융리스채권의감소(증가)	264,550,000			
금융리스부채의증가(감소)	(362,394,180)			
선수금의 증가(감소)	(28,143,130,342)	(12,160,435,065)	(95,988,094,597)	72,849,823,175
장기선수금의 증가(감소)		3,140,680,668	21,114,571,012	
예수금의 증가(감소)	1,113,617,705	2,875,901,634	3,155,444,933	2,730,153,106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17,584,293,375)	(3,021,553,662)	14,664,913,149	(13,152,003,371)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77,892,717,259	90,078,424,122	37,578,230,651
하자보수충당부채의 증가(감소)		(5,770,053,395)	(6,410,846,383)	(9,225,019,491)
퇴직급여부채의 지급	(3,348,345,895)	(4,679,150,050)	(12,580,425,983)	(3,252,198,836)
퇴직급여부채의 관계사 전입	12,097,110	850,301,944	823,280,902	320,246,141
사외적립자산의 납입	(35,000,000)	(1,400,000,000)	(2,020,623,039)	(1,727,957,984)
회생채무증가	(2,018,715,183)			
기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1,670,906,431	(5,851,033,043)	2,459,413,607	(6,346,935,896)
법인세의 납부	(11,526,673,565)	17,391,057,773	(2,306,770,980)	(7,746,475,450)
관계기업등의 배당금 수취		26,332,387,720	26,332,387,720	30,224,049,420
투자활동현금흐름	669,973,463,893	(71,267,427,579)	(420,204,249,094)	(202,627,215,344)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1,447,804,657,632	52,832,854,843	72,325,274,509	183,668,136,554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4,386,018,000	4,414,102,650	2,112,000,000
단기대여금의 회수	52,061,917	63,624,437,494	102,261,918,838	224,162,157,018
이자의 수취	(39,364,890,081)	9,056,120,110	22,553,749,043	16,647,022,859
배당금의 수취	30,000,000	183,829,100	183,913,100	231,783,450
보증금의 회수	781,136,757	3,456,483,564	13,172,924,461	23,315,701,07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666,788,206,618	78,410,756,694	108,627,851,012	18,629,048,407
유형자산의 처분	14,520,238,688	3,107,313,822	126,718,721	1,435,060,838
무형자산의 처분	1,360,189,691		1,774,642	72,191,121
정부보조금의 수령	27,106,000	1,442,813,483	177,248,320	3,274,738,213
기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1,349,160	168,688,568	301,937,036	1,086,986,084
파생상품의 정산		(1,645,949,352)	(6,782,845,565)	1,339,890,000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1,156,467,848,473)	(58,039,308,342)	(466,781,657,438)	(132,104,379,628)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5,119,086)	(2,454,329,350)	(2,643,773,991)	(5,125,941,315)
단기대여금의 증가	(91,115,923,794)	(163,750,549,884)	(554,581,833,824)	(367,070,371,195)
종속기업의 추가취득	(169,246,866,54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9,042,040,000)	(39,977,325,000)	(32,589,200,896)
보증금의 증가	(739,418,560)	(906,779,449)	(3,774,729,323)	(10,494,479,299)
유형자산의 취득	(2,981,707,356)	(17,009,245,359)	(53,891,061,578)	(113,818,872,280)

무형자산의 취득	(773,527,133)	(4,014,634,656)	(2,894,423,485)	(3,993,591,554)
기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46,181,544)	(1,073,906,865)	(2,022,670,960)	(155,125,206)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2,910,000
금융보증수익의 수취				1,021,920,412
종속기업주식의 처분			1,310,567,461	
투자부동산의 처분				130,000,000
관계기업주식매각 선수금의 수령			417,011,996,32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12,078,945,330)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20,000,000)
종속회사주식의 취득			188,175,935	
관계기업주식취득 선금금의 지급			(8,907,729,818)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2,305,854,670)
연결실체의 변동에 따른 현금의 감소			(20,604,350,164)	
재무활동동원금흐름	(517,359,933,386)	73,670,868,488	261,364,103,118	2,896,908,122
이자	(12,633,061,440)	(75,187,477,136)	(113,506,185,465)	(109,874,934,446)
단기차입금의 증가	228,476,716,637	742,826,287,498	1,863,708,182,734	1,350,717,759,540
장기미지급금의 증가	399,32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62,811,301,200)	79,160,000,000	78,000,000,000	349,409,272,785
자산유동화채무의 증가	3,000,000,000		40,000,000,000	
사채의 발행		259,158,000,000	259,158,000,000	219,187,716,368
유상증자(신주인수권의 행사)		654,400	654,400	69,618,800
기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914,943,200	114,500,000	212,389,900	25,338,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53,679,451,646)	(536,392,242,783)	(1,386,843,265,800)	(1,389,759,195,121)
자산유동화채무의 상환	(666,666,664)		(20,000,000,000)	
회생담보권의 상환	(427,279,253,840)			
회생채권의 상환	(213,81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189,077,411,734)	(189,077,411,734)	(15,860,908,110)
비지배지분증가		535,691,890		2,129,997,660
물상보증채무의 상환	(62,811,301,200)			
지급보증충당부채의 감소	(21,409,146,751)			
주식발행비용	(8,328,299)			
사채의 상환		(85,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0,844,942,364)	(115,101,402,738)	(121,025,036,634)	(23,482,316,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5,800,000,000)		
기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007,246,000)	(1,565,730,909)	(1,164,122,909)	(714,445,250)
전환사채의 상환				(40,236,534,000)
사채의 상환			(86,235,027,157)	(138,700,000,000)
유동성전환사채의 상환			(61,864,074,217)	(200,014,462,104)
연결실체의 변동에 따른 현금의 증가	1,609,274,966	20,145,5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감소	246,484,036,822	84,750,926,844	(78,525,739,504)	(58,531,627,70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7,724,849,015	222,753,012,141	115,451,995,850	174,676,825,703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6,726,132,554	73,762,580	12,271,745	(693,202,145)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00,935,018,391	307,577,701,565	36,938,528,091	115,451,995,850

재무상태표

제 31 기 반기말 2013.06.30 현재

제 30 기말 2012.12.31 현재

제 29 기말 2011.12.31 현재

(단위 : 원)

	제 31 기 반기말	제 30 기말	제 29 기말
자산			
유동자산	621,188,570,799	570,954,234,646	322,234,233,519
현금및현금성자산	286,824,069,837	14,500,599,161	53,566,806,101
기타유동금융자산	765,000	765,000	14,698,661,736
매도가능금융자산	765,000	765,000	14,697,946,736
만기보유금융자산			715,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30,353,139,245	534,804,958,684	241,574,617,673
금융기관예치금	142,304,589,791	383,756,721,264	2,000,000,000
매출채권	75,386,141,594	186,764,204,189	162,331,117,362
매출채권손상차손누계액	(16,501,165,855)	(101,102,981,455)	(1,534,207,625)
단기대여금	225,649,403,015	430,307,396,688	69,100,000,000
단기대여금손상차손누계액	(164,132,367,941)	(367,330,865,304)	
미수금	85,490,619,428	1,611,169,530	8,300,263,651
미수금손상차손누계액	(21,874,629,077)	(847,084,590)	(67,563,907)
미수수익	14,461,833,282	12,055,696,909	1,445,008,192
미수수익손상차손누계액	(10,431,284,992)	(10,409,298,547)	
미수법인세환급액	392,294,510		
기타유동자산	3,475,952,285	13,110,240,401	6,098,676,612
선급금	4,615,076,211	13,946,315,617	6,086,618,789
선급금손상차손누계액	(1,144,623,926)	(841,575,216)	
선급비용	5,500,000	5,500,000	12,057,823
유동성금융리스채권	104,100,000	112,843,335	158,396,410
유동성금융리스채권	104,100,000	206,100,000	171,269,085
유동성금융리스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9,439,362)	(12,872,675)
유동성금융리스채권손상차손누계액		(83,817,303)	
재고자산	38,249,922	8,424,828,065	6,137,074,987
상품	38,249,922	625,596,114	8,284,919,286
상품평가충당금		(457,583,763)	(2,147,844,299)
제품		1,203,329,360	
반제품		695,564,059	
원재료		6,357,922,295	
비유동자산	252,340,133,433	351,858,933,821	1,663,483,134,47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95,006,257	1,087,715,912	14,551,320,323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549,793,062	942,502,717	2,305,854,670
매도가능금융자산	145,213,195	145,213,195	45,213,195
만기보유금융자산			12,200,252,458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6,477,695,095	3,167,617,995	3,053,831,944
장기금융기관예치금	7,575,000		

장기매출채권	25,878,616,673	7,575,000	11,000,000
장기매출채권손상차손누계액	(3,239,158,133)		
장기보증금	3,830,661,555	3,160,042,995	3,034,498,599
장기미수금			8,333,345
종속기업투자	57,819,501,438	8,120,700,000	823,714,342,370
관계기업투자	115,160,414,432	164,859,215,870	810,203,135,650
이연법인세자산	40,457,453,779	160,936,769,702	
기타비유동자산	27,000,000	27,000,000	27,000,000
금융리스채권	8,675,000	118,558,839	163,570,439
금융리스채권	8,675,000	171,225,000	170,855,220
금융리스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3,772,734)	(7,284,781)
금융리스채권손상차손누계액		(48,893,427)	
유형자산	4,395,030,839	5,235,852,232	4,960,258,858
기계장치	4,236,666	9,429,355	9,429,355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4,235,666)	(9,218,686)	(8,363,991)
공기구	326,000,000	1,201,410,307	1,179,210,307
공기구감가상각누계액	(211,258,333)	(842,337,144)	(603,803,416)
비품	11,278,088,789	11,116,934,000	9,636,947,659
비품감가상각누계액	(7,950,786,882)	(7,569,419,227)	(6,360,099,182)
비품손상차손누계액			(69,565,396)
비품정보보조금			(52,017,328)
금융리스비품	1,512,223,504	1,512,223,504	814,512,504
금융리스비품감가상각누계액	(747,937,239)	(495,899,988)	(65,598,931)
건설중인유형자산	188,700,000	312,730,111	479,607,277
무형자산	7,299,356,593	8,305,503,271	6,809,674,893
산업재산권	874,164,207	861,008,398	648,455,650
산업재산권손상차손누계액	(606,175,687)	(519,122,963)	(350,759,676)
소프트웨어	4,341,320,354	4,803,668,565	3,943,494,495
소프트웨어감가상각누계액	(2,369,394,365)	(2,280,719,116)	(1,211,679,779)
소프트웨어손상차손누계액			(3,363,293)
시설이용권	4,377,410,417	4,377,410,417	2,232,346,796
시설이용권손상차손누계액	(385,109,160)	(385,109,160)	
기타무형자산	3,715,126,041	4,266,660,769	3,909,612,964
기타무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2,877,323,270)	(2,858,513,639)	(1,380,420,177)
기타무형자산손상차손누계액			(1,366,632,087)
건설중인 무형자산	229,338,056	40,220,000	388,620,00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96,069,397,812	603,657,577,812	
자산총계	1,069,598,102,044	1,526,470,746,279	1,985,717,367,996
부채			
유동부채	466,058,127,559	1,923,947,928,994	689,093,384,490
기타유동금융부채	2,556,054,347	2,891,314,526	2,824,468,426
유동성금융보증계약부채	2,556,054,347	2,891,314,526	2,824,468,42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5,995,404,401	205,109,382,062	152,759,725,024
매입채무	17,359,387,933	147,906,489,179	84,736,371,122

미지급금	37,671,595,092	26,440,768,051	41,918,173,920
미지급비용	964,421,376	30,762,124,832	26,105,179,982
단기차입금		427,826,349,748	66,500,005,987
유동성사채		658,764,972,843	348,844,043,390
유동성사채		648,764,972,843	170,000,000,000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280,764,540)
유동성전환사채		10,000,000,000	10,000,000,000
유동성전환사채상환할증금			550,480,000
유동성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55,520,467)
유동성전환사채전환권조정			(543,494,126)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150,850,960,000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할증금			22,287,324,234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할인발행차금			(481,478,337)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조정			(3,483,463,374)
유동성장기차입금		144,986,653,791	109,999,995,936
당기법인세부채	1,183,401,130	12,457,339,545	1,759,663,467
기타유동부채	7,257,044,043	390,326,831,387	6,142,972,523
선수금	4,687,282,615	387,004,458,416	1,403,174,359
미지급배당금			846,000
예수부가가치세	1,628,451,492	2,035,454,201	2,320,353,215
예수금	307,403,380	345,673,952	403,141,970
선수수익	379,608,482	714,052,744	1,965,513,225
정부보조금관련부채	254,298,074	227,192,074	49,943,754
유동성충당부채	60,539,262,163	80,138,838,842	
유동성금융보증충당부채	60,539,262,163	80,138,838,842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083,852,070	1,446,246,250	262,509,737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083,852,070	1,446,246,250	294,243,000
유동성금융리스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31,733,263)
유동성회생채무	337,443,109,405		
유동성회생채무	347,414,505,228		
유동성회생채무현재가치할인차금	(9,971,395,823)		
비유동부채	341,337,345,860	68,815,406,524	435,923,101,389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315,853,671	4,502,153,588	7,276,532,568
금융보증계약부채	3,315,853,671	4,502,153,588	6,439,212,070
위험회피파생부채			837,320,498
장기매입채무및기타장기채무		438,711,500	438,711,500
예수보증금		438,711,500	438,711,500
장기차입금			125,000,000,000
사채			289,275,056,048
사채			290,0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724,943,952)
퇴직급여부채	10,166,079,631	10,706,426,132	9,177,769,942
확정급여채무	13,317,994,986	14,769,650,431	13,437,987,468
사외적립자산	(3,151,915,355)	(4,063,224,299)	(4,260,217,526)

이연법인세부채			3,263,473,807
총당부채	52,049,530,905	53,168,115,304	1,042,131,332
판매보증충당부채		398,766,861	1,042,131,332
금융보증충당부채	52,049,530,905	52,769,348,443	
회생채무	275,805,881,653		
회생채무	327,614,839,167		
회생채무현재가치할인차금	(51,808,957,514)		
금융리스부채			449,426,192
금융리스부채			469,892,750
금융리스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20,466,558)
부채총계	807,395,473,419	1,992,763,335,518	1,125,016,485,879
자본			
자본금	23,501,983,000	32,386,259,000	32,386,218,000
자본잉여금	917,516,669,992	815,364,574,348	815,363,960,948
주식발행초과금	626,484,516,650	801,451,625,714	801,451,008,348
감자차익	270,300,857,686		
기타자본잉여금	20,731,295,656	13,912,948,634	13,912,952,6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53,109,988)
파생상품평가손실			(653,109,988)
기타자본구성요소	(1,985,842,314)	(25,220,571,604)	(26,628,328,140)
자기주식	(2,135,921,312)	(32,038,918,626)	(32,038,918,626)
주식선택권		6,818,347,022	5,410,590,486
출자전환채무	150,078,998		
이익잉여금(결손금)	(676,830,182,053)	(1,288,822,850,983)	40,232,141,297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676,830,182,053)	(1,288,822,850,983)	40,232,141,297
자본총계	262,202,628,625	(466,292,589,239)	860,700,882,117
자본과부채총계	1,069,598,102,044	1,526,470,746,279	1,985,717,367,996

포괄손익계산서

제 31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0 기 반기 2012.01.01 부터 2012.06.30 까지

제 30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29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제 31 기 반기		제 30 기 반기		제 30 기	제 29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37,967,239,634	77,450,956,907	71,702,256,329	169,546,538,237	601,426,041,728	681,278,289,403
제품매출		1,530,159,521			4,816,509,476	1,008,965,065
상품매출	3,890,452,842	12,010,279,769	19,713,740,405	43,354,559,204	390,090,654,116	459,257,732,663
용역매출	34,068,001,823	63,557,173,206	51,467,230,561	98,919,559,022	177,789,217,335	188,674,277,915
관계기업주식등배당금수익				26,332,387,720	26,332,387,720	30,224,049,420
기타매출	8,784,969	353,344,411	521,285,363	940,032,291	2,397,273,081	2,113,264,340
매출원가	27,429,060,403	57,672,179,625	56,190,357,213	114,587,346,560	512,875,510,490	586,807,186,263
제품매출원가		1,327,527,645			3,986,063,138	655,027,394

상품매출원가	3,896,278,112	11,712,461,810	18,062,079,662	39,887,415,739	376,508,025,496	445,382,370,783
용역매출원가	23,527,462,291	44,301,645,689	37,752,962,922	74,070,652,761	131,053,599,067	139,770,550,575
기타매출원가	5,320,000	330,544,481	375,314,629	629,278,060	1,327,822,789	999,237,511
매출총이익	10,538,179,231	19,778,777,282	15,511,899,116	54,959,191,677	88,550,531,238	94,471,103,140
판매비와관리비	4,675,136,235	10,156,898,920	8,481,504,614	15,328,171,934	136,833,480,591	34,810,474,432
급여	428,730,116	1,957,701,169	1,418,629,198	2,947,368,954	8,071,017,515	8,763,500,610
퇴직급여	44,894,273	231,086,164	156,572,727	299,824,261	689,783,148	736,494,143
복리후생비	656,026,614	1,403,320,587	1,502,770,174	2,727,624,039	4,259,911,222	4,627,254,789
판매촉진비	7,022,188	15,199,232	118,514,492	126,605,526	170,704,387	178,479,130
광고선전비	40,644,384	68,771,660	173,726,699	402,106,884	704,843,066	962,108,954
포장운반비		2,637,102	14,191,674	26,490,598	185,243,676	115,534,157
통신비	50,454,247	103,686,846	149,462,150	281,264,130	573,018,853	689,063,174
임차료	181,669,256	439,361,090	468,508,318	919,866,173	1,904,339,387	2,073,654,822
수도광열비	891,250	1,942,275	3,288,315	4,465,487	8,431,662	2,100,732
차량유지비	3,470,124	7,149,946	37,068,392	75,762,586	123,710,469	143,097,488
세금과공과	190,089,271	456,233,085	302,156,529	628,691,410	1,711,308,438	1,454,424,592
지급수수료	777,420,910	1,668,318,297	2,004,075,464	2,405,745,553	10,130,546,726	2,343,716,181
여비교통비	122,141,959	236,145,436	323,547,920	644,287,815	994,318,546	1,156,248,634
교육훈련비	6,370,827	9,460,489	205,349,948	524,027,927	744,191,218	1,014,047,347
용역비	200,598,287	860,296,032	243,961,542	705,126,745	1,185,922,835	2,536,711,837
도서인쇄비	7,924,683	27,781,123	28,233,661	42,069,646	65,395,804	118,132,383
소모품비	13,264,647	28,183,762	21,629,494	47,972,804	88,087,465	107,747,959
회의비	72,491,410	142,818,440	136,595,532	252,261,253	411,558,165	511,631,350
접대비	21,033,980	42,530,980	189,953,196	339,842,108	589,709,885	959,796,514
보험료			43,886,367	67,376,728	183,021,689	168,178,632
감가상각비	137,935,090	327,029,926	273,449,035	515,241,376	1,173,463,059	770,906,444
무형자산상각비	177,051,161	423,304,787	273,312,171	558,680,438	1,384,913,431	1,488,329,313
수선비	22,994,633	95,271,984	51,794,254	64,364,598	82,387,529	33,635,404
연구비		27,081,665	59,872,450	104,080,518	272,377,475	266,594,885
판매보증비용		17,133,280	51,960,024	37,612,025		
주식보상비용			248,627,518	620,709,756	1,407,756,536	1,706,935,712
매출채권손상차손	1,512,016,925	1,564,453,563	803,586	803,586	99,568,882,730	1,004,592,717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20,436,216)	(42,100,990)		
건본비					1,841,000	
판매수수료					146,794,675	877,556,529
영업이익(손실)	5,863,042,996	9,621,878,362	7,030,394,502	39,631,019,743	(48,282,949,353)	59,660,628,708
기타수익	35,993,817	250,221,732,093	102,559,283	146,090,342	346,612,119	446,043,214
유형자산처분이익		1,465,596,682				2,854,959
외환차익	6,741,090	9,645,799	55,446,992	72,174,446	88,617,956	137,776,639
외화환산이익		3,226,740	12,376,912	11,485,340	1,787,692	71,397,147
채무조정이익		248,669,149,226				
잡이익	29,252,727	74,113,646	34,735,379	62,430,556	256,206,471	234,014,469
기타비용	6,154,615,254	12,085,271,222	349,786,342	327,966,266	380,824,301,100	1,808,549,118
유형자산처분손실				74,500	227,068	
기타채권손상차손	6,144,325,482	11,839,131,261	808,063	1,623,670	379,942,197,753	
재고자산폐기손실			50,689,396	50,689,396	50,689,396	5,533,278
외환차손	4,657,898	16,024,200	5,570,584	40,067,396	148,755,125	47,907,306
외화환산손실	5,431,240	10,375,341		43,364,912	72,866,552	1,153,378
기부금			1,000,000	9,137,500	13,937,500	21,465,000
잡손실	200,634	219,740,420	291,718,299	183,008,892	210,518,546	46,096,047

유형자산손상차손						69,565,396
무형자산손상차손					385,109,160	1,369,995,380
무형자산처분손실						246,833,333
금융수익	6,025,047,613	14,812,813,613	6,665,471,925	19,844,718,948	37,847,208,563	21,199,513,062
이자수익	5,261,139,757	12,870,658,015	4,265,014,457	7,655,314,327	18,695,336,710	7,055,782,432
배당금수익		30,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파생상품평가이익				4,724,697,436	227,448,693	
금융보증수익	763,907,856	1,912,155,598	2,400,457,468	7,446,707,185	18,906,423,160	14,125,730,630
금융원가	10,701,084,277	17,538,932,056	22,187,502,143	45,790,931,192	229,867,408,204	69,820,492,563
이자비용	8,708,759,633	15,665,874,365	17,060,323,471	33,312,765,553	66,773,339,360	59,493,639,337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310,849,098	464,160,981	464,160,981	
금융보증비용	1,480,348,036	1,480,348,036	3,100,043,015	12,014,004,658	17,036,210,778	8,074,784,924
파생상품평가손실	511,976,608	392,709,655	1,716,286,559		566,814,058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12,118,695,742	
금융보증손실					132,908,187,285	
사채상환손실						2,252,068,302
관계기업투자손익		497,696,197,640			(858,179,984,338)	
관계기업주식등처분이익		497,696,197,640				
관계기업주식등손상차손					(858,179,984,33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931,615,105)	742,728,418,430	(8,738,862,775)	13,502,931,575	(1,478,960,822,313)	9,677,143,303
법인세비용	501,427,345	(120,537,961,493)	1,363,035,759	(2,089,199,489)	151,002,344,102	(658,529,653)
중단사업손익	(494,563,407)	(10,209,496,285)	2,284,886,120	3,801,638,461		
당기순이익(손실)	(4,924,751,167)	611,980,960,652	(5,090,940,896)	15,215,370,547	(1,327,958,478,211)	9,018,613,650
기타포괄손익	634,645,467	11,708,278	(291,845,936)	(136,727,530)	(443,404,081)	(963,040,812)
보험수리적손실	634,645,467	11,708,278	(311,777,449)	(357,217,599)	(1,096,514,069)	(893,352,787)
파생상품평가이익			19,931,513	220,490,069	653,109,988	194,878,17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264,566,203)
총포괄이익(손실)	(4,290,105,700)	611,992,668,930	(5,382,786,832)	15,078,643,017	(1,328,401,882,292)	8,055,572,838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04)	18,222	(129)	200	(23,283)	158
희석주당이익(손실)	(12)	(299)	40	67	(23,283)	158

자본변동표

제 31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0 기 반기 2012.01.01 부터 2012.06.30 까지

제 30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29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결손금)	자본 합계
2011.01.01 (기초자)	32,382,423,500	815,797,740,853	(583,421,963)	(28,335,263,852)	33,762,080,395	853,023,558,933

본)						
당기순이익(손실)					9,018,613,650	9,018,613,650
보험수리적손실					(893,352,787)	(893,352,787)
파생상품평가손실의 감소			194,878,178			194,878,17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의 감소			(264,566,203)			(264,566,203)
주식보상원가의 인식				1,706,935,712		1,706,935,712
종속기업의 합병		(499,684,948)			(1,655,199,961)	(2,154,884,909)
유상증자(신주인수권 의 행사)	3,794,500	65,905,043				69,699,543
무상감자						
출자전환						
주식선택권소멸						
2011.12.31 (기말자 본)	32,386,218,000	815,363,960,948	(653,109,988)	(26,628,328,140)	40,232,141,297	860,700,882,117
2012.01.01 (기초자 본)	32,386,218,000	815,363,960,948	(653,109,988)	(26,628,328,140)	40,232,141,297	866,700,882,117
당기순이익(손실)					(1,327,958,478,211)	(1,327,958,478,211)
보험수리적손실					(1,096,514,069)	(1,096,514,069)
파생상품평가손실의 감소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의 감소			653,109,988			653,109,988
주식보상원가의 인식				1,407,756,536		1,407,756,536
종속기업의 합병						
유상증자(신주인수권 의 행사)	41,000	613,400				654,400
무상감자						
출자전환						
주식선택권소멸						
2012.12.31 (기말자 본)	32,386,259,000	815,364,574,348		(25,220,571,604)	(1,288,822,850,983)	(466,292,589,239)
2012.01.01 (기초자 본)	32,386,218,000	815,363,960,948	(653,109,988)	(26,628,328,140)	40,232,141,297	860,700,882,117
당기순이익(손실)					15,215,370,547	15,215,370,547
보험수리적손실					(357,217,599)	(357,217,599)
파생상품평가손실의 감소			220,490,069			220,490,06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의 감소						
주식보상원가의 인식				620,709,756		620,709,756
종속기업의 합병						
유상증자(신주인수권 의 행사)	41,000	614,272				655,272
무상감자						
출자전환						
주식선택권소멸						

2012.06.30 (기말자 본)	32,386,259,000	815,364,575,220	(452,551,432)	(26,007,618,384)	55,090,294,245	876,400,890,162
2013.01.01 (기초자 본)	32,386,259,000	815,364,574,348		(25,220,571,604)	(1,288,822,850,983)	(466,292,589,239)
당기순이익(손실)					611,980,960,652	611,980,960,652
보험수리적손실					11,708,278	11,708,278
파생상품평가손실의 감소						
매도가능금융자산평 가이익의 감소						
주식보상원가의 인식						
종속기업의 합병						
유상증자(신주인수권 의 행사)						
무상감자	(300,203,855,000)	270,300,857,686		29,902,997,314		
출자전환	291,319,579,000	(174,967,109,064)		150,078,998		116,502,548,934
주식선택권소멸		6,818,347,022		(6,818,347,022)		
2013.06.30 (기말자 본)	23,501,983,000	917,516,669,992		(1,985,842,314)	(669,187,812,774)	262,202,628,625

현금흐름표

제 31 기 반기 2013.01.01 부터 2013.06.30 까지

제 30 기 반기 2012.01.01 부터 2012.06.30 까지

제 30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29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제 31 기 반기	제 30 기 반기	제 30 기	제 29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2,906,965,923	33,817,309,560	68,820,257,165	69,238,490,608
당기순손실	611,980,960,652	15,215,370,547	(1,327,958,478,211)	9,018,613,650
조정	(588,518,147,805)	6,066,840,703	1,361,676,072,628	31,863,322,332
법인세비용(수익)	121,098,034,403	2,089,199,489	(151,002,344,102)	658,529,653
이자비용	11,642,451,069	33,312,765,553	66,773,339,360	59,493,639,337
금융보증비용	1,480,348,036	12,014,004,658	17,036,210,778	8,074,784,924
이자수익	(13,212,096)	(7,655,314,327)	(18,695,336,710)	(7,055,782,432)
배당금수익		(18,000,000)	(18,000,000)	(18,000,000)
금융보증수익	(1,912,155,598)	(7,446,707,185)	(18,906,423,160)	(14,125,730,630)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42,100,990)		
파생상품평가이익		(4,724,697,436)	(227,448,693)	
관계기업주식등배당금수익		(26,332,387,720)	(26,332,387,720)	(30,224,049,420)
감가상각비	847,191,587	919,566,201	1,906,988,813	1,375,820,883
무형자산상각비	679,489,512	696,365,888	1,482,250,471	1,501,399,686
파생상품평가손실	392,709,655		566,814,058	
퇴직급여	2,104,983,601	2,084,205,111	3,996,285,684	3,465,497,281
주식보상비용		620,709,756	1,407,756,536	1,706,935,712
외화환산손실	10,375,341	43,364,912	72,866,552	1,153,378
매출채권손상차손	11,279,386,441	803,586	99,568,882,730	1,004,592,717

기타채권손상차손	11,706,420,531	1,623,670	379,942,197,753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464,160,981	464,160,981	
유형자산처분손실		74,500	227,068	
재고자산폐기손실		50,689,396	50,689,396	5,533,278
유형자산처분이익	(1,465,596,681)			(2,854,959)
관계기업주식등처분이익	(497,696,197,640)			
채무조정이익	(248,669,149,226)			
외화환산이익	(3,226,740)	(11,485,340)	(1,787,692)	(71,397,147)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12,118,695,742	
금융보증손실			132,908,187,285	
사채상환손실				2,252,068,302
무형자산손상차손			385,109,160	1,369,995,380
유형자산손상차손				69,565,396
무형자산처분손실				246,833,333
재고자산평가손실				2,134,787,660
관계기업등손상차손			858,179,984,338	
잡이익			(846,000)	
운전자본의 변동	1,336,809,971	(11,250,353,491)	11,457,573,728	(804,905,781)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7,149,746,587)	(55,272,766,813)	(37,375,896,425)	(31,208,386,449)
미수금의 감소(증가)	(56,945,214)	99,097,108	31,898,286	934,051,994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10,603,028,239)	167,508,813	(2,813,885,422)	(528,458,213)
미수법인세환급액의 감소(증가)	(392,294,510)			
선급금의 감소(증가)	322,674,589	(9,995,721,810)	599,805,717	33,053,677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295,158,339)	(5,500,000)	5,157,125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9,566,764,759	(2,462,024,141)	(2,088,442,474)	387,090,074
선수금의 증가(감소)	570,644,199	(1,182,853,164)	2,713,464,057	420,140,002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9,307,165,472	85,394,255,705	66,269,301,586	5,124,508,337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1,332,213,094	(23,437,785,798)	(16,142,333,171)	24,534,130,814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17,748,531,364)	(1,541,041,783)	5,325,669,751	1,695,759,017
예수부가가치세의 증가(감소)	(407,002,709)	67,632,021	(284,899,014)	108,005,904
예수금의 증가(감소)	(38,270,572)	(26,700,224)	(57,468,018)	(51,918,258)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334,444,262)	(799,876,670)	(509,497,942)	(156,089,419)
판매보증충당부채의 증가(감소)	(398,766,861)	(362,021,841)	(643,364,471)	(984,450,926)
퇴직급여부채의 지급	(2,645,718,934)	(2,229,714,963)		
퇴직급여부채의 관계사전입	12,097,110	626,818,408	737,484,360	82,071,159
퇴직금의 지급			(3,498,763,092)	(771,612,635)
사외적립자산의 납입			(800,000,000)	(427,957,984)
관계기업주식등 배당금의 수취		26,332,387,720	26,332,387,720	30,224,049,420
법인세의 납부	(11,892,656,895)	(2,546,935,919)	(2,687,298,700)	(1,062,589,013)
투자활동현금흐름	771,287,142,842	(130,492,198,235)	(341,802,604,294)	(103,772,849,067)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1,237,762,128,926		2,000,000,000	162,000,000,000
파생상품자산의 처분		1,590,800,646	1,590,800,64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14,309,814,339	14,309,814,339	14,344,478,031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666,428,849,000			
단기대여금의 회수		62,300,000,000	65,000,000,000	84,800,000,000
장기대여금의 회수		3,333,330	8,333,345	6,666,660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264,550,000	155,598,530	261,312,405	210,471,815
정부보증금의 수취	27,106,000	30,056,246	177,248,320	49,943,754
유형자산의 처분	899,302,952		3,661,620	44,206,343
무형자산의 처분	1,143,609,663			72,191,121
보증금의 회수	25,000,000	784,227,223	422,908,223	3,330,961,063
이자의 수취		3,589,108,635	6,933,063,054	7,325,518,898
배당금의 수취		18,000,000	18,000,000	18,000,000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962,187,692,453)		(417,879,026,264)	(104,000,00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1,842,006,327)	(210,600,000,000)	(416,454,139,661)	(151,100,000,000)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169,246,866,543)		(900,000,000)	(102,828,371,500)
보증금의 증가	(695,618,560)	(902,168,179)	(548,452,619)	(3,552,799,402)
유형자산의 취득	(656,910,854)	(1,388,779,286)	(2,059,868,804)	(1,943,774,931)
무형자산의 취득	(634,308,962)	(382,189,719)	(2,792,079,080)	(1,405,053,941)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5,000,000	198,000,000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2,910,000
금융보증수수료의 수취				1,021,920,412
관계기업주식매각 선수금의 수취			417,010,125,000	
합병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				2,031,895,805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12,078,945,33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5,213,195)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1,575,000)	
파생상품자산의 취득				(2,305,854,670)
관계기업주식취득 선금금의 지급			(8,907,729,818)	
재무활동현금흐름	(511,870,638,089)	136,480,204,944	233,917,245,606	40,774,018,445
단기차입금의 증가		364,497,803,300	725,677,803,300	262,290,004,076
유동화채무의 증가		40,000,000,000	40,000,000,000	
사채의 증가		259,158,000,000		
유상증자(신주인수권의 행사)		654,400	654,400	69,618,800
이자의 지급		(37,793,031,900)	(61,405,652,745)	(43,042,883,460)
단기차입금의 상환		(135,997,809,287)	(354,517,380,237)	(247,189,998,089)
회생채권의 상환	(213,819)			
회생담보권의 상환	(427,279,253,840)			
물상보증채무의 상환	(62,811,301,200)			
지급보증충당부채의 감소	(21,409,146,751)			
유동화채무의 상환		(20,000,000,000)	(40,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89,999,995,936)	(90,013,342,145)	
사채의 상환		(70,000,000,000)	(71,235,027,157)	(90,000,0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173,138,284,234)		
주식발행비용의 발생	(8,328,299)			
금융리스부채의 상환	(362,394,180)	(247,131,399)		
사채의 발행			259,158,000,000	199,187,716,368
예수보증금의 증가				
전환사채의 상환			(173,138,284,234)	
유동성전환사채의 상환				(40,236,534,000)
유동성금융리스부채의 상환			(609,525,576)	(303,905,25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감소	272,323,470,676	39,805,316,269	(39,065,101,523)	6,239,659,986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4,500,599,161	53,566,806,101	53,566,806,101	47,309,698,669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192,133	(1,105,417)	17,447,446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86,824,069,837	93,376,314,503	14,500,599,161	53,566,806,101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기준)

가. 최근 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31기 반기	매 출 채 권	146,283	25,944	17.74%
	대 여 금	183,519	121,607	66.26%
	미 수 금	28,522	25,271	88.60%
	미 수 수 익	12,149	8,093	66.61%
	합 계	370,473	180,915	48.83%
제30기	매 출 채 권	227,466	104,073	45.75%
	대 여 금	341,033	278,057	81.53%
	미 수 금	9,333	3,280	35.15%
	미 수 수 익	12,833	11,163	86.98%
	합 계	590,668	396,573	67.14%
제29기	매 출 채 권	437,912	114,611	26.17%
	대 여 금	371,651	157,763	42.45%
	미 수 금	43,739	9,259	21.17%
	미 수 수 익	20,070	7,435	37.04%
	기 타	102,441	1,173	1.15%
	합 계	975,814	290,240	29.74%

나.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1기 반기	제 30기	제 29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403,049	290,240	103,817
2. 순대손처리액(① - ② ± ③)	-220,811	-138	-10,999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8,246	-138	-11,019
② 상각채권회수액		-	20
③ 기타증감액	-229,057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1,323	106,471	197,380
4. 사업양수로인한 증감액		-	42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80,915	396,573	290,240
------------------	---------	---------	---------

연결실체는 매출채권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고, 기타채권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각각 기타영업비용 및 기타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손상증거가 발생한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 손상증거 (부도채권, 중단거래채권, 1차 패소판결소송관련 채권,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에 의한 채권 등)

2) 손상증거가 없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집합채권 * 대손설정률

- 집합채권: 금융자산 종류, 사업부 및 연체기간(횟수) 기준으로 분류
- 대손설정률: 과거 3년간 기초, 기말 집합채권별 연령분석 및 손상증거가 발생하여 제가 처리한 데이터를 산출하여 연도별/집합채권별 과거 미회수율을 산정함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대여금 및 기타채권의 약정회수기 일기준 연령분석을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채권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1기 반기	제 30기말	제 29기말
30일 이내	63,350	7,635	116,202
30 ~ 60일	20,240	12,095	13,455
60일 이상	62,693	66,579	115,708
합 계	146,283	86,309	245,365

② 기타채권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1기 반기	제 30기말	제 29기말
30일 이내	218,226	39	155,834
30 ~ 60일	478	298	17,471
60일 이상	5,486	15,830	150,242
합 계	224,190	16,166	318,597

연결실체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상각후원가)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연결기준)

가. 재고자산의 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제31기 반기	제30기	제29기
(주)웅진 홀딩스	상 품	38	168	6,137
	제 품	-	1,203	-
	반제품	-	695	-
	부산물	-	-	-
	원재료	-	6,358	-
	저장품	-	-	-
	미착재고자산	-	-	-
	기타재고자산	-	-	-
	소 계	38	8,424	6,137
극동건설(주)	상 품	-	-	20
	제 품	-	-	-
	반제품	-	-	-
	재공품	-	-	-
	원재료	-	-	4,276
	저장품	-	-	-
	미착재고자산	-	-	2
	기타재고자산	-	-	265,396
	소 계	-	-	269,694
웅진 폴리실리콘 (주)	상 품	-	-	-
	제 품	43	48	11,390
	반제품	53	702	28,085
	재공품	-	-	-
	원재료	-	-	3,936
	저장품	312	386	4,163
	미착재고자산	145	145	4,270
	기타재고자산	5	5	784
	소 계	558	1,286	52,628
기 타	상 품	5,556	5,887	6,726
	제 품	781	-	-
	반제품	12,776	-	-
	재공품	1,195	-	-
	원재료	4,887	-	-
	저장품	22,456	-	-
	미착재고자산	4,017	-	1

	기타재고자산	3,314	3,314	-
	소 계	54,982	9,201	6,727
합 계	상 품	5,594	6,022	12,883
	제 품	824	2,895	11,390
	반제품	12,829	4,780	28,085
	재공품	1,195	336	-
	원재료	4,887	24,563	8,212
	저장품	22,768	27,734	4,163
	미착재고자산	4,162	5,031	4,273
	기타재고자산	3,319	3,318	266,180
	소 계	55,578	74,679	335,186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1.97%	2.68%	9.39%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 + 기말재고)÷2}]		3.30	3.54	4.66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당사 및 종속회사는 당분기 재고실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매년 12월 기준으로 정기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실사방법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표본추출 하여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함.

3)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당반기말 현재 장기체화재고는 없습니다.

XII. 부속명세서

1. 공정가치평가 절차 요약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을 위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총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총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

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549,793	549,793	1,324,094	1,324,094
– 매도가능금융자산	1,566,846	1,566,846	1,558,239	1,558,239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소계	2,116,639	2,116,639	2,882,333	2,882,333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금융기관예치금	144,256,746	144,256,746	401,471,250	401,471,250
– 매출채권	98,479,440	98,479,440	117,276,401	117,276,401
– 단기대여금	61,517,035	61,517,035	59,867,587	59,867,587
– 미수금	5,318,600	5,318,600	7,404,722	7,404,722
– 미수수익	5,849,685	5,849,685	1,773,246	1,773,246
– 유동성금융리스채권	104,100	104,100	112,843	112,843
– 장기금융기관예치금	110,091	110,091	435,593,555	435,593,555
– 장기매출채권	22,639,459	22,639,459	–	–
– 장기대여금	394,681	394,681	24,444	24,444
– 장기미수금	110,000	110,000	–	–
– 장기보증금	7,358,735	7,358,735	5,717,050	5,717,050
– 장기미수수익	–	–	–	–
– 장기금융리스채권	8,675	8,675	118,559	118,559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소계	346,147,247	346,147,247	1,029,359,657	1,029,359,657
금융자산 합계	348,263,886	348,263,886	1,032,241,990	1,032,241,990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	45,542	45,542	83,283	83,283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소계	45,542	45,542	83,283	83,283
금융보증부채				
– 유동성금융보증계약부채	(12,500,716)	(12,500,716)	2,891,315	2,891,315
– 유동성금융보증총당부채	31,181,222	31,181,222	16,010,696	16,010,696
– 비유동금융보증계약부채	(30,421,379)	(30,421,379)	4,502,154	4,502,154
– 비유동금융보증총당부채	52,049,531	52,049,531	19,135,266	19,135,266
금융보증계약부채 소계	40,308,658	40,308,658	42,539,431	42,539,431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매입채무	68,522,264	68,522,264	200,585,013	200,585,013
– 미지급금	36,532,661	36,532,661	77,241,722	77,241,722
– 미지급비용	84,536,787	84,536,787	78,635,049	78,635,049
– 단기예수보증금	12,133,896	12,133,896	10,449,387	10,449,387
– 단기차입금	140,108,390	140,108,390	581,135,418	581,135,418
– 유동성자산유동화채무	2,000,000	2,000,000	–	–
– 자산유동화채무	333,333	333,333	20,000,000	20,000,000
– 유동성사채	68,896,255	68,896,255	658,764,973	658,764,973
– 유동성전환사채	–	–	–	–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95,996,649	95,996,649	94,403,596	94,403,596
– 유동성장기차입금	464,004,638	464,004,638	572,411,239	572,411,239

- 유동성금융리스부채	1,083,852	1,083,852	1,662,666	1,662,666
- 유동성회생채무	337,443,109	337,443,109	-	-
- 장기미지급금	1,948,744	1,948,744	1,549,424	1,549,424
- 예수보증금	13,803,967	13,803,967	11,159,324	11,159,324
- 장기미지급비용	769	769	2,370,395	2,370,395
- 장기차입금	55,462,190	55,462,190	182,234,433	182,234,433
- 사채	-	-	64,146,858	64,146,858
- 금융리스부채	-	-	-	-
- 회생채무	273,787,166	273,787,166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소계	1,656,594,670	1,656,594,670	2,556,749,497	2,556,749,497
금융부채 합계	1,696,948,870	1,696,948,870	2,599,372,211	2,599,372,211

②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이자율

예상 현금흐름을 할인하는데 이용된 이자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 수익률에 신용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당반기말과 전기말에 적용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2.10~2.92	4.00~8.20
파생상품부채	-	3.55~4.50
단기차입금	4.85~6.96	4.97~6.90
장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 포함)	4.52~19.00	5.63~8.20
사채(유동성사채 등 포함)	-	5.09~7.16
금융리스자산 및 부채	6.55~8.90	6.55~8.90

③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반기말:				
[금융자산]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1)	549,793	-	-	549,793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	-	765	765
-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	-	100,000	100,000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	-	45,542	-	
전기말:				
[금융자산]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1)	942,503	-	-	942,503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	-	765	765
-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	-	100,000	100,000

(*1)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인 웅진에너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치는 시장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되어 수준1로 분류하였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